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69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 (327)

차 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상혁명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람들의 의식명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혁명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상혁명을 적극 수행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인 동시에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사상혁명을 어떻게 수행하여나가는가 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전반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문제는 리론적으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있었으며 실천에서는 좌우 두 극단에서 여러가지 편향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상혁명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운동발전이 제기한 심각하고도 긴절한 요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에 관한 정연하고 과학적인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이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상혁명에 대한 문제에 고전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의 하나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대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사상혁명의 필요성과 의의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문제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4페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정치, 경제적 령역에서뿐만아니라 사상, 문화, 도덕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것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는 자본주의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게 된다.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청산되였으나 그 잔여분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준동한

다.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적대적요소이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근로자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다. 낡은 사상의 잔재는 사상의식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요소이다.

착취사회는 기술적으로 락후한 농촌을 물려주었으며 농민들의 사상문화적 락후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수립된 다음에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이 인차 마련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낡은 사회에서 뒤떨어진 생산력을 넘겨받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으나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이렇게 자본주의사회의 유물이 남아있는한 사회주의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것으로는 되지 못한다.

오직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는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근절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필수적구성부분으로 된다.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사상혁명을 수행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야 하며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닦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여도 사회를 관리하며 기술을 움직이는 주인인 사람들을 개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페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공산주의 도덕과 문화의 소유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1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상적요새의 중요내용을 이루며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도덕과 문화의 소유자로 되게 할수 있다.

이 과업은 오직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철저히 수행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사람들의 의식은 사회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상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당의 의식적이며 정력적인 투쟁이 없이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부르죠아적사상독소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명백히 밝히신바와 같이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자본주의사상독소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와 함께 사상혁명의 중요대상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다음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될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상혁명문제,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화하는 문제를 잘 푼다면 공산주의로 빨리 나갈수 있을것이고 이 문제를 옳게 풀지 못한다면 공산주의로 빨리 나갈수 없을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6페지)

사상혁명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수단으로 될뿐만아니라 적대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 그리고 경제건설투쟁 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다른 모든 과업들의 해결에 심각한 작용을 미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 사상혁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고 계급투쟁을 약화시킨다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도 없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4페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낡은 사상은 사회주의제도와 근본적으로 적대되며 서로 량립할수 없다.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지장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낡은 사상의 잔재는 내외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데도 큰 장애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에도 계급투쟁은 치렬하게 계속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는데서 직접적인 무력간섭에 의거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각종 부르죠아사상독소를 침습시켜 근로자들의 혁명성을 마비시키려고 광분한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여야만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석같이 꾸릴수 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킴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도 승리적으로 물리칠수 있으며 내부의 원쑤들의 온갖 간악한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다.

다음으로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나타내여 경제건설을 잘하는데서나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도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

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3페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을 촉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훌륭히 쌓아올릴수 있다.

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주인은 사람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수록 그들은 혁명위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다.

사상혁명을 강화하는것은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서도 선차적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농민들의 사상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지난날 소농경리하에서 살아왔다는 사정과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지속되는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일련의 특성으로 하여 농민들은 로동계급에 비하여 사상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협동화된 농촌의 주인인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직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농촌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다.

이 모든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사상혁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고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도 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실로 사상혁명에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그를 어떻게 수행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해결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이처럼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사상혁명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힘있게 진행하여나가야 한다.

만일 경제건설만 강조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한다면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해이와 안일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경제건설자체도 잘할수 없을뿐만아니라 부르죠아사상의 부식작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는 결코 경제생활을 떠나서 사상사업하나만으로 해결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결국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그것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65페지)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만 강조하면서 경제건설을 차요시한다면 인

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야 할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를 수행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사상혁명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할수 없고 사상개조사업자체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사상혁명에 관한 문제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게 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반적투쟁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경제건설을 적극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상혁명의 본질과 특성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가르치시였으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0~51페지)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관계의 기본과 사상혁명의 본질을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내리신 가장 과학적인 리론적정식화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상혁명에 대하여 원칙적태도를 취하고 그를 견결히 수행하여나가게 하는 혁명적지침으로 된다.

사상혁명,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은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이다.

또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 사소한 잔재도 허용하지 말고 그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계급적원칙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사상혁명수행에 가장 큰 관심과 힘을 돌려야 한다.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계급투쟁의 표현으로 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지 않는것은 곧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의 《공존》을 설교하는것이며 계급투쟁을 포기하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사상혁명이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구별되는 특성을 명백히 하심으로써 사상혁명을 그 목적과 의식개조의 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수행하는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폭력적방법이 아니라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결코 강제적방법이나 행정적방법으로는 개조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낡은 사상잔재를 떼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만 점차적으로 개조될수 있다.

만일 사상혁명을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투쟁과 같이 보고 낡은 사상잔재를 가진 사람을 적대계급처럼 취급한다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킬뿐만아니라 적아를 똑똑히 가려낼수 없게 하고 반혁명분자를 반대하는 투쟁도 잘할수 없게 한다.

오직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참을성있게 교양개조함으로써만 사상혁명의 과업을 옳게 해결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담당자인 대중의 사상의식수준과 자각적열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김일성동지의 군중에 대한 무한한 신뢰,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어도 개조못할 사람이란 있을수 없으며 의식적인 적대분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을 다 혁명화하여 공산주의까지 이끌어갈수 있고 또 가야 한다는 그이의 위대한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다.

우리 당은 지난날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일관하게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중대하고도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할것이다.

2

사상혁명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그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으로부터 사상혁명수행을 위한 교양사업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당이 사상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으로 된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가들, 공산주의투사들의 최고의 의무이며 첫째가는 과업이다.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전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절대적이며 근본적인 요구로 된다. 오직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킬 때에만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고 혁명가적기풍과 공산주의적도덕을 소유한 참된 혁명투사로 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사상을 가장 철저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오하

게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의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실천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조선혁명을 완성하는데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이 제기한 근본문제들에 과학적해명을 준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든 사람만이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굿굿이 지켜낼수 있으며 수령의 교시, 당정책을 받들고 혁명투쟁을 끝까지 계속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있으며 좌우경기회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것이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진정한 혁명투사로 키우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사상혁명수행의 중심과업으로 되는것이 바로 이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교양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2폐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사상혁명수행의 근본조건이다. 사상혁명의 과정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에 의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또한 로동계급은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이 그 누구보다도 높은 계급으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본보기로 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며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지도와 문화적영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수행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밝히시고 그를 강화할것을 거듭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한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제시하신것이다.

당정책교양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세계인민들이

동경하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번영통성하는 사회주의조국으로 전변시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에 담겨져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촉진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수령의 명도의 혁명성, 불멸의 투쟁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혁명성을 력사적으로 파악시키며 위대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서의 수령,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리론가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서의 수령,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수령의 고매한 풍모를 배우게 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배양시킨다. 혁명전통교양은 또한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백절불굴의 투지로 형언할수 없는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끝까지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게 한다.

이와 같이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40여년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다함없는 긍지와 영예감을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일편단심 수령께 충실하고 당과 혁명에 충실한 혁명투사로 키우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상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심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확고한 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도덕을 소유한 혁명가로,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키워나가는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사람들은 높은 계급의식을 가져야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들,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사람들의 세계관과 도덕은 그들의 계급적립장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며 오직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확고히 무장된 사람만이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 것을 똑똑히 갈라보고 계급적선을 명백히 그어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버리고 집단을 사랑하며 공동의 리익, 사회의 리익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 문제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게 하는 문제도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된다.

이와 같이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과 공산주의적도덕을 소유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우리 나라 혁명을 잘할수 있는 혁명투사로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기본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

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려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는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튼튼히 가지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습니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것은 근본적인 세계관문제이다.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이 정의와 진리를 위한 가장 정당하고 위대한 사업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 그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때문에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며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보람과 행복을 뜨겁게 느끼며 혁명의 전취물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바로 우리 나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고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복무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곧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을 하는 자부심이며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는 긍지감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할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는 수령의 붉은 전사로 더욱 훌륭히 준비시킬수 있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교양사업으로 된다.

3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방침은 우리 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고히 증시되였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앞세워 힘있게 벌린 결과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심각한 변혁이 일어났으며 오늘 전당과 전사회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수립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투쟁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사상혁명수행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사상혁명을 군중적사업으로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일대 혁명운동인 천리마운동을 낳았다.

천리마운동과 그 심화발전으로 되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하는 사업을 제1차적과업으로 내세우고 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모든 전선에서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

시키고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김일성동지의 사상혁명에 관한 리론과 방침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의 해결방도를 명철하게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대로를 열어준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리론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특히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할데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의 독창성과 과학성 그 심오한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일련의 중요한 사상들을 제시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매개 계급의 처지와 리익을 반영한다는것을 해명하였으며 공산주의혁명의 발전행정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상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의식이 사회적존재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기본원리를 밝힌 동시에 사상의식이 사회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는것과 선진적사상이 근로대중을 파악할 때 그것은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화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는 자본주의제도의 본질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 사회주의혁명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중심과업으로 제기되여있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의 해명에 힘을 집중한 그들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후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면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문제에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주었다.

레닌은 공산주의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적극적인 교양사업에 의하여서만 근로대중속에 주입될수 있으며 사상사업을 약화시킬 때에는 필연적으로 부르죠아사상을 조장하게 된다는것을 밝히고 사상교양사업을 당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레닌은 또한 공산주의사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과정에서 성과적으로 체득된다고 하면서 사상의식의 개조와 혁명적실천을 결합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쓰딸린은 한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며,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첫 사회주의나라를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 문제가 최대의 과업으로 나섰던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사상의식령역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는 사상혁명으로 제기하지 않고 문화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았으며 사상혁명의 구체적수행방도에 대한 정연한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 그들은 또한 계급교양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공산주의교양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것이 사상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밝히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발전의 현단계는 맑스-레닌주의당앞에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수많이 제기하고있으며 그 정확한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격렬한 투쟁속에서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당면한 혁명

파업으로 제기되고있다. 더우기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 나타난 좌우경기회주의는 사상혁명에 그릇되게 대하고 이 분야에서 혼란을 조성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령도하고있는 당들과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사상혁명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지체할수 없는 문제로, 공산주의운동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중대한 문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혁명리론과 40여년간의 기나긴 세월에 걸쳐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면서 몸소 쌓으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대중을 교양개조하는것이 심각한 사상혁명이라는것을 처음으로 천명하시였으며 사상혁명의 력사적필연성으로부터 과학적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천재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사상혁명에 관한 완성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사상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조국해방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선혁명의 모든 발전단계에서 항상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혁명화하는데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혁명승리를 보장한 빛나는 업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위대한것이다.

사상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상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과학적리론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하고 예리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의 사상혁명에 관한 리론을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상적요새를 더 빨리 점령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할수 있다.

4

사상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힘을 합쳐 미제의 각을 뜨고 세계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러한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사상혁명을 전면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자면 당조직들이 인민정권기관들과 근로단체들, 학교교육기관과 과학문화기관 등 모든 기관들과 사상교양사업의 온갖 수단, 방법들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 학교교육기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힘있게 벌림으로써 근로자들과 우리의 후대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참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거기에 담긴 심오한 사상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이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잘 운영하여 근

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실도있게 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수령의 로작들과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한글자한글자 따지면서 깊이 학습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상의 수준에 맞게 강습과 강연도 자주 조직하고 알기 쉽게 해설과 담화도 널리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사상사업을 군중속에 심화시켜야 한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적출판물들과 문학예술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의 신문과 방송, 잡지와 도서들은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이다. 모든 출판물들과 방송은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어떤 정세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투쟁하여나가는 수령의 참된 전사로,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공산주의자로 교양하기 위하여 더욱 훌륭히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현시기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을 형상한 노래와 소설, 연극과 영화를 더 잘, 더 많이 만들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데 더욱 훌륭히 복무하도록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칠것이다.

사상혁명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당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의 조직생활에서 집단주의사상을 길러야 하며 조직에서 혁명과업에 대한 엄격한 분공을 받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교양사업과 혁명적실천을 옳게 결부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개조될수 있다.

조직생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사람들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진행되는 정치교양사업, 비판과 자기비판, 대중적인 사상투쟁을 통하여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로 훌륭히 자라게 된다.

생활은 누구나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직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만하여지고 낡은 사상잔재가 조장되며 지어는 사상적으로 타락변질할수도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사상개조를 촉진할것이다.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는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발전시키는것이 큰 의의를 가진다.

경험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사상혁명은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수행될수 없으며 대중이 이 사업에 발동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중적사업으로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관철하고있는 사상개조의 가장 대중적형태이다.

천리마기수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며 배우자!》는 구호를 들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도덕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람들의 특성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집단이 짜고들어 교

양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할것이다.

당조직들은 모든 부문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하며 천리마기수들이 창조한 인간개조의 산 모범을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어디서나 사상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할것이다.

사상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그 성과는 지도일군들자신이 어떻게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군중에게 모범을 보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화되고 로동계급화되여야 하지만 특히 지도일군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더 철저히 혁명화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은 사상혁명수행에서도 군중의 앞장에 서서 나가야 하며 자신이 솔선 낡은 사상잔재들—여러가지 때를 씻어버림으로써 혁명화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자신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우고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모든 로작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당과 수령께 충실하려고 하여도 충실할수 없으며 자신을 혁명화할수 없다.

또한 일군들은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하며 군중속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대중의 통제를 받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더 잘 일하겠다는 각오와 혁명성을 높일수 있으며 사상혁명수행에서 군중의 앞장에 설수 있다.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전선의 초병들인 선전일군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선전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때와 살로 만들고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자기가 담당한 초소들에서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당조직들앞에는 지도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면서 당면하게는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정치사상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근로자들 속에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그를 위한 과업을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모두다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도록 확고히 보장할것이며 이 장엄한 투쟁행정에서 그들을 더욱 혁명화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위업은 휘황한 승리의 길을 따라 급속히 전진하고있다.

사상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리론을 관철하는 투쟁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며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필승불패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전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령적지침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여 발표하신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명을 기다리는 중요한 리론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 특히 사회주의정치경제학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의 새로운 광활한 전망을 펼쳐주시였

일성동지의 이 로작의 발표는 우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고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등 중요로작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로정과 그 단계, 매개 단계에서 해결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들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해결방도까지 명철하게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명확한 길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불후의 과학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 등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리론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시고 체계정연하게 정식화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광활한 전망을 더욱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1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독창적으로 제기되고 전면적으로 해명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선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불후의 과학적

로작에서 무엇보다 먼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히시고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10페지)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현실화할수 있는 방도를 천재적으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경제리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위력한 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자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킨다면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이룩하여나갈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수준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라를 빨리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국가는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으며 국방력도 강화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점령하여야 할 다른 하나의 요새인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

람들의 사상개조는 그들의 경제생활을 떠나서 사상사업하나만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결국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그것은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로동계급의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를 맑스-레닌주의원칙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의 본질과 상품생산의 유래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페관계가 남아있게 되는 조건, 생산수단의 상품성여부, 상품생산의 범위와 그 특성 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상품적형태, 가치법칙과 가치형태,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할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리용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 조건이 사회적분업과 소유의 분화에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이며 어떤 경우에 상품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처음으로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상품일수도 있고 상품이 아닐수도 있으며 따라서 상품인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치법칙이란 상품생산의 법칙이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성여부를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하되 그 범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계획적으로 리용하는 경우,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명백히 하시였으며 이 모든 경우에 국가가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의 전면적인 해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를 더욱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

로 지배하게 되고 경제의 규모가 훨씬 커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였던 그때에 벌써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국가적지도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일대 혁명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이번에 또다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탁월한 경제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국가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완성하여나갈수 있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사회주의국가가 과도기경제에 남아있는 개인부업경리와 농민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명백히 하시였으며 농민시장을 적절히 리용하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점차적으로 마련할데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조건을 명확히 밝히시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농민시장과 함께 상품류통일반이 없어진 다음 소비품의 분배제도를 명철하게 예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리용하는데서 취하여야 할 립장과 태도를 밝히시고 사회주의상업의 완전공급제에로의 이행에 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경제리론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리용하면서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조건을 마련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 담겨져있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탁월한 경제리론들은 사회주의경제분야에서 좌우경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여기에 이 로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하는 문제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을 더욱 높일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며 따라서 생산장성속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리론》은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우경기회주의적견해이다. 오늘 사회주의경제분야에서의 우경적편향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정치사업을 하지 않으며 사람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길러주고 순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며고 하는데서 중요하게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킬수 없게 하며 따라서 기술혁명과업도, 경제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대로 줄수 없고 그들을 먹여살리지도 못하게 될것이며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업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고 공업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리론은 일부 사람들이 《자유화》니, 《민주주의적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하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은 오직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도록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페관계와 가치법칙을 리용함에 있어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말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람들은 수정주의리론에 추종하여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가지고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는 우경적편향을 범하고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하는 극단적인 좌경적오유를 범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오늘 우경기회주의적견해에 사로잡힌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페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길을 통하여 상품생산을 없앨수 있는듯이 생각하고있다. 그리하여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까지도 상품화하여 그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종합적 리용의 우월성을 말살하고있으며 가치법칙의 작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관리에서 리윤, 수익성 범주를 일차적으로 내세움으로써 국가기업소들의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실질적인 소유의 분화를 가져올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고있다. 또한 가격의 일원화를 거부하고 국가기업소들사이에서 가격경쟁을 허용하며 농민시장을 제한없이 장려하는데 까지 빗나가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화페관계를 리용하는 문제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우경적견해는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는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수 있는것이다.

한편 이 분야에서의 좌경기회주의적 견해는 과도적인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은 보지않으며 소유의 분화를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없앨수 있는듯이 착각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경제관리에서 상품화페관계와 가치법칙의 역할을 전혀 무시하는데로부터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질서와 불합리성을 조장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시킬수 없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관리의 유일하게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길을 따라나갈 때에만 경제분야에서의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하루속히 앞당길수 있다.

2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더욱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리론을 완성하는데서 불후의 공헌으로 되는 고전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이때까지 많은 론쟁을 거듭하면서도 그 누구도 해명할수 없었던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 특히 사회주의 정치경제학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웠던 세계혁명발전의 지난 시기에는 제기될수 없었던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때까지 그 누구에 의하여서도 해명되지 못한채 남아있었다.

그것은 오직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완벽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의 발견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을 밝히시고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장성의 예비를 끊임없이 늘여나갈데 대한 문제와 함께 이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의 높은 발전속도를 계속 보장할데 대한 리론문제들을 명철하게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역할문제, 경제발전에서 정치사업의 선행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기술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리용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의 호상관계문제 등이 이 로작에서 완벽하게 해명되였다.

상품의 본질 및 상품생산의 유래와 그 소멸의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의 특성과 가치법칙의 작용에 대한 문제, 생산수단이 상품으로 되는경우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옳은 리용 및 가격제정원칙에 대한 문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대한 문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가치법칙의 자연발생적작용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상업으로부터 완전한 공급제에로의 이행문제 등은 모두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롭게 정식화되고 전면적으로 밝혀진 경제범주들이며 리론들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새로운 경제범주들과 리론들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사회적생산물의 생산과 분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리론적해명을 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소유가 분화되여있는 실정에 상응하게 로작에서는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에서 가치법칙이 각이하게 발현되는 현상들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하되 국가가 계획적으로 리용하는 경우,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각이한 내용으로 작용하는 가치법칙의 전면적인 해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범주들을 옳게 리용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기초로 되며 사회주의국가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특히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회주의상업의 완전한 공급제에로의 이행의 필연성에 관한 리론과 함께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천재적리론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현상들을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체계와 내용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여야 할 가장 포괄적인 경제현상들과 일정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중요한 경제현상들 그리고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경제현상들로 각각 그 위치를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더욱 완성된 과학으로 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 로작에서 해답을 주신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 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이 풀리게 된것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체계와 내용을 더욱 완성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만이 가지고있는 경제발전의 특성의 종합적표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함께 나타나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항구적인 합법칙적현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제반 경제법칙들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옳게 리용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중심적인 문제로 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관련하여 남아있게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지게 될것이나 그것이 합법칙적현상으로 존재하는 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리용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도 이와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도 생산수단은 상품류통령역에서 제외되며 기업소들에 계획적으로 공급된다고만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를 통하여 공급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씌여있지 않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서는 생산수단의 공급문제가 거의나 취급되지 않고있으며 특히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자재, 원료를 팔고사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분업과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 그리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가 있는만큼 상품화페관계가 필연적이며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에서도 가치형태를 통하여 경제계산을 진행하게 된다. 국가기업소경제활동의 성과여부도, 협동경리에서의 수익성도 또한 인민소비품의 생산과 분배에서도 가치형태가 중요한 계산 및 평가 척도로 되는 사정은 사회주의정치경제학으로 하여금 가치법칙의 리용문제에 중요한 자리를 주지 않을수 없게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도 농민시장에 대하여 잘 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면 농민시장은 공동경리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고 농민들의 소부르죠아사상, 리기주의를 길러준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때에 가서 없어질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똑똑히 씌여있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26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을 옳게

리용할데 대한 문제는 아직 국가의 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민시장은 일정한 령역에 국한된 문제이며 거기서는 뒤떨어진 방법으로 상품교환이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 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와 농민시장을 없앨 조건이 마련되여 있지 못하며 또 농민시장이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는 만큼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여기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군중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하여 나가는 무기로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어떻게 서술되여야 하며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국가가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동원하여 경제법칙을 옳게 인식하고 리용하는 리론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군중로선에 립각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리론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당적과학의 높이에로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자본주의경제법칙이 인간의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과는 달리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인식및 리용 과정은 곧 당이 군중을 령도하는 목적의식적인 과정이며 군중의 자각적인 활동과정인만큼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철저히 군중로선에 립각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군중로선에 립각한 정치경제학으로, 더욱 완벽한 체계와 내용을 갖춘 과학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정치경제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게 한 불후의 력사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그이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위대한 결실이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에는 일찌기 그이께서 창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관통되여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을 통하여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철저한 주체적립장,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창조적맑스-레닌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금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적진로를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으로서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리론적재부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이 불후의 천재적로작에 담겨져있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당의 붉은 과학전사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경제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튼튼히 옹호보위하며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정치경제학연구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휘하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

백 학 립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은 무산지구전투승리 30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1939년 5월에 진행된 무산지구전투는 15성상의 장구하고 간고한 나날 강도일제와 싸워이긴 조선인민혁명군의 자랑찬 전투로정을 빛나게 장식한 중요한 작전의 하나로서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줄기찬 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조선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유격대를 친히 창건하시였으며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심으로써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깊은 무산지구전투승리 30주년을 맞으면서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것을 굳게 다짐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시여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림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었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높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진행된 무산지구전투는 간악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국내진공작전의 하나였다.

무산지구전투를 전후한 시기는 조선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으며 조국땅에는 또다시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매우 엄혹한 때였다.

당시 일제는 침략적인 중일전쟁을 속결하려 하면서 파쑈독일, 이딸리아와 《반공협정》을 체결하고 쏘련과 몽골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륙침략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찰과 헌병, 군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하였으며 조선의 인적물적자원을 모조리 동원하기에 광분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련맹》, 《조선반공협회》 등 파쑈단체들과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반공》깜빠니야를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제의 파쑈적정치군사공세는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집중되였다. 일제는 이 시기에 와서 수십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소위 지역별 담당제와 《진드기전술》 등을 써가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려고 대대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하고 북부국경지대에 수많은 포대를 구축하며 《철통》같은 경비진을 쳐놓고 소위 안녕질서에 이상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있었다. 적들은 아무리 신출귀몰하는 《공산군》이라도 이처럼 총검의 숲을 이룬 삼엄한 경계망속으로는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일제는 1938년 겨울에 장백오지의 깊은 눈속에서 저들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는 《섬멸》되였다고 허위선전을 했으며 그 일부 부대가 남아있어도 다시는 일어설수 없다고 떠벌이였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유격대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귀순》과 《투항》을 설교해나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잔인무도한 경찰들을 동원하여 조국광복회하부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수천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파쑈적탄압이 이처럼 강화되자 행세식맑스주의자들과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시정배로 떨어졌거나 적의 주구로 전락되였으며 일부는 혁명을 도피하여 자취를 감추었으며 혹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영영 조선은 소생할 길이 없다》고 단념하고 타락하거나 원쑤들의 탄압에 질겁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또한 이 시기 좌경모험주의자,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혁명앞에는 또다시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9년 4월 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고난의 행군》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였으며 총반격에로 이행하여 적들의 발악적공세를 짓부시며 또다시 국내에로 진출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적들이 동기 〈토벌작전〉에서 기진맥진하여 제 소굴로 되돌아간 이때 놈들에게 숨쉴틈을 주지 말고 총반격에로 넘어가야 하며 조국에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여야 우리는 피복, 식량, 무장을 제때에 보충하고 우리의 력량을 회복할수 있으며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주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여 그들을 새로운 힘으로 투쟁에 일으켜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회의에서 맹렬한 군사활동과 함께 군중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소부대들을 국내각지에 파견하여 장백과 국내의 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며 로동자, 농민대중속에서 새로운 혁명조직들을 내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중이 있는 곳이면 혁명조직이 있게 하고 혁명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루어 모든 애국세력을 그 기발아래에 뭉치게 하고 아군의 무장투쟁과 배합하여 반일조국광복운동을 세차게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 방침은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완전소멸》을 떠들고있을 때 놈들에게 적극적공세를 가하여 적들을 일대 혼란속에 빠뜨리며 국경일대에서는 물론 국내깊이에까지 진격하여 놈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김으로써 그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게 하는 위대한 작전계획이였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희망을 안겨주고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운동을 계속 앙양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대정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몸소 부대를 친솔하시고 1939년 5월 18일 일제의 삼엄한 국경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건느시여 멸적의 기세드높이 무산지구에로의 진군을 개시하시였다. 조국땅에 들어선 이날 부대는 청봉에서 첫숙영을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일념으로 숙영지의 해묵은 나무들에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자!》, 《일본의 파시스트 군벌을 때려부시자!》, 《항일대전승리 만세!》 등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수많이 써놓았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맥박치는 이 구호들은 당시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부대를 거느리시고 건창, 베개봉을 거쳐 삼지연못가에 이르시여 조국땅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시면서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소.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라고 하시면서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고무하여주시였다.

한편 이때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의 국내진출에 당황한 일제는 그 진진을 막아보려고 수많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경선에 삼엄한 경비진을 치고 압록강주변의 산속을 샅샅이 뒤지며 경계를 더욱 강화케 하는 등 대소동을 일으키며 온갖 발악을 다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일행천리 전술로 대부대를 령솔하시여 100리가 넘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무산지구에로 진군하시였다. 이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실천에 옮기실수 있는 대담하고 결단성 있는 명확한 전술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밀림속에 있는줄만 알고 큰길에는 주의를 적게 돌리리라는것과 설사 큰길에서 적과 맞다든다해도 놈들을 능히 격멸할수 있다는것을 정확히 타산하시고 대담하게 그러한 행군을 결심하시였던것이다.

만일 그때 부대가 밀림속을 헤치고 나간다면 행군속도는 더디게 될것이고 대원들은 피로하게 될것이며 또 산속에 오래 지체되면 적들에게 포위될 우려도 있었고 무산지구에로의 진출이 지연될수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모든것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일제가 국경연선을 따라 갓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를 통하여 부대를 보무당당히 행군시켜 그날저녁으로 무포에 도착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를 친솔하시고 5월 22일 대홍단벌 국사당부근에 진출하시여 신사동과 신개척 일대의 적을 소멸하시였으며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신념을 안겨주는 정치선동사업을 몸소 진행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다음날 대홍단벌에서 또다시 유인, 매복전술로 300여명의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대홍단벌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타격이 얼마나 세였던지 유곡방향으로 물고뛰던 놈들은 그쪽에서 오고있던 제놈들의 응원대인 수비대와 맞불질을 하는 추태까지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이처럼 번개같이 무산지구를 공격하여 로은산일대를 완전히 해방하고 조국진군의 정치군사적목적을 원만히 달성하였다. 그후 부대는 백두산동북부의 넓은 지역에 자리를 옮겨 대부대선회작전을 성과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무산지구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에로의 진출과 그 빛나는 승리, 이것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완강한 혁명적전개력과 대담무쌍하고 과단성있는 명활한 전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진공작전에서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자연지리적조건 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결정적으로 섬멸하기 위

한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을 능숙히 적용하심으로써 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무산지구전투에서 적용된 천재적인 일행천리전술, 신속하고도 대담한 기동전술, 분산과 집중, 매복과 유인전술 등은 적들로 하여금 대혼란에 빠지게 하였으며 놈들에게 미처 손쓸름을 주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무산지구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전기간 항상 명활하게 기동하면서 전투에서 속전속결의 원칙을 관철하도록 능숙하게 지휘하심으로써 불의에 적을 타격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유격전술의 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짧은 시간내에 도처에서 수많은 적들을 강력히 타격하고 전투마다에서 승리를 보장하게 하시였다. 특히 대홍단벌전투에서는 매복과 망원전술을 능숙하게 적용하심으로써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저들끼리 개싸움을 벌리게 하였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명활한 령군술이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무산지구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실로 무산지구전투는 조선혁명의 전진도상에 무거운 암운이 드리우고있을 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령도된 항일유격대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그것은 또한 수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 사회주의적애국주의 등 항일유격대원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진행된 무산지구전투승리는 조선혁명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정치군사적의의를 가진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무산지구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밑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그에 생기를 북돋아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은산일대를 해방하시고 이곳 로동자들과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의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해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억압과 착취 밑에서 빈궁과 무권리에 허덕이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망국노로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절대로 더는 그렇게 될수 없다.

그러면 조선인민이 자기 조국을 해방할수 있는 힘이 없는가?

아니다. 그러한 힘은 얼마든지 있다. 바로 그 힘은 전체 조선의 선량한 인민들—특히 로동자, 농민의 굳은 단결에 있다.

우리는 이 힘을 믿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그 힘을 단합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투쟁에 돌려야 한다. …

당신들 로동계급은 조선인민의 가장 선진적인 부대이다. 무산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일전선의 선두에 바로 당신들이 나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의 내용을 알기쉽게 해설해주시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직을 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과 계속 련계를 취할 구체적인 방도까지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일제의 모진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고있던 조선인민들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조국해방의 서광,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안겨주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높은 덕성에 무한히 감동된 로동자들과 인민들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있으며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력을 가지고있다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됨으로써 서로 앞을 다투어 그이께서

명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할것을 탄원해나섰으며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무산지구전투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는 또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멸》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줌으로써 놈들의 《무적》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린데 있다.

적들은 수십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해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나 그때마다 만회할수 없는 패배를 당한것처럼 무산지구전투에서도 치명적타격을 받고 녹아났다.

무산지구전투승리에 대한 감격적인 소식은 일제의 갖은 발악에도 불구하고 삽시에 조국의 방방곡곡에 퍼졌다.

인민들은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에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신출귀몰한 전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승리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언장담하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조소하였다.

무산지구전투를 통하여 일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뜨려지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놈들의 허위선전은 날날이 폭로되고 말았으며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더욱 고조되여갔다.

실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무산지구진출은 적들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의 계속 앙양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여놓았다.

무산지구전투는 또한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진행된 무산지구전투는 일제의 병력을 분산약화시킴으로써 놈들의 침략적인 중일전쟁수행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또한 그것은 백만의 관동군을 만주에 상주시켜놓고 쏘만국경에서 무력도발을 부단히 감행하던 일제에게 배후에서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이 제멋대로 날뛸수 없게 하였다.

무산지구전투는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약화시키며 린접국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용기와 고무적힘을 안겨줌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이 무산지구전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계속 앙양시킴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진행된 무산지구전투를 포함한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며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해방후에는 그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국땅에 뿌리신 혁명의 붉은 씨앗은 오늘 새생활창조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속에서 더욱 왕성하게 자라고있으며 그 혁명정신은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승리 30주년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회상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 그날을 더욱 앞당길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

오 기 천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청년동맹건설의 기본원칙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밝히시고 청년교양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는 그이께서 우리 혁명과 조선청년운동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쌓으신 귀중하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서 청년조직들과 청년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으로서 청년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모든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 담긴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의 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언제나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 나라 청년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조직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적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03페지)

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청년운동발전의 근본이며 사로청활동의 기본원칙이다. 우리의 모든 사로청원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해야만 청춘의 모든 아름다운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수 있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걸머지고 나아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다.

우리의 청년조직들과 청년들에 대한 당의 령도, 이것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이다.

우리 청년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당,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근로단체들을 조직하심으로써 정연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확립하시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당의 령도를 받는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의 임무와 역할, 그들사이의 호상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심으로써 그 활동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주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그이의 령도를 받

들고 싸우는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이다.

우리의 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로 우리의 청년운동을 령도하시며 청년들을 혁명적인 사상으로 교양하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투쟁의 앞길을 명시하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벌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의 위대한 령도자로서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이 나아갈 독창적이며 주체적인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친히 혁명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시고 투쟁의 불길속에서 청년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투사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대중적인 청년단체로서의 민주청년동맹을 창건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의 기본방향과 활동방침,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적근로청년들의 공산주의적대중단체인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고치시고 청년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청년들의 강유력한 전투적대오로 꾸려졌으며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서의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모든 활동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으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달성한 모든 성과와 그들이 누리고있는 보람찬 생활과 그들의 광명한 앞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히 충실하는것은 조선청년운동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조선청년들의 제일생명이다.

우리의 청년들이 수령께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그이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 관철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근위대, 결사대로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당의 령도에 충실하며 로동당의 후비대로서 자기앞에 제기된 력사적사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장래발전과 우리 조국의 앞날은 청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당의 붉은 전사로 자라날 때 우리의 혁명위업은 계속 힘있게 전진할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더 번영할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살고있는 력사적시기와 그들이 맡을 중대한 사명에 비추어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10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민족의 장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교양되고 준비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기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교양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청년세대들에 대한 교양문제는 그들이 살고있는 력사적시기와 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에 비추어 더욱 큰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르기까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이루어놓은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업적을 계승발전시키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할 성**

스러운 임무가 맡겨져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4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요구로부터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기본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청년교양에서의 성과는 그들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양하는가에 달려있다. 모든 청년들을 훌륭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양내용이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청년들에 대한 혁명적인 교양을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그들속에서 리기주의가 조장되며 안일해이한 현상이 발로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그리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청년교양의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당의 전투적후비대로, 지덕체를 훌륭히 갖춘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모든 청년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청년들의 기본임무는 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진리와 함께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청년들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며, 조선혁명은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이다. 우리 청년들이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우리 혁명의 정확한 전략전술을 체득할수 있고 모든 사업에서 옳은 방도를 찾을수 있으며 드높은 신심과 청춘의 정열을 안고 당정책관철에 이악하게 달라붙을수 있다.

또한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과 반동사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수령의 전사로서의 커다란 자부심을 안고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청소년사업에 주신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며 그것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듦으로써 전동맹과 전체 청년들이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전투적대오로 되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청년교양의 내용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혁명적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혁명적교양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우리 혁명임무의 간고성, 복잡성과 함께 청년들이 자라난 생활환경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분렬되여있으며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세계침략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 미제침략자들을 쭉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해야 할 간고한 혁명임무가 맡겨져있다.

한편 청년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줄곧 행복하게 자라났으며 또 살고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만약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계급적으로 철저히 교양하지 않는다면 안락한 생활에 물젖어 그저 편안하게만 살것을 바라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해버릴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좋아지면 질수록 오늘의 사회주의제도와 행복한 생활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많은 혁명투사들이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진행한 피어린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청년세대들이 착취계급과 그 제도를 철저히 증오하게 되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수 있으며 이 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

청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고 계급적각성을 높이는데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항일빨찌산들이 이루어놓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투쟁업적을 늘 깊이 연구하며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7페지)

혁명전통교양은 우리의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혁명의 근본을 알게 하며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혁명가의 기개와 강의성을 배우게 함으로써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위력한 수단이다.

청년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빛나는 혁명력사, 혁명적가정,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알고 수령을 따라배울수 있으며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고매한 정신과 혁명가적품성을 본받아 그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고 수령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와 같이 청년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부단히 높여야만 그들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혁명적교양과 함께 그들을 발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덕체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새세대들이 모두가 다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되고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5페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훌륭히 건설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이 높은 지식과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는 동시에 튼튼한 체력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청년시절에는 세계관과 인격이 형성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것만큼 지덕체를 갖출수 있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매우 절실하게 제기된다. 청년들에게 풍부한 혁명적지식과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소유시키며 몸을 튼튼히 단련시켜야 그들이 낡은 사상과 낡은 생활습성에 물젖지 않고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양의 이러한 요구로부터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모

든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과 튼튼한 체력, 혁명가적품성을 가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우리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히시고 그들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하며 공업,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기발랄하고 피곤과 두려움을 모르는 청년들이 로력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만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공고화되고 륭성발전할수 있다. 청년들이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와 능력을 조국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다 바치는것은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일이다. 우리의 청년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렵고 힘들며 긴요한 부문에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돌격대가 되고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마련된 나라와 인민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부문에서 나라의 진정한 살림군이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모든 청년들이 기술혁명의 앞장에 서서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섬으로써만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의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담하게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등을 짓부시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앞장서며 모든 분야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수정주의적견해에 타격을 주고 우리 당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로동청년들과 농민청년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농촌청년들은 자기들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알곡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데서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보위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입니다.》**(우와 같은 책, 113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조국보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혁명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위대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전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보람찬 일이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르실 때에는 언제든지 원쑤와의 싸움에 떨쳐나서며 조국의 한치땅을 피로 지킬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청년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다그쳐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우리 나라 혁명정세와 남조선청년운동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남조선청년운동의 발전방향과 남조선청년들의 투쟁과업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남조선청년운동의 방침을 명시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싸우는 남조선청년들로 하여금 명확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떨쳐일어날수 있게 하였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며 그이의 령도밑에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더욱 억센 투쟁을 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혁명적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결히 싸워나갈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가르쳐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전략을 높이 받들고 세계혁명적청년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청년운동을 반제반미투쟁의 길로 확고하게 이끌고있으며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 *

오늘 모든 사로청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청년교양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붉은 전사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각급 사로청동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활동에서 독자성과 책임성을 일층 높이는것이다.

우선 사로청일군들자신이 혁명적학풍을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일층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수령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청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수 있고 자기 사업에서 독자성과 책임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은 근로단체의 독자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이며 청년교양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모든 청년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수령의 붉은 전사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다.

우리는 지칠줄 모르고 굴할줄 모르는 우리의 청년들로 하여금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청년사회주의건설자답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수령의 크나큰 은덕과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게 해야 한다.

농촌진지강화는 혁명력량 강화의 중요담보

백 범 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농촌진지강화에 시종일관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에로 전당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일련의 력사적인 문헌들과 교시들에서 특히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와 지난 2월에 있은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농촌진지강화를 위한 독창적이며 혁명적인 원칙과 구체적방도를 거듭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농촌문제해결과 농촌진지강화를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몸소 수많은 군들과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그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황해남도에 대한 거듭되는 현지지도를 하여주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농촌당조직들의 사업과 농촌핵심진지의 형편을 친히 료해하시고 농촌진지강화를 위하여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들과 그 구체적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을 찾으시여 농촌실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농촌진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촌에 우수한 로동계급과 제대군인들을 수많이 보내주시고 혁명가유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등 핵심들을 고착시키도록 하시였으며 친어버이 심정으로 렬사가족들의 생활을 돌봐주시고 그 자녀들을 혁명학원과 초등학원에 보내시여 우리 혁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공산주의적역군으로, 혁명의 기본골간으로 키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께서 몸소 창조하여주신 위대한 모범은 도내 농촌핵심진지를 강화하며 농촌사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조직들과 우리 일군들의 활동에서 유일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도내 농촌당조직들의 전투력과 농촌핵심군중들의 계급적각성은 비상히 높아졌다. 오늘 도내 농촌에는 전체 농민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히 조직동원할줄 아는 우수한 핵심부대가 튼튼히 꾸려져있고 도내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그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갈 확고한 혁명적각오로 충만되여있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진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으로 하여 농업생산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실은 모든 당조직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농촌진지강화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공업이 발전되고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장성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과의 계급적동맹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아도 농촌은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지탱해야 할 좋은 근거지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진지를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만일 우리가 전국에 있는…농촌리를 모두다 핵심대렬로 꾸리고 튼튼한 혁명진지로 만들어놓는다면 어떠한 계급적원쑤들의 음모책동도 능히 분쇄할수 있을것입니다.》

농촌진지는 우리 혁명기지의 중요 구성부분의 하나이며 그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전반적혁명기지를 반석으로 다지는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인 농업생산기지이며 가장 넓은 지역과 많은 주민을 포괄하는 혁명진지이다. 이 진지를 강화하는것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확고한 통일단결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농촌진지를 강화하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농촌진지를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기술적, 문화적, 사상적 락후성을 퇴치할수 있으며 따라서 반동적부르죠아목소들의 침습을 막을수 있고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없앨수 있다.

농촌진지를 강화하는것은 현정세의 요구로 보아 절실한 문제로 된다.

우리는 아직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지 못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종 군사적도발과 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우리 나라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유사시에 적과의 판가리싸움에서 확고한 승리를 담보할수 있는 강력한 보루의 하나를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도가 처한 제반 특수성으로 보아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황해남도는 매일과 같이 적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군사적 및 사상적 침투를 위한 도발책동이 감행되고있는 연선지대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분렬,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주민구성에서 심한 복잡성이 조성되였으며 농촌주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농촌진지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곧 이부문 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에서 내세운 구호가 무엇입니까? 농촌진지를 강화하자는것입니다. 우리 당이 농촌진지를 강화한다는것은 농촌초급당단체들을 더욱 튼튼하게 꾸리는것을 의미합니다.》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는 우리 당의 창건초기부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기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견지하여오는 우리 당건설의 중요한 방침의 하나이다.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농촌에 있는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기능을 높이는것으로 되며 그것은 나아가서 당의 기층조직들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것으로 된다.

도내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혁명력량강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리론실

천적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4년 2월과 1966년 11월에 있은 현지지도를 비롯하여 황해남도에 대한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에서 주신 교시들에서와 기타 여러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농촌진지를 철벽같이 꾸릴데 대한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들은 광범한 군중을 당주위에 묶어세워 농촌진지를 굳게 다질뿐만아니라 우리의 혁명력량을 불패의 대오로 만듦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명시한것이다.

도내 각급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투쟁하여 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계급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촌에서 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촌에서 혁명의 핵심부대를 튼튼히 꾸려야만 광범한 농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울수 있다.

도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내 농촌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이 문제해결에 선차적인 당적관심을 돌려왔다.

도내 당조직들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사회정치생활이 견실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적인 로동자, 고농,빈농 출신들과 그 아들딸들,혁명가유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예군인, 제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등 혁명의 핵심군중들을 료해장악하고 그들로써 농촌초급간부대렬을 꾸리였다. 이와 함께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적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교양육성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도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께서 렬사가족 및 후방가족들에게 주신 교시를 체계적으로 반복하여 해설침투시켰으며 《렬사가족과 후방가족들은 우리 당의 기둥이다》, 《피살자 및 전사자 가족들은 남편과 부모의 뒤를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 강연, 해설담화 사업을 그들의 실생활과 결부시켜 조직진행하였다.

한편 도내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시,군당학교, 공산대학 등에 렬사가족 및 후방가족들과 모든 초급일군들을 보내여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조직적단련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어떠한 혁명임무든지 능히 감당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과 핵심들에게 사회주의하에서 계급과 계급투쟁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을 비롯하여 그들을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농촌핵심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실제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실무능력을 높여주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존경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도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초급일군들, 핵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한편 실지 사업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도록 하였다. 또한 당조직들은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핵심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그들의 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봐주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렬사가족 및 후방가족들은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속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며 행동하고있으며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보람있게 생활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핵심들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에게 확고히 의거하여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각계각층군중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과의 사업을 옳게 진행하는것은 황해남도의 실정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문제로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일부 당조직들이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과의 사업에서 발로시킨 좌우경적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수령의 교시대로 이 사업을 인내성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적대계급출신의 의식적인 반동분자들은 결코 자기의 전복기도를 버리지 않는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대분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한것입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을 믿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기 위업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당의 불패의 힘과 권위를 확신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반동분자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과거의 경력이 복잡한 사람이라도 그가 현재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한다면 그를 대담하게 믿어주고 포섭하며 그에게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원쑤들의 온갖 리간책동을 분쇄하고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쟁취할수 있게 하며 적대분자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그들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며 실지사업에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7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가 확고히 의거해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도당위원회는 일군들과 핵심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의 참뜻을 리해하고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며 그들과의 사업에서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도록 하는 문제에 선차적주목을 돌렸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1966년 11월 황해남도에 오시여 몸소 월남자가족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하신 교시들과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바로잡을데 대한 교시의 내용을 일군들과 핵심들 속에 철저히 침투시켰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과 핵심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을 체득하도록 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연안군 오현리를 비롯한 도내 많은 단위들에서 지도일군들과 핵심들이 직접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각계각층 군중에게 베풀어주시는 두터운 배려와 그이의 높은 덕성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당 군중로선의 본질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복잡한 계층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계급적으로, 혁명

적으로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도내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군중들이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배려를 똑똑히 인식하게 하는 한편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는 원칙적인 교양사업을 근기있게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는 《과거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계급적근본을 똑똑히 깨닫고 혁명적으로 살아야 한다》 등의 제목으로 해설담화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이 그들을 개별적으로 자주 만나 정치사상적동향과 심리상태를 정확히 료해파악하며 그들의 계급적처지와 생활경위에 대하여 옳게 분석해주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였으며 모든 단위들에서 그들에게 대담하게 일을 맡기고 사회적평가도 정확히 해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계급적처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판단할수 있게 되였다. 그들은 자기의 원쑤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진심으로 당을 믿고 사업에 온갖 열성을 다하는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자녀들을 수령의 참된 전사로 키우기 위해 온갖 열성을 다하고있다.

오늘 도내 모든 농촌들에서는 핵심들과 기본군중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제고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합되여 혁명과업수행에서 창의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고있다.

농촌진지가 강화되고 군중의 계급적각성이 비상히 제고된 결과 도내 모든 농촌들은 그 어떠한 계급적원쑤들의 음모책동도 제때에 적발분쇄할수 있는 믿음직한 혁명초소로 전변되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있다. 반간첩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놈들의 간첩암해분자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한 연안군 라진포리를 비롯한 도내 여러 지역들의 실례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실천적경험은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핵심들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킴으로써만 모든 농촌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계급진지로 전변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농촌진지강화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지금 농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장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456페지)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농촌진지강화의 필수적요구이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이 없이는 농촌진지를 로동계급의 계급적의사에 부합되게 꾸릴수 없으며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없다.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여야만 언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혁명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농촌진지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될수 있다.

도당위원회는 도내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

욱한 김일성동지의 여러 로작들과 함께 1962년 2월 해주지구 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하신 교시와 1966년 11월 황해남도농업부문 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하신 교시를 비롯하여 황해남도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심오히 연구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게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당위원회들의 지도밑에 당사상사업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활발히 운영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체득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촌진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그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사업의 기본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입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계급적원수들과는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돌들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2페지)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을 배양하고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야만 모든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진지의 주인된 긍지를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반대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수 있다.

도내 당조직들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똑똑히 알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사업을 강력히 진행하면서 력사적사실에 근거하여 미제와 일제의 강도적본성과 우리 나라에 대한 놈들의 력사적인 침략적죄행을 인식시키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도내 농민들속에서는 계급의식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모든 문제를 계급적견지에서 보고 판단할줄 아는 안목이 확고히 서가고있으며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가 견지되고있다.

도내 당조직들은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농민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킴과 함께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공산주의적생활기풍과 집단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이러한 교양사업들을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장원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였다.

경험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직사업과 옳게 결합시킬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곡생산을 높이며 농촌의 물질적기초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1월 황해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농촌진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를 훌륭한 농업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관철하는데서 황해남도앞에 제기되는 첫째가는 과업은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러면서 그이께서는 이것이 경제건설도 잘하고 국방건설도 잘하며 전쟁준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알곡을 많이 내는것은…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에게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길러주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65페지)

《…알곡을 많이 생산하면 먹는 문제가 풀리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거기에서 대포도 나오고 땅크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도 나올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46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이다.

도당위원회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면서 알곡생산을 증대하며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도내 당조직들은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이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수준을 높이며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인식시키고 농민들로 하여금 높은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알곡생산에 동원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안악군 오국리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라는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여 지난해에 논벼를 정당 6톤이상 생산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내 당조직들은 이와 함께 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일단 유사시에는 인민군대와 한덩어리가 되여 원쑤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성스러운 위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농촌진지의 강력한 군사적담보를 이룩하여 놓았다.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도내 모든 농촌들은 계급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이 모든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정확한 방침이 있었고 그이의 일상적인 구체적지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도내 당조직들은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도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투쟁함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도내 당조직들앞에는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수령의 위대한 이 전략적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도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농촌진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에 담긴 심오한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농촌핵심대렬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각계각층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며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도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진지를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모든 농촌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철벽의 혁명진지로 되게 할것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

심 재 성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지난 1년간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이 운동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 중대한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교시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천리마작업반운동앞에 제기된 기본과업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면서 천리마기수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천리마기수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그것은 천리마운동의 본질과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로선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한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0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운동은 사람들을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하나의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다.

사람과의 사업이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운동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에 의하여 창조된 근로대중의 훌륭한 공산주의학교라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모든 사람을 잘살게 하자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뒤떨어진 사람으로 남겨두지 말고 참을성있게 끝까지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어야 한다.

천리마운동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할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일은 실로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것은 의식의 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는 심각한 사상혁명이다. 인간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 이러한 심각한 혁명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사람과의 사업이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본질적요구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이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대중적진군운동이라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은 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것은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투쟁에 참가하는것은 결코 자연발생적인 과정으로는 될수 없다. 혁명은 군중자신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자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거기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는것을 알고 자각적으로 동원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이 사람과의 사업을 전제로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특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소극분자가 적극분자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교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이 없이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킬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공장이나 철도를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며 사람들의 생활을 개조하는것도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사람이 동원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람과의 사업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첫째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립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문제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모든 기본과업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중심고리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이 중심고리를 잘 풀어나감으로써만 천리마작업반운동앞에 제기되는 다른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이처럼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구로, 제일차적과업으로 된다.

사람과의 사업을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 나가시려는 그이의 높은 덕성과 인민대중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을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발양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시려는 그이의 원칙적인 립장과 혁명적인 군중관점을 표현하고있다.

천리마기수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수령의 높은 뜻을 더 잘 구현해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천리마기수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천리마기수들은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며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주어져있으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며 그들의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혁명적세계관도 확립할수 없고 따라서 옳고 그른것을 가려낼수도 없으며 수정주의, 좌경모험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나쁜 사상을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없다.

생활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린 결과 김윤용동무가 일하는 광산의 붉은 광부들이 쇠돌생산을 일약 2배로 올리고 1970년에 점령할 쇠돌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달성한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로동계급이 달성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할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는 천리마기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된다.

천리마기수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경향들과 사상적요소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옹호하며 계급적원쑤들과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을 튼튼히 보위하고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그이의 혁명사상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로, 어떤 환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도록 하며 우리 혁명의 모든 전선과 모든 초소가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명도밑에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기수들은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가 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뿌리뽑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하

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파의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며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하기 좋아하도록 그들을 교양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결정적담보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한 사회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 건설자들인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칠줄아는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부르죠아지를 비롯한 온갖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장애물로 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혁명과 건설의 리익과 배치되는 모든 부정적현상들은 모두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천리마운동의 본질적요구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그것을 극복함이 없이는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집단생활, 특히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구체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조직의 정치생활을 잘할 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혁명정신을 가지게 되며 혁명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혁명가적기풍을 세우게 되는것이다. 실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는 가장 위력한 방도이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누구나 다 조직의 엄격한 규률과 혁명적 질서 밑에서, 대중의 철저한 통제속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할것이며 천리마기수들은 대중의 앞장에 서서 정치적조직생활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들인 천리마기수들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이다. 우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야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의 혁명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함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근본문제로 된다.

모든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과 함께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근로자들

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그리고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며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더욱 헌신적으로 참가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할수 있다.

이러한 교양사업은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성적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가며 로동을 사랑하는 등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당면한 실천투쟁을 적극화하도록 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따라서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일상적인 실천활동과 생활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야만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적작용을 강화할수 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청소하며 그 구성도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로동계급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를 더욱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듦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과정을 가일층 촉진시켜야 할것이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심적인 문제들을 명백히 제시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하여서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는 방법,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으며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대중을 혁명화하려면 근로단체들이 정치사업을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그이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세계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사람들을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여오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진리로서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이 언제나 튼튼히 의거해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그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것은 그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책을 읽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의 진수를 파악할수 없으며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할수 없다. 또한 자연과 사회에 관한 과학적지식을 습득할수 없다. 모든 근로자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여야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직맹조직들과 천리마작업반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혁명전통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게 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예술 등 다방면적인 지식들을 잘 습득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책을 읽도록 하는 사업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발표회도 수시로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자체로 혁명적연극도 만들어 출연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적연극을 통한 교양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창조되는 전형적인 긍정적모범을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대중앞에 직접 재현하는 감화교양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들을 혁

명화하기 위한 위력한 교양수단이다.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 수령의 령도밑에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실적인 다양한 주제의 혁명적연극들을 더 많이 만들어 자기 공장에서도 공연하고 순회하면서도 공연하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조직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노래보급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혁명가요를 보급하는것이 대중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노래보급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가요를 통한 교양사업은 근로자들에게 그 사상적내용을 인식시킴에 있어서뿐만아니라 그들에게 고상한 혁명가적정서를 길러주고 혁명적인 기백과 전투적인 랑만성을 형성시킴에 있어서 큰 역할을 논다.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계급속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가요들을 널리 보급하는 사업과 함께 대중이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새로운 혁명적인 노래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것을 전체 근로자들이 부르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야기모임, 영화감상회,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다 리용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 사상사업이 군중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자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집체교양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설복과 교양을 위주로하는 개별교양을 이에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원래 천리마기수들은 관료주의도 형식주의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며 뜨거운 동지적우애와 긍정적모범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훌륭한 교양자들이다.

근로자들을 설복하고 교양함에 있어서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교시, 특히 현지교시를 놓고 한조항씩 내심있게 깨우쳐줌으로써 모두가 수령의 교시를 생활의 거울로 삼아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비추어보고 부족점을 고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설복과 교양은 그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한번하여 안되면 열번, 백번이라도 거듭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특히 가장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인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의 방법을 힘있게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소극분자, 락후분자를 모두다 적극분자, 선진분자로 만들며 각계각층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이 모든 사업을 성과있게 보장하기 위한 기본열쇠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며 행정실무적인 사업방법을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사업을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게 함으로써 수령께서 천리마기수들에게 주신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　　　*

모든 직맹조직들과 천리마기수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 천리마작업반앞에 제기된 영예롭고 숭고한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그이의 혁명사상을 따라 힘차게 나가는 우리들, 천리마기수들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천리마기수들은 당과 수령의 높은 기대와 깊은 신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친위대, 결사대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사회주의적공업화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중요한 물질적담보

장 영 금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심오히 밝히시고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리론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실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풍부화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공업화에 관한 혁명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전면적기술혁명을 더욱 촉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사회주의공업화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려면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하여야만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국가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업은 현대적공업으로 더욱 발전할것이며 농업에서도 흉풍을 모르게 되여 먹을것, 입을것이 풍족하게 될것이며 문화주택이 즐비하게 일어설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며 남반부인민들을 도와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잘 살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3~234페지)

사회주의공업화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한 결정적고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공업화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을 창설함이 없이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없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만 인민경제의 기술적진보와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끊임없이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

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과 농업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여야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4페지)

사회주의공업화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공업화를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공업화를 촉진하여 공업과 농업 생산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만 이에 토대하여 인민들의 끊임없이 장성하는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원래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생활을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것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깊이 느끼게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였을 때라야만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공업화의 실현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인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는 결국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나라의 공업화를 힘있게 추진시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만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도시에 비한 농촌의 모든 락후성,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것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개변되는것이다.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촉진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로동조건과 생활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써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은 또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과 근로자들의 평화적로동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자위적국방력의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하여 준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반석같이 꾸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며 남반부인민들을 도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잘 살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다.

실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인민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독립국가의 위력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제힘으로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길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해방된 조국땅우에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해방후에는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철저히 실시하여 공업화에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시였으며 사회주의적공업화를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발전을 다른 경제부문들에 확고히 앞세움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또한 중공업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도 그것을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과 옳게 련관시킴으로써 농업까지도 포함한 인민경제전반을 선진기술로 장비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가장 빨리,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가장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을뿐만 아니라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력사적특성과 공업의 구체적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사회주의공업화를 기초축성단계와 전면적실현단계로 나누어 진행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개건의 첫단계인 5개년계획기간에는 공업화의 기초를 쌓음으로써 앞으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기술적 조건을 준비하며 7개년계획기간에는 이미 꾸려진 중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를 짧은 기간에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낡은 사회로부터 락후한 식민지적공업을 넘겨받았으며 그것조차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

게 마사졌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없었다. 우리는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화의 튼튼한 기초를 쌓음으로써만 전후에 그처럼 절박하게 제기되였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해결할수 있었으며 점차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는 자금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중공업의 발전과 경공업 및 농촌경리의 발전을 옳게 련결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방도로 제시하시였다.

우리에게 있었다는 중공업이란 기술장비가 뒤떨어지고 기형적이였을뿐아니라 그것마저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마사진것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당은 이것을 버릴수는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있던 중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복구하며 새 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확장하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에 없던 공업부문과 공장들을 신설하는 방침을 취하시였다. 또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복무시켜 자금의 회전을 촉진함으로써 적은 자금으로 공업화를 더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이미 있는 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업화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대중적운동을 벌리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전인민적운동으로 벌어진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지방산업공장들의 대대적인 건설,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 등은 모두다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당면하게 제기된 절박한 문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뿐만아니라 나라의 공업화를 비상히 촉진시킴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서 기술간부의 대부대를 예견성있게 키우기 위한 옳은 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기술간부문제를 풀기 위하여 오랜 기술일군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키우는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민족간부를 양성함에 있어서 특히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세우시여 새세대들을 선진과학기술리론과 실천적경험을 겸비한 유능한 기술인재로 자라나게 하시였으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속에서 기술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울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과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에서 그처럼 날카롭게 나섰던 기술인재문제를 훌륭히 풀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공업화로선과 방침들은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하여 공업화를 우리 인민의 힘과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서 나온것으로 하여 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지로서 더욱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1페지)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은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되고 인민들의 생활도 체계적으로 빨리 향상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여가고있으며 우리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졌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인민으로 되였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찬란한 성과는 전적으로 진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쌓아올린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거대한 생산잠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공업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나라의 공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적진보와 인민경제발전의 기초로 되는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지난 기간 악전고투하여 꾸며놓은 기계공업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요구되는 대형기계와 정밀기계를 포함한 새로운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우리의 기계공업을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대형공작기계 등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확대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나라의 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을 더욱 추진시키고 채취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바다를 정복하고 강하천을 정리하며 간석지를 개간하는 등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또한 대형기계생산과 함께 정밀기계생산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지금 있는 정밀기계생산기지들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정밀기계생산기지들을 꾸며 성능이 높은 새형의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늘어나는 기계설비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계공장들에서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

무동력직장들의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로 더 많은 공작기계를 새끼치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기술혁명수행에서나 인민경제발전의 장래전망으로 보아 전자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절실한 문제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가 널리 도입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자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소들의 생산설비들을 철저히 정비보강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대규모발전소들과 중소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특히 화력발전소들을 더 잘 관리운영하며 새로운 화력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전력생산에서 계절적파동성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전력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며 전망이 큰 광산, 탄광들을 적극 개발하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발전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공업화의 전면적인 실현은 강철생산을 훨씬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강철고지를 점령하는것은 공업화를 촉진하여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야금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야금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제철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밀고나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철강재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7개년계획에 예견된 강철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은 건재생산을 그에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금속 및 화학 건재의 생산 특히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방대한 기본건설에 요구되는 건재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화학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농업과 경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이 부문에서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무기 및 유기 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부문들을 창설하여 화학공업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면서 인민생활도 빨리 향상시키는 어려운 과업을 다같이 풀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로선이며 오늘뿐만아니라 먼 앞날까지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작성하신 가장 옳은 혁명적인 로선이다.

우리는 전후 재더미우에서도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이 로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고 그것을 더욱 튼튼히 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훨씬 높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로선을 견지함으로써만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을 힘들고 어려운 로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9페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공업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전후 10여년동안 나라의 공업화를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인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위력한 생산토대를 닦아놓았으며 과거와는 비할바없이 많은 공업제품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경제건설,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더많이 질적으로 생산할수 있으며 공업화의 과업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미 있는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생산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하나는 사상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제도는 개조되였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자본주의사상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이 낡은 사상잔재를 뽑아버리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려면 높은 기술이 요구됩니다. 선진적인 기술이 없이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의 공업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병행하여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만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그들의 높은 자각적열성을 끊임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여야 한다.

선진적인 기술이 없이는 공업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공업화자체가 기술혁명을 요구한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도 그것이 선진과학기술과 결합될 때 참다운 위력을 나타낼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과 함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기술혁명을 따라세우며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한편 경제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과 경제관리에서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 나갈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오 경 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전재공업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고 전재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전재공업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전재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7개년계획에 예견된 전재고지를 반드시 점령하고 가까운 년간에 전재생산에서 일대비약을 이룩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더 훌륭히 복무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재공업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기본건설에 물질적수단을 보장하여주는 기간적공업부문의 하나이다.

전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전재생산을 기본건설에 앞세워야만 생산적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보장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킬수 있으며 국방건설의 과업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전재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과학문화부문건설과 주택건설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기술, 문화 혁명을 추진하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기본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재생산을 건설에 앞세울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항상 이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전재의 전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와 전후건설을 예견하시고 현대적전재생산기지의 터전을 직접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정전직후 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전에 몸소 벽돌공장과 세멘트공장들을 찾으시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그 발전을 위하여 많은 국가적자금을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 현대적인 대규모건설이 방대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재공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시고 전재공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전재공업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튼튼한 기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체의 기술과 국내원료에 기초한 확고한 주체적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전재공업에 의거하여 당의 건설정책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을수 있었으며 수많은 현대적도시와 문화농촌을 건설할수 있었다.

전재공업부문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배려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건설정책의 빛나는 열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전재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켜야 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며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한 기본건설과업은 건재생산을 그에 따라세우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8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혁명과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공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대규모적인 산업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탄광, 광산들을 더 개발하고 대규모 수력 및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며 야금공업에서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건설도 하고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도 더 많이 건설하여 나라의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당은 전면적인 국토건설을 진행하여 나라의 온 강토를 사회주의사회에 적응하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려 하고있다. 우리는 풍부한 자연부원을 개발하여 효과있게 리용하며 하천정리, 도로건설, 간석지개간, 항만건설 등 대자연개조사업을 벌려야 한다. 이것은 수령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국의 풍만한 자원을 개발하여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이 땅우에 건설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력사적과업이다.

이러한 웅대한 건설은 건재생산에서 커다란 비약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적건설과 더불어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현대적도시건설과 후손만대에 넘겨줄 웅장한 기념비적건설도 더 많이 하여야 한다. 또한 해마다 농촌에 15만세대의 문화주택도 지어야 한다.

건재는 외화획득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세멘트를 비롯한 질좋은 건재를 대량 생산하여 수출한다면 귀중한 외화를 더 많이 얻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의 날로 격화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지체할수 없는 혁명과업이다. 우리는 현대전의 립체적성격에 맞게 전선과 후방, 해안과 종심할것없이 이르는곳마다에 튼튼한 방어시설물들을 축성하며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또한 조국을 통일한 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건설하며 령락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것은 건재공업을 발전시켜 질좋고 다양한 건재를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이 더 빨리 추진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게 된다는 것은 말하여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재생산을 기본건설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한 방향과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 세멘트와 금속건재, 화학건재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5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건재공업발전의 기본방침은 조성된 정세와 심화발전되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 그리고 건재공업의 현실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우리는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이미 이루어놓은 건재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건재공업을 빨리 한계단 추켜세워 날로 장성하는 건재에 대한 중앙적수요와 지방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이미 있는 건재공업기지를 정비

확장하면서 이에 새 건설을 적극 배합함으로써 건재공업의 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현실적으로 더 많이, 더 시급히 요구되는 세멘트와 대형부재, 금속건재, 화학건재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화력을 집중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멘트생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요한것은 건재공업, 특히 세멘트생산를 늘이는 문제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는 확대재생산을 위한 생산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멘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세멘트가 많으면 여러가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11페지)

세멘트는 건설에서 어느 건재보다도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건재이다.

세멘트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대규모 산업건설과 주택건설을 높은 속도로 보장할수 있으며 대자연개조사업과 국방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멘트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화물의 질을 높여 세멘트소성로의 수리회수를 줄이는것은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세멘트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미 있는 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생산공정들을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더욱 완성함으로써 소성로, 분쇄밀 등과 같은 주생산설비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소성로의 수리회수를 줄이고 장기가동을 보장할수 있도록 내화물과 설비부속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소성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는것이다.

현존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서 내화물의 질을 높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내화물의 질만 높여도 지금보다 세멘트생산능력을 20% 이상 더 높일수 있다.

내화물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순도높은 원료를 보장하며 그 수송과 보관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성형, 소성, 축조 등 모든 공정에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세멘트생산을 늘임과 동시에 그 질을 높이고 현대적건설에 필요한 새 품종들을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발전소건설용 저열세멘트, 항만건설과 간석지개간공사에 쓰이는 내해수세멘트, 대화학공업기지창설에 필요한 내산세멘트, 도로건설용세멘트 등 대상물의 특성에 맞게 쓸수 있도록 강도가 높은 여러가지 품종의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미 있는 세멘트공장들에서 설비능력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자체 동력기지를 잘 꾸리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세멘트공장들에서는 자체화력발전소의 관리운영을 잘하며 만부하를 걸어 출력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세멘트생산설비들의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7개년계획에 예견된 세멘트고지를 어김없이 점령하며 세멘트생산을 가까운 년간에 배이상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세멘트생산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일반건재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여 금속건재, 화학건재, 목질건재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금속건재와 건축설비생산을 급속히 늘이는것은 새로운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고 기본건설을 빨리 추진시키는데서나 외화획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선 주철관, 얇은 인발강관, 지붕용함석, 금속건구를 비롯하여 새로운 품종을 더 해결하며 상하수도 및 위생, 난방설비 등 현대적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생산을 급속히 증대시켜야 한다.

건재의 화학화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그것은 건재공업발전의 중요추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수지건재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은 목질건재를 절약하고 건설물을 경쾌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건재의 화학화는 부족한 건재를 각종 합성수지건재로 대신하고 새형의 건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함으로써 시공을 편리하게 하며 건설물의 문화성을 높이고 건설원가를 낮출수 있게 한다.

화학건재생산을 확대강화하는것은 결국 건재공업의 내부구조를 완비하고 그 생산능력을 높이며 나라의 기술, 문화 혁명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나라에는 염화비닐을 비롯한 여러가지 합성수지를 생산할수 있는 원료가 많으며 그의 튼튼한 공업적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우리는 수지건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주체공업인 유기합성공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납새발분수식판수용 합성수지판, 상수도수지관, 수지우수관 등 수지건재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동시에 도료, 방수제, 접착제, 메움재의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건재의 화학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목질건재생산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합판,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는 등 목재부산물을 종합적으로 쓸모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석재생산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대리석, 화강석을 비롯하여 좋은 건재가 풍부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질좋은 건재를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77폐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여러가지 석재를 건설에 널리 리용한다면 건물의 문화성과 미적가치를 더욱 높일수 있다. 또한 석재원천과 요업원료를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수많은 기념비적건설을 질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지방적건설과 대외수출을 위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석재, 요업 공장들을 원료조건과 중앙 및 지방적 수요에 맞게 잘 꾸리고 포장석, 타일, 위생자기 등 여러가지 석재와 건설용 요업제품 생산을 훨씬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벽돌생산을 홀시하는 편향을 없애고 그 생산을 계속 증대시키며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재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기본건설을 다그쳐 건재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늘이는 한편 새로운 세멘트공장을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보강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건재공장건설을 적극 배합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현시기 건재공업부문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건재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건재생산량을 급속히 장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멘트공장을 비롯한 건재공장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새로운 건재공업기지를 조성하여야 건재공업을 새로운 기술에 의거하여 더욱 현대화할수 있으며 건재에 대한 급격히 장성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최단기간내에 질량적으로 충족시키고 우리 나라 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수 있다.

우리는 현존건재공장확장공사와 새로운 건재공장건설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대세멘트공업기지를 비롯한 새로운 건재공업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에서 그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건설을 집중화, 공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건설대상의 선후차를 가려 건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건설기간을 줄이고 건설되는 차제로 부분적조업을

시작하여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건재공업부문이 급격히 장성하며 특히 건재생산기지들이 새롭게 확장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있는 로력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기능공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짜고듦으로써 그 대렬을 시급히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건재공업과 련관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건재원료와 자재를 재질규격별로 원만히 생산공급하며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 대형건재생산설비와 대형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건재공업을 더한층 높이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지방건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것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규모의 중앙건재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건재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건재생산을 급속히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동원하여 지방건재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방건재공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재생산을 확대하는것은 경제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방대한 건설과 관련하여 증대되는 건재수요를 중앙건재공업을 발전시키는것만으로는 충족시킬수 없다.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중소규모의 지방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만 건재에 대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방대한 수요를 큰 투자없이 더잘 충족시킬수 있으며 생산을 소비지에 접근시키고 수송의 긴장성도 풀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지방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것처럼 지방에 있는 로력과 자재, 유휴설비들을 동원하여 지방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지방도시와 농촌들에서 주택과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세멘트, 벽돌, 기와, 소석회, 석비레블로크, 전구 등 건재에 대한 지방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하여야 한다.

건재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원료기지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원료기지를 정비보강하여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새로운 원료기지를 전망성있게 조성하며 수입원료를 완전히 국내원료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건재공장들의 현존설비들을 최대한 리용하기 위하여 수리보수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예방보수체계를 확립하며 큰 설비들에 대한 보수를 전문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재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이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이 부문을 선진기술에 의거하여 더욱 현대화하고 급속히 증대되는 건재의 수요를 질량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다.

우리는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세우며 생산자들속에서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동하에 창의고안, 합리화 운동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건재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고 프레스화의 비중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면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건재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내원료원천의 합리적리용, 내화물의 절제고, 고속도소성법의 도입, 세멘트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 세진장치의 합리화 등 현실적으로 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건재생산을 급속히 늘임과 함께 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절약운동을 널리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한개의 못, 한장의 벽돌, 한줌의 세멘트라도 다 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07페지)

오늘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상히 커지고 살림살이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건재를 아껴쓰는것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건재를 극력 아껴써야만 기본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건재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량의 건재라도 그것이 조국과 인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것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건설물의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며 시공, 운수 부문에서 세멘트를 강도별로 보관할수 있는 뒤주식 혹은 이동식 저장고를 갖추고 배합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옳게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건설장들에 질좋은 건재가 더 충분히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 *

건재공업부문앞에 제기된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이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완성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건재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건재공업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건재공업부문내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건재공업부문에 주신 그이의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게 함으로써 그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언제나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생산행정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체계, 정연한 자재공급체계, 후방사업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의 정당성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건재공업부문내부에서와 련접부문 사이에 경제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리며 협동생산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것은 건재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위력한 담보이다. 우리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의 혁명화를 촉진하고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친 건재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기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7개년계획에 예견된 건재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짧은 시일내에 건재생산을 배이상 늘일데 대한 당의 정책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재일 조선동포들은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남 국 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항상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숭고한 동포애적방침은 수령께서 발표하신 위대한 10대정강에서 다시금 명백히 천명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서 끝없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고있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통일위업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외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모든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이며 해외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언제나 견결히 지지성원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0페지)

해외 조선동포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지난날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갖은 모욕과 학대, 무권리와 굶주림에 시달려온 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어버이수령의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의 표시이다.

해외 조선공민들이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국땅에서 오늘과 같이 드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영예를 안고 공화국정부의 보호밑에 살며 싸워나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와 세심한 보살핌의 결과이다.

해외동포들의 리익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시였고 령도하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정확히 관철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모든 해외동포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다. 바로 이러한 조국,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주권국가의 공민으로서 자기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위하여 싸워나아가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참다운 자기의 조국이 없음으로 하여 망국노의 쓰라린 생활을 겪었으며 수많은 동포들이 살길을 잃고 해외로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인민은 수천년의 력사를 통하여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오늘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은 그 모두가 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조국을 떠나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놈들의 극악무도한 략탈과 침략전쟁의 희생물로서 값싼 노예로, 징병, 징용으로 강제로 끌려갔거나 류랑하여간 사람들이며 그들의 자녀들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해외 조선동포들은 이국땅에서 오래동안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참을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박해, 무권리와 굶주림에 시달려왔다. 그들은 그 암담한 생활속에서도 항상 참다운 조국의 품을 갈망하여왔으며 조선민족의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운 비운이 가셔질 날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재일동포들은 모든 조선인민들과 더불어 당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공민으로서 번영하는 조국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하여 꿋꿋이 살아왔다.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전체 조선인민의 이 민족적숙망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강토우에 민족적비운이 서리고 우리 민족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그 암담하던 시기에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강도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민족적해방을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된 이 땅우에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시고 민족적번영의 시대를 마련하시였으며 지난날 이국땅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동포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과 략탈로 말미암아 이국땅에 류랑한 동포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그들이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떳떳한 공민으로 생활하여나갈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대책을 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진정한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체인 총련을 무어주시고 모든 재일동포들이 공화국의 떳떳한 공민으로서 자기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심으로써 해외동포들에게 공화국 공민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높은 영예까지 지니게 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에게 귀국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파란많은 이국살이에서 벗어나 공화국의 품에 안겨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1959년 12월부터 시작된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통하여 이미 8만 8천여명의 동포들이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조국에 돌아온 동포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육친적인 배려밑에 평생을 두고 념원하던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고있으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있는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해외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념려하시여 전후 나라의 살림형편이 아직 어려웠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심으로써 이국땅에서도 우리의 민족교육이 활짝 꽃피게 하시였다. 수령께서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31회에 걸쳐 무려 79억 6천 722만 9천여원(일본돈으로)의 막대

한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동포들이 사는 일본땅 가는곳마다에는 현대적교육설비를 갖춘 정규학교들과 각종 학교들이 꾸며져 재일 조선청소년들이 슬기로운 우리 말과 글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구현한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과학적인 민족교육을 받고있으며 조국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사회주의조국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60만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60만 재일동포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그에 복종시키고 있다.

총련의 지도밑에 오늘 재일동포들속에서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로작과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이 꾸준히 전개되고있다. 그들속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보고,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의 력사적보고를 심오히 연구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기풍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일을 앞두고 진개된 《100일간 혁신운동》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과 교시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열의가 더욱 높아졌고 총련의 애국과업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기간에 적지않은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50번이상, 80번이상, 나아가서는 100번이상 읽었고 모든 재일동포들이 수령의 로작들과 교시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그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인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의 력사적보고를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은 또한 조선혁명과 우리 당의 뿌리인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를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그들은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분회, 학교, 사업체 등 동포들이 있는 모든 곳에 《김일성원수연구실》을 꾸며놓고 수령의 혁명투쟁력사를 일상적으로 학습하고있다. 이리하여 그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생활하는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 그리고 조국과 수령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하려는 혁명적결의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재일동포들속에서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모범분회창조운동은 그들을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총련의 애국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오늘 총련의 분회를 비롯하여 청년, 녀성, 교원,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신용조합일군 등 각 계층에서 모범창조운동에 참가하고있는 집단의 수는 실로 1,800여개에 달한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가르치심에 끝까지 충성하는것, 이것은 오늘 재일 조선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60만 재일 조선동포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뭉쳐 총련의 지

도밑에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적 박해와 멸시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으며 자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투쟁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79페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 조선동포들의 투쟁은 그들의 사활적인 요구를 실현하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영예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정부의 《한국국적》 및 《영주권신청》 강요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영예로운 공화국공민권을 고수하고있으며 일본반동당국의 인권침해, 《출입국관리령》 개악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기본인권과 거주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은 단합된 힘으로 《외국인학교제도법안》을 립법화하려고 날뛰는 일본반동정부의 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대학을 비롯한 많은 조선학교들의 법적인가를 획득하였다.

또한 재일동포들은 생활권과 기업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으며 일본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조선공민들의 신용조합을 크게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은 일본반동정부의 일방적인 귀국사업파괴책동을 준렬히 폭로규탄하면서 귀국사업의 즉시 재개를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오늘 재일 조선동포들속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귀국사업재개요청운동은 일본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영예로운 민족적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애국력량을 굳게 결속하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므로 남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더불어 60만 재일 조선동포들이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것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총련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광범한 재일동포대중속에 널리 해설침투하는 한편 민족단합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모든 애국력량을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오늘 재일동포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민족분렬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준렬히 규탄하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고있다.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은 일본 각지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재판》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고 김종태를 비롯한 애국자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놈들의 전쟁도발책동과 파쑈적폭압을 폭로규탄하고 애국자들을 지지하는 군중집회, 가두선전, 서명 등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리고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총련의 48개 지방본부들에서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열렬한 애국자이며 남조선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장이였던 최영도동지를 추모하는 재일동포들의 추모회가 엄숙히 진행되였다.

이 모든것은 오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이 얼마나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이와 함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수령의 교시를 받들고 자기앞에 나선 애국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일본의 광범한 민주력량과 세계선량한 인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광범한 민주력량과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친선단결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총련의 국제적지위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생활권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재일동포들을 항상 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결실이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일본반동들의 온갖 박해와 암해책동이 날로 강화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재일 조선동포들은 자기들의 모든 투쟁을 조선혁명의 리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적투쟁으로 발전시킬수 있었다.

* *

오늘 재일 조선동포들이 힘차게 벌리고있는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일본의 광범한 민주력량과 선량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으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정책과 민족분렬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와 그의 충실한 앞잡이 일본사또반동도당들은 재일 조선동포들의 이 정당한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각종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다쓰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재일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도의적인 책임을 지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반동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재일 조선공민들의 정당한 민족적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일본반동정부의 이러한 책동은 외국공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적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공인된 국제법의 규범과 인도주의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일본사또반동도당들은 재일 조선동포들의 기본적인 민주적권리인 공화국공민권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려고 책동하며 귀국사업을 파괴하고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의 길을 가로막고있다. 놈들은 또한 총련일군들을 함부로 체포구금하고 각종 모략사건을 날조하는 등 암해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간의 범죄적인 《한일조약》체결후 더욱 로골화되고있으며 최근에 와서 그것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사또반동도당의 이러한 악랄한 책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서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며 박정희괴뢰도당과의 정치,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날로 강화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탄압과 박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재일 조선동포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는 더욱더 위협당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사또도당들은 그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결코 재일 조선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은 조국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일본의 광범한 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60만 재일 조선동포들은 일본반동세력의 온갖 박해와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다.

근로자 제 5 호 (루계 327)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5월 10일 발 행 • 1969년 5월 15일

ㄱ—93141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근로자사 1969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 (328)

차 례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의 력사적교훈을 망각하고 함부로 덤벼든다면 더욱 큰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여온 미제침략자들은 저들이 처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다시 조선에서 모험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열아홉해전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며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6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흉악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전선에 제놈들의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들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을 동원하였으며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야수적인 전쟁방법과 전쟁수단들을 다 적용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기와 기술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우리의 도시와 마을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참히 파괴하였으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주민들을 쏘아죽이고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여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쟁기간에 감행한 살륙만행은 실로 도죠나 히틀러 도당을 릉가하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전쟁방법과 야수적인 살인만행으로써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생사판가리싸움에 나선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으며 더러운 침략적야망을 실현할수 없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일떠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분쇄하고 조국의 독립과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탁월한 령군술과 전술로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군사전략의 약점과 기도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독창적인 전법으로 인민군대의 작전과 전투를 령활하게 지휘하심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을 력사적인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은 3년동안의 조

선전쟁기간에 2차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당한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를 잃었다. 전쟁기간 놈들은 실로 39만 7,0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9만 3,000여명의 유생력량을 살상포로당하였고 1만 2,000여대의 비행기와 550여척의 군함, 3,000여대의 전차를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재를 잃고 마침내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것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9폐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코대가 꺾이였으며 놈들의《강대성》에 대한 신화가 산산이 짓부서졌다.

조선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며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자들도 비참한 참패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전쟁을 확대하여 제3차대전을 일으키려던 미제의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진영을 보위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세계민족해방운동과 반제반미투쟁의 발전에 새로운 력사적전환을 열어놓았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정치적참패를 당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아물리지 못한채 세계혁명적인민들에 의하여 련속적인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조선전쟁이후 반미투쟁의 불길은 세계도처에서 계속 세차게 일어났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가는 곳마다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얻어맞고있다.

영웅적웰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전쟁에서 련속적인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병신이 되고있다. 웰남전쟁에서 미제의 종국적인 패배는 이미 명백한것으로 되고있다.

꾸바인민은 미제의 계속되는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서반구의 사회주의초소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영향력을 미치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미제는 특히 남조선에서 날로 확대되는 인민들의 거세찬 반미구국투쟁에 부딪쳐 허덕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극도로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놈들의 저주로운 식민지통치를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웰남, 꾸바에서뿐만아니라 세계도처에서 혁명적인민들에 의하여 호되게 얻어맞아 녹아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미제의 숨통은 더욱더 끊어져가고있다.

날로 확대되고있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에 의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동맹국》들에서 더욱더 고립되고있으며 제놈들의 소굴에서도 엄중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다.

오늘 안팎에서 얻어맞아 멸망의 내리막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는 미제는 새로운 침략과 모험적인 전쟁정책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소동을 벌리고있다. 멸망의 운명에 처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써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

고 날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7페지)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소동은 지난해 1월에 있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하여 더욱 강화되였으며 악명높은 호전광이며 살인귀인 닉슨이란놈이 미제의 괴수로 들어앉은후 더욱 격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괴뢰군병력을 더욱 증강하고 각종 신형무기와 전쟁물자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면서 《전시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각종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며 실전준비를 갖추고있다. 지난 3월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미제침략자들은 《악어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대해상침투훈련》, 동서남해상에서의 대공사격 및 대잠사격훈련, 《포커스 레티너》작전이라고 하는 《한미합동기동훈련》 등 전면전쟁도발을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벌리였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습격과 총포사격 등 적대적도발행동을 날이 갈수록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지난 4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미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하여 감행한 도발행동은 우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2,180여건에 달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벌릴 때마다 우리의 단호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에 지난 4월에는 현대적정탐장비를 갖춘 대형간첩비행기를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공에 깊이 침입시켜 적대적정탐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또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사건을 빚어냈다.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는 지난해 우리의 령해깊이 침입하여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사로잡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던것처럼 이번에도 오만무례하게 우리의 신성한 령공을 침범한 미제대형간첩비행기를 단방에 쏴떨굼으로써 적들에게 다시한번 호된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자위적립장을 과시하였다.

조선인민군용사들이 우리의 령공을 불법침범한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에 대하여 단호한 반격을 가하는 자위적조치를 취한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조선인민의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간첩비행기가 《공해상공》에서 《합법적인 정찰활동에 종사》하다가 격추당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엄연한 사실을 거부하며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생억지를 쓰고있다. 이것은 미제날강도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해에 제놈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당시에도 이 간첩선이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공해》에서 나포당하였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것을 구실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벌려왔다.

놈들은 우리 인민의 준엄한 경고와 모든 론박할수 없는 물질적증거앞에서 더는 어쩔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되여서야 저들의 범죄행위를 자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앞에 사죄하였다.

지난 4월에 있은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의 우리 나라 령공침범사건은 작년

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놈들의 계획적책동의 한고리로서 결코 그 어떤 우발적인것이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적죄행을 가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간첩비행기의 정찰활동이 저들의 그 어떤 응당한 권리인것처럼 떠들면서 우리 인민의 자위적조치를 오히려 《침략행위》라고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도적놈의 강도적론리이다.

남의 나라 령공에 함부로 침범하여 적대행동을 감행하는 침략자에 대하여 징벌하는것은 매개 자주독립국가의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며 국제법상의 공인된 자주권의 행사이다.

현대적장비를 갖춘 대형간첩비행기가 결코 유람을 위하여 미국본토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우리 나라 령공을 떠돌아다닌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새 전쟁도발준비를 위하여 놈들이 우리 나라 후방에 대한 정탐을 감행할 목적으로 불법침입시킨것이다.

남의 나라의 신성한 령공을 함부로 침범하여 강도적인 적대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것은 침략에 이골이 난 미제국주의자들이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날강도적수법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간첩비행기사건을 계기로 지금 새 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전쟁미치광이 닉슨의 호전적인 명령에 따라 미제침략자들은 전함과 항공모함들을 비롯하여 숱한 함선들로써 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우리 나라 주변에 긴급히 집결시켰으며 그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연에 부대들을 더 증강하며 《초특별대기태세》에 들어가는 등 엄중한 전쟁소동을 벌리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밀뿌리채 뒤흔들리고있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얼마나 부모하게 날뛰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미제의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긴장상태는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위험성이 조성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전쟁도발소동과 위협으로써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입니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10페지)

우리 인민은 그 누구를 먼저 다치려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모욕하며 건드리는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인민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침략자들을 끝까지 물리치고야 말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벌리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표한 성명은 미제침략자들의 그 어떤 침략행위도 단호히 분쇄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할것을 굳게 다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결의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보다 비할바 없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언제 어

더로 쳐들어와도 일격에 쳐부실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기세충천하게 도도히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진두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일성동지는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구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유격전쟁과 현대전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등 모든 혁명투쟁을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여오신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우리에게는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이 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사회주의조국을 가지고 있다.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과 강력한 사회주의조국을 가진 우리 인민은 불패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혁명적 로선이 힘있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현대전쟁이 요구하는 각종 전투기술기재들과 전시물자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이 그 어떤 형태로 덤벼들어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강력한 현대적국방력을 가지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우리의 영웅적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강철의 혁명군대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다.

남조선의 혁명력량도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도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정책은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놈들의 침략정책이 없었더라면 조선인민은 지금과 같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지 않을것이며 우리 나라의 정세는 오늘과 같이 긴장되지 않았을것이다.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야 한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벌리고있는 광란적인 새 전쟁 소동은 놈들의 취약성을 보여줄뿐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발악하며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매달리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더욱 큰 참패를 당할것이며 영영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원쑤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분쇄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1페지)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어떤 원쑤도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할것이며 우리는 적들의 그 어떤 악랄한 침공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수령이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원쑤격멸의 성전에 서슴없이 떨쳐나서서 침략자들을 맞받아 판가리싸움을 할수 있는 혁명적각오와 사상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긴장된 투쟁을 벌려 미제의 침략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소한 안일과 해이성도 허용하지 말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 튼튼히 서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높이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원쑤격멸의 혁명적기세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초를 아껴가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두몫, 세몫이상 넘쳐수행할 때 나라의 경제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조국통일의 물질적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최대의 혁명적경각성과 긴장성을 높여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놈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폭로분쇄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초소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대렬내에 한놈의 간첩과 파괴암해분자도 기여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은 더욱더 강력해질것이며 우리는 원쑤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제때에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지금 전체 인민들은 원쑤격멸의 기세로 충만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도 날로 강화되고있다.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현실을 똑똑히 보지 않고 계속 무력을 끌어들여 새로운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은 천백배의 섬멸적타격을 가할것이며 놈들을 우리 조국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100여년의 피맺힌 원한을 풀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멸적의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조국해방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과 조선혁명에서의 주체확립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력사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시작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계시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앞을 멀리 내다보시는 위대한 수령으로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로서 조국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에서 이룩하신 성과에 토대하시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은 그 이전시기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모든 약점을 완전히 가신,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최고봉을 이룬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본질적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혁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처음으로 제기하신 새로운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현시대의 모든 나라 혁명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현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갈수 있다. 또한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갈수 있다. 따라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매개 나라는 자기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으며 국제혁명발전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다.

주체확립은 심각한 사상투쟁과 심오한 리론활동, 그리고 복잡한 혁명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온갖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로부터의 사상해방을 달성하며 대국주의, 민족리기주의를 견결히 반대배격하지 않고서는 주체를 확립할수 없다.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을 창조하며 그것을 옹호관철하여나아가는 동시에 주체적인 힘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주체확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우리 혁명에서 주체확립의 이 어려운 력사적과제는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이 해결하실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며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였다.

혁명투쟁로정은 그이께서 우리 혁명의 유일하게 정당한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혁명운동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확립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시는 력사적로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상에서 어느 한 계급도 그가 자기 계급의 투쟁을 조직하며 그 계급을 령도할수 있는 자기의 선진적대표들, 수령들을 내세우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하였던것입니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의 우수한 령도자를 가져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혁명운동에서 현명한 수령의 령도문제는 그 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계급의 선각자이며 령도자이다. 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우수한 령도자, 현명한 수령을 내세우지 못하면 그가 당을 창건하고 대중에게 사회발전법칙의 지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을 줄수 없으며 혁명운동의 강령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인 략전술을 제시하고 혁명실천의 전과을 정확히 령도할수 없다. 그러므로 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로동계과 근로대중은 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현명한 수령의 령도문제는 특히 혁명의 주체를 확립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독자적두뇌를 가지고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인 신념과 판단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일단결된 혁명대오를 가져야 한다.

주체확립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요구의 해결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로동계급의 수령들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인민대중에게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끕니다.》

현명한 수령은 당, 계급 및 대중의 조직된 의사를 체현하고있는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혁명운동은 바로 그러한 혁명의 뇌수에 의하여 움직인다. 또한 수령은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의 작성자이다. 수령은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의 중심이며 정치적력량의 심장이다. 이 모든것으로 하여 현명한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주체를 확립할수 없다.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며 특히 혁명의 주체를 세우는데서 현명한 수령의 령도적역할이 결정적이라는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긴 첫날부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를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여왔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은 일찌기 현명한 령도자,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곧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오래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결국 일제의 류혈적탄압에 의하여 실패를 당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는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처음부터 주체를 세워야 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고있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문제로 된것은 대국주의의 영향과 그와 결합된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였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먹힌것도 대국주의자들에게 아부추종한 봉건통치배들—사대주의자들의 당파싸움과 외세의존정책때문이였으며 1930년대이전시기 우리 나

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크게 망친것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 때문이였다.

주체를 튼튼히 확립하고 이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의 해독적작용을 철저히 극복해야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완전한 식민지인 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전개된 력사상 첫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혁명에서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였으며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 절박한 혁명적요구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현명한 수령의 령도가 없었기때문에 오래동안 풀리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조선혁명은 오직 현명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그 이전시기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들을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하게 확립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령도는 인민대중의 의식성과 조직성을 높이고 그들을 위대한 혁명투쟁에로 거세차게 불러일으킨 결정적인 힘이였으며 혁명의 온갖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들을 이겨내고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끈 근본요인이였다.

우리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혁명투쟁에 나서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선 시기의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심중히 총화검토하신 기초우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우리 혁명의 불패의 지도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마침내 소유하게 된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과 결합시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혁명리론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근본초석을 이루는것은 현시대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우리 혁명의 이러한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은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확립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시기는 그이께서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비판적으로 총화하시고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우리 혁명의 지도리론을 확립하신 빛나는 력사적시기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항일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으신 중요한 력사적시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뿐만아니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로씨야에서의 10월혁명의 승리와 그이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발전에서는 세계혁명이 매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각이한 력사적조건에서 불균등적으로 발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나라들이 점차 많아지고 그들간의 국제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가 형성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계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간의 호상관계문제, 매개 나라 혁명의 민족적 및 력사적 특성과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성격간의 호상관계문제, 세계혁명운동의 매 민족부대들간의 호상관계문제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무엇보다 먼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을 통하여 국제혁명운동발전에 이바지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주체사상은 국제혁명운동발전이 제기하는 이 모든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

인 해답을 주는 세계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우리 혁명은 현시대의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가장 올바른 길을 개척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기본문제, 로선문제를 하나 하나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면서 조선혁명의 강령과 전략전술을 작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1930년 여름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 앞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무르익혀오시던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무장투쟁로선, 통일전선로선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방침들을 밝히시고 그 생활력과 정당성을 항일무장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증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시고 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1936년 5월에는 자신께서 전개하신 초기지하혁명투쟁과 1930년대 전반기 항일무장투쟁을 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위대한 강령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집대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창립선언 및 규약을 발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작성제시하신 조선혁명의 강령과 전략전술로선들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적이며 독창성과 창조성,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조선의 현실을 연구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한다.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속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0페지)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시기부터 우리 혁명의 로선과 정책작성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기본원칙이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사회경제적관계에 토대한 계급력량관계를 반영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어느것이나 그대로 들어맞을수는 없었다. 우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의 성격규정에서 력사는 빠리콤뮨을 제외한다면 로씨야의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밖에는 다른 본보기를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력량배치계획에 있어서도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혹은 빈농)의 동맹이외의 경험을 알고있지 못하였다. 정권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로동계급에게만 의거하고있던 콤뮨형태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빈농)과의 동맹에 의거하는 쏘베트형태만이 전형적인 표본으로 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이 창조한 이러한 전례에는 구애됨이 없이 항상 맑스-레닌주의원리와 우리 나라 현실에 튼튼히 의거하시여 독창적인 립장을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로선으로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회정치적기초로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 학생청년을 비롯하여 광범한 반일력량을 총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로선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치적력량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혁명에서 수립되는 정권은 반드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수행의 기본방침문제에서도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을뿐만아니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당시까지 력사는 아직 로동계급의 정권전취의 기본방도로서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

한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대중정치투쟁을 배합하는 투쟁방도를 알지 못하고있었다. 다만 전인민적무장폭동형식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서의 유격투쟁형식을 인정하고있었을 따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인민무력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어느 나라 군사교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탁월한 유격전술을 창조하시였다.

당건설문제에 있어서도 당시까지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는데 앞서 당이 창건되며 그것은 또한 대중의 혁명적앙양에 선행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구체적사정에서는 그러한 력사적경험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될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하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창건은 그를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그리고 충분히 갖춘데 기초하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명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사업은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결합시켜 동시적으로 추진시키는것을 기본방침으로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독창적인 반제공동전선로선을 내놓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초기부터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있는 린접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민족주의세력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일력량과의 공동투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쓰심으로써 당시 국제적으로 대두한 파시즘과 침략전쟁의 위협에 대처하는 세계반제공동전선형성의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로선과 방침수립에서 구현하는 산모범이였다.

혁명에서 주체적인 지도리론, 혁명로선을 확립하는것은 그 혁명의 주체가 튼튼히 설수 있는 사상리론적기초가 마련되고 주체적인 행동방향이 서는것으로 된다. 이러한 기초를 고수하고 주체적인 행동로선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는 혁명대오내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체가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보장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적인 지도적지침으로 혁명투쟁을 전개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만일 당내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거나 사상의지와 행동상 강철같은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러한 당에는 중앙집권적규률이 없고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여 종파와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도대체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옳게 지도할수 없다.

혁명에서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혁명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가 철저히 보장되며 따라서 주체가 튼튼히 서게 되는것이다. 자기의 수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초보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조국해방투쟁은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함으로써 주체를 세워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빛나는 혁명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세상에서 류례드문 그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에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광복의 영광스러운 사변을 맞이할수 있은것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신조로 하여 그이의 주위에 칠석같이 뭉쳐 일편단심 투쟁하였기때문이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세워진 유일사상체계의 확고성의 중요한 담보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이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유일한 최고뇌수이시며, 조선인민과 조선민족의 무궁무진하고 혁명적인 모든 정력과 창조력을 하나로 묶어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낳게 하는 유일한 심장이시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꿋꿋하게 키워주시고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시라는 신념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확고부동한 것이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였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을 진실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여 투쟁하였으며 어느때 어떤 정황에서도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혁명대오내에 수립된 유일사상체계는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좌우경기회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온갖 반맑스주의적, 반혁명적 사상과의 원칙적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때나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주견과 자주정신, 그리고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립장을 가져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매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배우고 그 원리의 진수를 파악할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배운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당면한 우리의 혁명정세에 적합하게 적용할줄 아는 방법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의 혁명수행에서 확고한 신심을 가질수 없으며 옳은 로선을 선택할수도 없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주체사상과 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한편 그와 어긋나는 온갖 기회주의사상과 비타협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하시였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끼치였다. 이자들은 이웃 나라의 로선을 우리 나라 혁명의 당면한 성격과 임무도 고려함이 없이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혁명을 좌경모험주의의 길로 이끌려고 책동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사상리론적으로 분쇄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로선을 고수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들을 조종하는 대국배타주의자들과도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대국주의자들은 계급적립장을 미난 반맑스주의적이며 민족리기주의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 혁명의 리익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란폭하게 유린말살하여나섬으로써 우리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특히 엄중한 사태는 조중인민을 서로 리간시키며 조선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일제의 음흉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민생단》투쟁행정에서 조성되였다. 대국배타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은 이 투쟁을 극좌적으로 끌고나가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서로 대치시키고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에 발을 맞추며 그들의 침략책동을 도와주는 대국배타주의자들과 그 추종분자들의 책동의 반혁명적본질을 철저히 폭로하시면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주체를 세우고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민족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응당한 혁명임무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당당한 국제적분공이라는것을 론리정연

하게 밝히시였다. 그 이후 시기에도 민족리기주의를 추구하는 대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앞에는 여러차례 난국이 조성되였으나 그때마다 김일성동지의 헌신적이고 단호한 립장과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혁명은 위기에서 구원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국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위하여 동지간의 원칙적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그를 위하여 그이께서는 혁명투쟁과 생활에서 동지호상간에 믿고 사랑하며 동지를 아끼는 혁명적의리, 동지를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어려운 고비에서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두터운 전투적우의, 동지의 사소한 결함과 오유에 대하여도 서로 용화묵과하지 않고 제때에 비판하고 시정시켜주는 원칙적단결—이러한 공산주의적동지애와 고상한 혁명적의리를 발양하도록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원들을 항상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정력적활동과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력사적인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였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로선이 구현될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되였다.

이렇듯 우리 혁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자체의 주체적인 령도사상, 지도리론을 수립하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대오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은 그것을 토대로 자기의 주체적힘을 키워나가게 되였다.

2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로정은 그이께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적력량을 준비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이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전개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는 력사적로정이였다.

우리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은 오직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직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됨으로써 비로소 꾸려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하려고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이 투쟁과정에서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늘였으며 이것을 밑천으로 하여 해방후에는 당을 조직하고 우리 나라 혁명을 옳게 지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90페지)

혁명에서 주체적인 로선이 선 다음에는 그것을 구현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혁명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주체적인 혁명력량의 준비여하에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이 강해야 반혁명을 때려부실수 있고 반혁명을 때려부셔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객관적법칙이다.

1920년대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튼튼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꾸리지 못한것이였다. 현명한 수령의 맑스-레닌주의적령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자, 농민이 조직사상적으로 꾸려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각계각층 군중이 조직된 력량으로 광범하게 혁명에 인입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운동은 튼튼한 핵심력량도 광범한 대중적지반도 없는 무력한것으로 되였다.

1920년대 운동이 그러한 취약성을 면치 못한것은 사대주의자들, 종파주의자들의 죄행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었다.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는데 습관된 사대주의자들, 남에게 잘 보이고 어느 누구의 《승인》을 받고 혁명을 하려던 행세식맑스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꾸려질수 없었다.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여는 철저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원칙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때나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이며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자체의 힘이라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계시였다. 그이께서는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다고 항상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사상은 식민지인민들은 종주국의 혁명에 의거함으로써만 민족해방을 달성할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종주국혁명을 돕는것을 그들의 선차적임무로 인정하던 종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략사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이였다.

이 사상은 또한 적극적인 전략사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은 적극적인 투쟁이 없이 저절로 꾸려질수 없으며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올것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혁명력량을 축적할수도 없고 조성된 난국을 타개할수도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주체적력량을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려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사상은 그이의 초기 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실천에 옮겨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꾸리기 위한 활동을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전개하여나아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를 옳게 파악한 기초우에서 무장투쟁을 대중의 정치, 경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혁명의 대중적기반을 닦았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5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력량을 준비하고 확대하는 방침을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초기 혁명활동을 통하여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키우시고 혁명투쟁의 군중적지반을 닦으신데 토대하여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대중정치투쟁과 결합시켜 힘있게 조직전개하시였다. 이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자대오가 크게 늘어났으며 로동자, 농민들이 각종 혁명조직에 결속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밀접히 결합시키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각종 혁명투쟁이 적극화되고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은 더욱 확대강화되였으며 통일전선조직망은 전국적규모로 확대되였다. 또한 로동자, 농민 대중은 조직화되고 혁명화되였다.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우리 혁명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들이 자라나고 로동자, 농민 대중의 조직적결속과 혁명화가 이루어졌으며 조선혁명의 강력한 무장력인 항일유격대가 건설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가 튼튼히 꾸려진것이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새세대들로 되는 세련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이 꾸려지고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이 형성된것은 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지난날 간고한 항일빨찌산투쟁과정에서 자라난 령도핵심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된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령도핵심들이 있었기때문에 자기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두리에 굳게 뭉칠수 있었으며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용감히 뚫고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지도핵심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닦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활동과 투쟁행정에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밑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기

초를 닦으시는 투쟁과 함께 공산주의자들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으로 무장시키며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체득시키는 교양사업과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통하여 당창건의 사상적기초를 닦으시였으며 로동자, 농민들에 대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심으로써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주력군편성에서 또한 혁명무력의 건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계급과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이였으며 조선혁명전반을 이끌어나아가는 주도적인 정치군사적력량이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발전의 강력한 담보였다.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또하나는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에 기초한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혁명의 주력부대를 강력히 지원할 튼튼한 후비군을 꾸린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초시기부터 전개하여오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반적으로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앙양시키며 조선혁명의 군중적기반을 튼튼히 축성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36년 5월 5일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 조국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동원집결하는데서와 항일유격대를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다.

혁명의 주체적력량준비에서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거점—조선혁명의 기지를 꾸린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이든지 자체의 튼튼한 력량, 자기의 믿음직한 근거지가 없이는 승리를 달성할수 없는것입니다.》(《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24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혁명근거지문제를 무장투쟁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지로, 혁명력량축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요인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혁명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설되였던 두만강연안의 혁명근거지와 백두산혁명근거지는 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거점, 후방기지로서뿐만아니라 우리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은 전반적혁명발전의 책원지—조선혁명의 강력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근거지들에 의거하시여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시였으며 혁명력량을 보존확대하는 과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 혁명근거지들은 1930년대에 있어서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발원지로, 기지로 되였다.

혁명의 주체적력량준비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의 기본요인의 하나는 김일성동지께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제시하시고 그것을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철저히 관철하신데 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계급적관점을 확고히 세우며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혁명의 계급로선의 기본요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기초하시여 인민의 리익, 군중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알고 견결히 옹호하며 한사람이라도 더많은 군중을 쟁취하여 혁명의 편에 서게 하며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할데 대한 우리 혁명의 군중로선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키시였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속에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시고 새로운 인민적사업작풍과 방법을 창조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

밖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 우리 혁명의 주체적힘을 육성단련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혁명운동사상 처음으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혁명의 주력군이 편성되였으며,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구축되였다. 또한 혁명의 기지가 꾸려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였다.

우리 혁명의 튼튼한 주체적력량의 축적은 우리 혁명의 전반적발전과 우리 혁명의 주체확립력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이것으로써 우리 혁명은 자주적발전과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보다 튼튼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확고부동한 기반우에 올려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페지)

《…혁명의 매시기 우리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고 혁명의 지조를 굳게 지키면서 꿋꿋이 전진할수 있은것도 주로는 우리 당과 국가 그리고 우리의 인민무력이 항일빨찌산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고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련속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적령도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튼튼히 꾸려졌기때문입니다.》

혁명전통은 혁명발전에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귀중한 재부이며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다. 혁명은 본래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기때문에 그것이 꿋꿋하게 발전하고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자면 반드시 깊고 억센 뿌리를 가져야 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을 발전시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는 재부인것으로 하여 그 혁명의 주체를 확고하게 하는 뿌리로 되며 혁명에서 주체를 꿋꿋하게 세워나갈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된다.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서만 창조될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오직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조국해방투쟁시기,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비로소 창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초기혁명활동과 영웅적항일무장투쟁, 조선혁명에 대한 그이의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적령도,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없이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이룩될수 없었으며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는 뿌리도 내려질수 없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전통은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혁명전통이며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은 빛나는 혁명전통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전통이 가장 위대하신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의 력사적로정,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투쟁경험과 업적의 총체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국해방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실로 세상에서 보기드문 가장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이겨낸 피어린 투쟁이였으며 장기적인 혁명투쟁이였다. 또한 이 혁명투쟁은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당창건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한 폭넓은 혁명투쟁이였다. 려

우기 이 투쟁은 완전한 식민지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한 혁명투쟁이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혁명투쟁, 바로 이러한 간고하고 폭넓은, 전인미답의 혁명투쟁행정에서 구현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원칙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불멸의 투쟁 경험과 업적을 집대성한 혁명전통이다. 그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전통은 가장 심오하고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진 혁명전통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영원불멸의 혁명전통이다.

우리의 혁명전통이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것은 그것이 우리 혁명위업을 종국적승리에로 확고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것으로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 지도사상인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체현하고있으며 혁명운동발전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들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혁명전통은 또한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며 세계의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귀감으로 되는것이다. 이 위력한 무기, 이 튼튼한 뿌리를 가졌기때문에 우리 혁명은 불패의것으로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하고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조선인민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 이 억센 주체의 뿌리가 있었음으로 하여 해방직후 그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로선을 따라 지체없이 당과 인민정권을 세울수 있었으며 인민무력을 창건하고 세계제국주의두목인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또한 이 튼튼한 뿌리가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재더미를 헤치고 단시일내에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짧은 시일내에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모르는,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를 가진 선진적인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혁명기지로, 보루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이렇듯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주체가 영생할수 있는 깊고도 억센 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튼튼한 터전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력사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력사이며 그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항일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킨 력사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고 그이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력사이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튼튼한 주체적력량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한 력사이다. 그리하여 그이의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력사는 우리 혁명에서 주체를 확립한 력사이며 세계혁명력사에서 새 기원, 주체시대의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그 위대한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주

체의 조국, 천리마의 조선에 대하여, 오늘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상상할수 없다.

오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에서뿐만아니라 세계의 혁명하는 인민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투쟁의 기치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시여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발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계신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돌려지는 전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근저에는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기여하시는 그이의 이 위대한 공헌과 업적이 놓여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40여년간의 승리적인 투쟁과 현실을 통하여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할때 어떤 풍파와 어려운 시련도, 어떤 원쑤도 두려울것이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하고있다.

오늘 전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앞에는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완전승리를 달성하며 더 나아가서 전세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임무가 놓여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혁명을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야 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당의 정책과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의 혁명적립장을 지킬수 있으며 혁명투쟁을 계속 견결히 전개할수 있습니다. 당정책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수정주의도 교조주의도 사대주의도 절대로 달라붙을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2페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완수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그의 초석을 이루는 주체사상, 그이의 교시와 우리 당 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의 빛나는 구현인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확고하게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그 뿌리인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켜 더욱 빛내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

리 중 필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40여년간의 혁명활동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과정을 리론적으로 총화하신 기초우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문제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문제는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립각하시여 처음으로 명백히 밝히신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문제를 이미 여러 로작들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특히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이 문제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다시금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집대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한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을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에 혁명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 귀중한 공헌으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계급투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전반적문제와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원칙에서 옳게 풀어나가야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며 온갖 낡은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철저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있는 우리의 형편에서는 적들의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문제들이 날카로운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진행되며 우리의 일상적인 실천활동이 계급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우리는 계급투쟁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세워진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과업을 처음으로 정확히 분석하시고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급투쟁은 계속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1페지) 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계급투쟁을 단순히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청산하는 투쟁과만 결부시키면서 착취계급이 전복되면 동시에 그들의 반항도 없어지고 계급투쟁도 끝난다고 보는 수정주의저립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의 준동이 의연히 남아있게 되는 과도기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이 시기에도 그들과의 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준 것이다.

이 가르치심은 동시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건설의 계급적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과 과거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들과 낡은 유습들을 반대하기 위한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밝혀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투쟁에 대한 이와 같은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그 정확한 수행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을 반대하며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반동사상과 그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표현됩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이것을 반대하는 투쟁도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의 하나의 표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중요대상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즉 그 하나는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 기본적으로 두가지 형식의 계급투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형식의 계급투쟁은 다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착취계급의 요소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이기는 하지만 투쟁목적에서나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수행방도에서는 완전히 구별된다. 또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 진행되는 계급투쟁은 사회주의혁명을 진행하던 때의 계급투쟁과도 구별된다. 계급투쟁의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조건하에서는 계급투쟁의 구체적인 대상이 달라진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하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회계급적관계가 여기에 반영되는것이다.

우선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사회주의에 적대되는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으로서 진압의 대상이 계급적원쑤라는 측면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과 일정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착취계급은 이미 계급으로서 청산되었고 그들의 경제적지반도 없어져버렸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다만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파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이들의 준동을 진압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된다. 이 적대적요소들은 정권이 로동계급의 손에 쥐여진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그 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다. 이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부터의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는 조건하에서 자기들의 파괴활동을 마음대로 감행하지는 못하며 항상 은밀한 방법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적대적요소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계속되지만 그것은 이미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청산할 때의 투쟁과는 일정하게 구별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적대적요소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이 종래의 계급투쟁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하에서도 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 적대요소들이 그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그 앞잡이로 되고있기때문에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고 침략하는데서 직접적인 무력간섭을 하는 한편, 사회주의나라안에 남아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들을 긁어모아가지고 그들을 사촉하여 사회주의국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꾀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1~4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그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여나서게 되는것은 첫째로 이들의 계급적본성과 관련되여있다. 이들은 지난날 남을 착취하여 잘살던 때의 처지를 항상 잊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을 되찾아보려고 어느때든지 기회만 있으면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해나서는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이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기대를 걸고있으며 그들로부터 지지와 사촉을 받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계급으로서 청산된 후에도 인민에 대한 착취자적지위를 되찾으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착취계급이 계급으로서 청산되였다는 측면만 보고 그 잔여분자들이 준동할수 있는 위험성을 보지 않거나 그들과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이 아직 전국적범위에서 승리하지 못한 조건에서 내외원쑤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더욱 날카로운 문제로 나선다.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특히 전쟁의 복잡한 틈을 리용하여 이러저러한 형태로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전복된 지주, 자본가계급 잔여분자들은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에게 기대를 걸고 자나깨나 우리 당과 인민을 반대할 틈만 노리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전복된 지주, 자본가계급 잔여분자들에 대한 엄격한 독재를 실시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되고있는 이들의 파괴활동을 제때에 소탕해버려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후에도 계속되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는 계급투쟁의 이러한 형식과 함께 또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의 전부가 아니며 계급투쟁의 전반적형식을 다 포함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51페지)

이 가르치심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 적대분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중요대상이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봉건적,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

잔재이며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자본주의사상독소라고 규정하시면서 이것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상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이며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이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고 규정하시였다.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물론 로동계급은 주권을 전취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 걸쳐서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진행하였다. 맑스주의는 사상투쟁이 로동계급과 그 당이 진행하는 계급투쟁의 한 형식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기이전시기에 있어서는 로동계급이 우선 착취계급을 전복하고 주권을 전취하는것이 근본문제로 되였던것만큼 사상투쟁은 주권을 위한 정치투쟁에 복종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생활자체가 끊임없이 부르죠아사상을 낳는것만큼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이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부르죠아사상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문제로까지는 제기될수 없었고 주로 근로대중에 대한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을 방지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보급하며 그 영향하에 대중을 묶어세우는것이 문제로 되였다.

로동계급이 부르죠아정권을 전복하고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다음에 사상투쟁의 과업은 일층 심화된다. 이때에는 로동계급의 사상이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잔재와 봉건사상잔재를 청산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새 사회건설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일층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직 적대사상을 낳는 경제적지반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상교양사업이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혁명과업으로는 제기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세워진 다음에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적대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지반을 없애버릴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사람들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한 사상혁명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부르죠아적 및 봉건적 사상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며 이미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은 종전의 사상투쟁과도 구별되며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도 구별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낡은 계급사회대신에 새로운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되였지마는 사회를 움직여나가는 사람들의 사상은 아직 공산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낡은 사상잔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들을 모두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미 이룩한 사회주의전취물을 공고히 할수도 없으며 빨리 앞으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0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된 근로자들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되며 착취계급이 전복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은 낡은 사상잔재라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은 바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버리고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복무하는것이다.

사상혁명은 특히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일층 강화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관건적고리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이 노는 이와 같은 역할은 우리 사회의 사회관계가 착취사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며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사회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르죠아정권을 전복하고 자기 손에 주권을 전취하는것이 근본문제로 되였던것만큼 이때에는 모든 힘을 다하여 착취계급을 청산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앞에 나선 첫째가는 임무였고 그것이 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으로 되였다.

그러나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나서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이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담보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킨다면 생산을 비상히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지어진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피로써 전취한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는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이 중심적인 과업으로 나서며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계속 줄기차게 끌고나가야 할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계급투쟁은 그 수행방도에 있어서도 종래의 계급투쟁과 완전히 구별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투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1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에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목적과 수행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이 가르치심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계급투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상혁명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들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많이 쟁취하여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계급투쟁의 이러한 목적은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과 수단을 요구한다.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청산하는 투쟁에서는 그들의 존재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것만큼 혁명적폭력이 불가피하며 그것이 계급투쟁의 기본수단으로 복무한다.

그러나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는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우리 사회에서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사상혁명은 바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내부문제로서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과정인것만큼 그것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수행방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해명은 국가활동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가장 정확하게 결합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이 량자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좌우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엄중한 우경적오유를 범하는 것으로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 그때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며 결국에는 혁명력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기 위한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게 되고 당과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마비되며 사회생활에서 부르죠아지의 부식작용이 강화될수 있다.

좌경적편향이나 우경적편향은 다같이 계급투쟁을 옳게 진행할수 없게 하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해

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수행에** 대한 **무한히 높은 책임감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통찰하심으로써 혁명**실천을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문제를 처음으로 명백히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실천적문제들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핵심을 이룬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착취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필연성과 적대계급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그 역할에 관한 일반적리론을 창시하였고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이 력사적사명의 완수를 위한 계급투쟁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계급투쟁에 관한 과학적리론의 토대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축성되였다.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리론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일층 발전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단계에 들어선 새로운 **조건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맑스주의계급투쟁리론을 가일층 발전시켰다. 특히 레닌은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전취한 후 치렬한 계급투쟁이 진행된다는것을 밝히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하기 위한 시기의 계급투쟁의 형태와 방법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오늘날의 력사적환경과는 현저하게 다른 조건에서 활동하였던것만큼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의 계급투쟁의 **형태, 특히는 그** 기본형식에 관한 문제를 밝**힐수 없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내외원쑤들의 반항을 철저히 진압함과 함께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내놓을수 없었다.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조적발전과 전면적완성을 절박한 실천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준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를 일층 풍부히 하고 완성시킨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치렬한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정확히 규정하시였을뿐만아니라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계급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할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는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고수하고 그 기능을 일층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의 계급투쟁의 필연성을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정확히 규정하시고 적대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였다.

실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해명은 우리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끈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을뿐아니라 현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

활동이 제기한 초미의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위대한 리론적공적으로 된다.

* · *

계급투쟁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리론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 우리 나라에서 복잡하고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계급투쟁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왔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정확한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소수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을 적극 교양개조하여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시종일관한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이 어려운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당은 또한 나라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자 지체없이 전면적인 공산주의교양문제를 내세우고 이미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전사회,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강철의 대오로 묶어졌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하에 날을 따라 륭성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우리의 계급투쟁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낡은 사상잔재와 낡은 사회의 유습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내부에는 적대분자들이 의연히 남아있다.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청산하는 과업도 전국적범위에서는 완수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하고 있으며 우리 내부에 파괴분자들을 끊임없이 들여보내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내외원쑤들의 음모활동을 제때에 분쇄해버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성을 요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은 우리의 일상적인 정치투쟁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당 조직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전군중적투쟁으로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18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적경각성을 일층 높여 그들이 어느때, 어디에서나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것을 제때에 폭로분쇄해버리도록 하며, 당의 계급로선에 철저히 서서 투쟁대상과 단결하여야 할 대상을 옳게 가려내고 한줌도 못되는 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동시에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사람들을 설복하고 쟁취하며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사업을 옳게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일층 강화하여 계급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고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전체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리론과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실천활동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대렬의 통일단결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촉진시킬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독창적리론

허 재 억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천명하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은 아직까지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사회주의경제리론의 근본문제에 천재적해답을 준 독창적리론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사회주의정치경제학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고전적리론이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고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여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의 실현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경제건설실천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천재적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이 중대한 문제에 맑스-레닌주의력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 대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혁명적경제리론을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실천하는것은 오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스러운 혁명적의무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는 객관적합법칙성을 처음으로 발견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경제리론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결정적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으며 전진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생활력을 발휘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발전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내는데서 출발점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서만, 끊임없는 상승과 앙양의 한길을 걷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서만 이 사회가 열어놓는 생산장성의 무제한한 가능성을 옳게 볼수 있으며 또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필연성을 인식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그 발전과정을 가장 정확히 통찰하시고 사회주의사회에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매우 높은 속도로 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작아지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것을 처음으로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사회주의제도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조건지어진다는것을 밝힌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가 그 본성으로부터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발전에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그것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생산발전에 어떻게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필연성을 체계정연하게 론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에서 더욱더 큰 힘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우와 같은 책, 2페지)

이것은 자본주의적확대재생산과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사이의 근본적차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한 과학적인 결론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계획적지도가 가지고있는 거대한 우월성을 밝힌 탁월한 징식화이다.

재생산과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경제제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약육강식의 경쟁과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주기적인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재생산과정이 중단되고 막대한 사회적로동이 랑비된다. 따라서 생산이 전진과 퇴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는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재생산의 전과정을 과학적인 계획화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고도로 조직화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중단함이 없이 높일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사회주의가 열어놓는 생산장성의 이러한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과 계획적지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를 더 잘 인식하고 인민경제의 계획화를 더욱더 일원화, 세부화할수 있고 경제를 더 한층 째이게 할수

있다. 그것은 특히 확대재생산의 경제법칙인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발전법칙의 요구를 더욱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위하여 필수적인 생산수단생산의 우선적장성을 소비재생산의 동시적발전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균형과 인민경제부문 내부의 균형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의 계획적지도의 강화가 축적의 규모를 끊임없이 장성시키고 그 합리적리용을 보장함으로써 확대재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위한 물질적조건을 계속 훌륭히 마련하여줄수 있게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사회주의하에서 축적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는 원천은 국민소득의 체계적인 빠른 장성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국민소득이 빨리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축적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으며 또한 축적에 돌려지는 자금을 생산건설과 비생산건설,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가장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그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국가는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계획적지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우월성을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과정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심오히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확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심으로써 경제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늘어나게 할수 있는 다른 또하나의 요인을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3페지)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발전의 합법칙성과 그리고 기술발전, 로동생산능률장성 및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천명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을 밝혀주고있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기술발전이 더욱더 억제되지만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사회적세력이 없고 기술발전문제가 전국가적, 전인민적 관심사로 되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기술발전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할수 있으며 새기술을 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로동생산능률의 급속한 제고에 더 큰 작용을 미치게 할수

있다. 이리하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장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을 가져오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보장할수 있게 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생산이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장성될수 있는 이상과 같은 요인들과 함께 특히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가장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발전의 기본추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위대한 고전적명제이다. 이것은 생산과정에서 노는 근로자들의 역할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에서 분석한 기초우에서 정식화한 천재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은 생산력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요소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로동생산능률제고와 생산력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상한 사상에 의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동원되게 할수 있다. 이것은 인류력사에서 그 어떤 사회경제제도도 가질수 없었던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기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에 아무런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의 결과가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지게 되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생산과 기술 발전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발전을 위한 이 중요한 추동력이 바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의 역할에 의하여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3~4페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는것은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의 본능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혁명적세계관과 계급의식에 배치되는 낡은 사상과 언제나 타협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없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는 자기 존재의 전기간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의식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개조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린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이 본능적역할을 강화하는 조건에서는 사회주의사회가 전진하면 할수록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는 더욱더 적어지게 마련이다. 근로자들이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면 할수록 그들의 적극성과 창의창발성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계획화사업을 비롯한 경제관리의 모든 분야와 로동조직, 생산조직 사업에

서 더욱 큰 개선을 이룩할수 있고 기술발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

실로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의 역할에 의하여 더욱더 앙양되는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빠른 장성을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김일성동지의 독창적리론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빨리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발전과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증산예비가 점점 더 많아지며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게 되는 객관적근거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남김없이 확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명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복구기가 끝나고 기술적개건기에 들어섰던 5개년계획기간과 전면적기술혁명이 힘차게 추진되고 경제규모가 몇배로 커진 7개년계획기간에도 생산이 계속 높은 속도로 장성한것은 생산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계속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 론박할수 없는 력사적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경험이 류례없이 복잡한 정세속에서, 중첩되는 난국을 이겨내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창조되였다는 사실이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을 확증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풍부한 업적과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낳게 하는 주객관적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 생산장성의 모든 가능성을 가장 훌륭히 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높이 발양하기 위한 정치사업에 가장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합시키시여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아직 나라의 살림살이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대내외 원쑤들이 악랄하게 준동하던 5개년계획의 첫시기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날수 있었으며 미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심하여지고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과업들이 수많이 나선 7개년계획기간에도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가 계속 앙양될수 있었다.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실적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언제나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열어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빠른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리론적분석과 생동한 력사적사실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을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시였

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하여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리들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분석하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와 같은 책, 8페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 기술의 끊임없는 개조를 위한 기술혁명,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벌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만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발전의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그리고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모든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모든 문제는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확고히 견지하고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현실로 될수 있다.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만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인 계획화에 기초하여 고도로 조직화하고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만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놓은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앙양시키고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그 발전전망, 사회주의사회에서 작용하는 생산발전의 객관적요인의 역할과 함께 주관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의 본질적특성을 깊이 분석하시고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필연성과 그 실현조건을 체계정연하게 정식화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전면적으로 확증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방도를 가르쳐 주시였다.

⁂ ⁂

김일성동지에 의한 사회주의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의 창조,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의 발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실천과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발전에 대한 위대한 기여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광활한 전망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자기의 혁명위업을 최대한으로 추진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주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빨리 장성하는 객관적합법칙성을 인식

하고 옳게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활동에서 근본문제로 된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의 경제건설에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자기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사활적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발전의 속도문제가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는 리론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여있지 못하였다.

물론 이때까지도 사회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보다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다는것이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장성속도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매우 높은것으로 특징지어진다는데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명되여있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이러한 매우 높은 생산장성속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수 있는 요인들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지 못하였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의 생산발전속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이 제기하고 해명할수 없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문제가 실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속도에 대한 완성된 리론을 창시할수 없었다. 생산의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도 생산발전의 높은 속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합법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최근년간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는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하여 혁명과 건설의 다른 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의 이 근본문제에 대하여서도 많은 기회주의적《리론》을 퍼뜨리고있었으며 또한 실천에 적지않은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맑스-레닌주의적립장에서 리탈한 우경기회주의자들은 《자유화》니, 《민주주의적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하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내였으며 또한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경제가 끊임없이 균형적으로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부인하는데까지 굴러떨어졌다.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날카롭게 나서고있던, 사회주의경제의 규모와 속도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비로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사회주의적생산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며 그것이 복구기나 경제의 규모가 작을 때뿐만아니라 기술적개건기나 경제의 규모가 훨씬 커진 조건에서도 일관하게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처음으로 밝힌 김일성동지의 경제리론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확고한 과학적기초를 마련하여준것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제기한 귀중한 사상들을 더욱 발전시키시고 완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쏘베트정권에다 온 나라의 전기화를 가하면 공산주의라는 레닌의 명제를 철저한 주체사상과 확고한 혁명적립장에서 심오히 해석하시고 풍부화하신것은 선행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사상을 고수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아가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 맑스-레닌주

의고전가들이 제기한 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을뿐아니라 현시대가 새롭게 제기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규모와 생산장성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의 창조, 특히는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합법칙성의 발견, 생산발전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노는 결정적역할에 대한 천재적정식화 등은 맑스-레닌주의의경제리론발전에 일대 전환을 일으킨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중심문제로 되는 속도문제에 관한 체계정연한 리론을 창조하심으로써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새롭게 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리론은 경제분야에서의 좌우경기회주의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예비가 적어지고 경제발전속도가 떨어진다는 기회주의리론이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데서 나왔으며 그 론거들이 근본적으로 허황한것이라는것을 남김없이 증시하시였다. 정연하고도 심오한 론리와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사실로써 그 정당성을 확증하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경제리론은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주장이 리론적으로 부당할뿐아니라 실천적으로 철저히 반동적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그를 결정적으로 거세해 버릴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리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실천에 대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우리 인민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제기된 절박한 요구에 탁월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이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천재적으로 창조된데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일편단심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우리는 경제발전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물질적담보를 한층 더 튼튼히 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천재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리론을 깊이 학습하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모든 분야에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관리운영을 더욱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경제관리분야에서의 좌우경기회주의리론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세워진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장성의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우리 인민경제의 천리마적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께서 새롭게 내놓으신 혁명적경제리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아갈 때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위대한 사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명철하게 해명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이며 불후의 과학적로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천재적인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와 함께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기본문제의 하나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실천적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어떤 립장에 서서,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는가 하는것과 직접 관련된 원칙적문제이며 이때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완전히 해명되지 못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며 그 해결을 더는 지체할수 없는 긴절하고도 날카로운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에 제기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 특히 정치경제학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경제분야에서 좌우경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위력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의 필연성과 특성 그리고 전망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히심으로써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정확한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상품화폐관계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는 리론적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게 되는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있게 되는것도 역시 사회적분업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가 있다는것으로 설명되여야 할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업이 있을뿐만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있으며 소유관계를 보더라도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과도기초에 있었던 여러가지 경제형태가 점차 하나의 사회주의적경제형태로 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국경이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대외무역을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 조건입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2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의 필연성을 밝힌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상품의 본질과 상품생산의 유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상품이란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하여 만든 물건이다. 다시 말하여 모든 생산물이 다 상품으

로 되는것이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이 상품이다.

상품의 이러한 본질은 상품생산의 필연성을 규정하는 사회경제적조건을 반영하고있다. 상품생산이 진행되려면 서로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사회적분업이 있어야 하고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분화되여있어야 한다.

사회적분업은 상품생산의 필연성을 규정한다. 그런데 사회적분업은 소유관계의 분화와 련결되여있는 한에서만 상품생산의 일반적조건으로 된다.

소유관계의 분화는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 결정적조건이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분화되여있는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소유자들간의 상품교환은 필연적인것으로 되며 따라서 상품생산이 있게 된다.

상품생산은 사회적분업이 있고 그것이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와 련결되여있었던 모든 사회제도에 존재하였으며, 그 성격은 매개 사회제도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사회적분업이 있을뿐만아니라 더욱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분화와 련결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또한 로동에 의한 분배와 개인부업경리에 기초하고있는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가 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이와 같이 분화되여있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소유간에 거래되는 생산수단과 소비품은 상품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국경이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대외무역을 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생산물은 상품으로 되며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은 객관적요구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있게 되는 조건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의 성격을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리용합니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자본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적소유에 토대하여 있게 되는 상품생산은 그 범위가 소비품과 생산수단의 일부에 국한된다.

상품생산이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사회생산물의 일부만이 상품으로 되는 조건에서 그것은 자본주의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은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상품생산의 법칙으로서의 가치법칙은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에 복종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가치법칙은 생산의 조절자로 되지 못하며 국가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리용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에 대하여 명철하게 해답을 주시고 그 전망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과도기가 끝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제로 넘어가서 하나의 소유형태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의 사회생산물은 대외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이 아니라 그저 생산수단, 소비품이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법칙의 작용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1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에는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작용이 없어지게 되는 시기와 조건이 명철하게 밝혀져 있다.

상품생산은 사회적분업이 있는 조건에서 소유관계의 분화에 의하여 발생발전한것만큼 소유의 분화가 없어지면 그것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가지 형태가 하나의 전인민적소유로 되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가서 대외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생

산도 가치법칙의 작용도 없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의 필연성과 그 성격, 전망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힌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리해하고 상품화폐관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해 나아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명하시고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그 생산 및 류통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상품일수도 있고 상품이 아닐수도 있으며 따라서 상품인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이고 어떤 경우에 상품이 아닌가 하는것도 역시 소유의 분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위치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품이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상품입니다.》(우와 같은 책, 13～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상품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을 가르치시고 상품으로 되는 경우와 상품으로 되지 않는 경우를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규정하는 척도는 교환을 통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여지는가 바뀌여지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교환을 통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면 상품이고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면 상품이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분화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에, 협동적소유호상간에 그리고 국가들 호상간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며 국가소유의 기업소들 호상간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라는것을 리론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협동생산에 기초하여 생산하고있고 비록 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옮겨지더라도 사회주의국가는 여전히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그러한 생산수단은 자유매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공급되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책, 14～1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는것을 천명하시고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가소유의 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은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며 자유로이 매매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소유내부에서 류통되는 생산수단이 교환을 통한 소유권의 이전과 자유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상품의 기본적인 징표를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을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수단의 생산 및 교환에서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다만 경제계산의 도구로 리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치경제학리론을 창시한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명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이 아닌 생산수단이 상품적형태를 가지게 되는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과 같이 서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책, 15~16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기업소들은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소에서 넘겨받은 생산수단을 국가의 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소단위로 채산을 맞추고 생산활동정형을 평가하며 회계를 따지게 한다.

기업소들의 경영상 독자성에 기초한 독립채산제의 실시는 국영기업소들간의 경제적관계를 겉으로 보기에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간의 관계처럼 설정하게 하며 따라서 그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은 마치도 다른 소유에 넘겨주는 생산수단과 같이 상품인듯한 인상을 주게 된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적형태를 가진다는것은 이러한 생산수단의 거래가 겉으로 보기에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상품적관계와 비슷한 경제관계를 반영하며 또한 상품과 류사한 교환형식을 취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생산수단이 거래될 때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지만 리용 및 관리권의 변동을 가져옴으로써 생산수단의 거래가 상품관계와 비슷한 경제적관계를 반영한다.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은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사회적필요로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을 받고 넘겨주는 교환형식을 통하여 거래된다. 그리하여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생산수단은 상품과 같은 형식을 가지게 된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는만큼 그것은 가치를 가질수 없고 다만 가치형태만을 가지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로동의 체현인 동시에 중요하게는 상품생산자들간의 사회적관계이다. 국영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은 같은 국가소유이기때문에 이러한 사회적관계를 가질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지만 사회적로동의 결과이며 따라서 사회적로동을 체현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수단에 지출된 개별적로동은 사회적필요로동으로 평가되며 화폐형태로 반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만을 가지게 된다.

국영기업소들간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가지게 되는것은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은 상품이 아닌 그러면서도 상품적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제적현상이다.

가치법칙의 본질적요구는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사회적필요로동에 기초하여 진행되도록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가치법칙은 개별적상품의 값이 사회적필요로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상품교환이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진행될것을 요구한다.

상품적형태를 가지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의 이러한 요구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기때문이다.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한다는것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작용할 객관적기초가 없는데도 생산수단의 값이 사회적필요로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정해지며 생산수단의 거래가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진행되는것과 같은 경제적현상들이 나타나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현상은 상품생산과 류통의 객관적필연성인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생산과 류통의 과학적관리와 합리적조직의 객관적요구이다.

생산수단의 생산에서 그 값을 사회적필요로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정하는것은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별적기업소의 로동지출과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을 대비하는것은 생산수단의 생산에서 각종 지출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국영기업소들간의 생산수단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등가보상의 원칙은 생산수단의 계획적공급을 원만히 실현하며 공급되는 생산수단을 합리적으로,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리용되는것이다.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경제적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제범주를 창시한 탁월한 경제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왜 국영부문안에서 기업소들에 경영상 독자성을 부여하며 그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닌데도 등가성의 원칙에서 엄격한 계산에 따라 그것을 주고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것이 사회주의하에서 비록 다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긴 하지만 그들사이의 거래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할것을 요구합니다.》(우와 같은 책, 16～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영기업소들에 경영상 독자성을 부여하며 그들사이의 거래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진행하게 되는 근거를 전혀 새롭게 밝히시였다.

수요에 의한 분배를 진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에 의한 분배를 실시하게 된다. 근로자들은 기업소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 로동의 량에 해당하는 분배몫을 받게 된다. 매 근로자들은 기업소를 단위로 하여 사회적생산에 참가하며 그들의 로동결과는 기업소의 생산계획수행에 반영되며 따라서 로동에 의한 분배의 몫은 매 생산자들이 국가의 생산계획수행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의 결과를 우선 매개 기업소별로 평가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생산수단을 애호관리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문제는 국가재산의 관리및 리용에 대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관심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이렇게 하자면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애호관리하는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가재산의 리용 및 관리가 기업소의 사업성과와 결부되도록 하며 그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이 아직 생활상 제1차적요구로 되지 못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우선 근로자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일하도록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개별적일군들의 로동지출을 계산하

고 지출된 로동의 량과 매 사람이 받는 로력보수를 정확히 대비하여야 하며 그들의 로동결과를 기업소의 생산성과를 옳게 규정한 기초우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국영기업소들에 경리운영상 독자성을 부여하며 생산수단을 주고받을 때에 엄격한 계산을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작용에 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생산 및 그 류통에서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수단의 생산과 그 류통분야에서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소의 수익성과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리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17~1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생산수단의 생산 및 그 류통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이 가지는 의의를 밝힌것으로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히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은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생산수단의 계획적생산과 계획적공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히 리용할것을 천명한 철저하게 맑스-레닌주의적인 경제사상이다. 이 사상은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에 대하여 계획화가 규정적의의를 가진다는 원칙적립장에 기초하고있다.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에 대하여 계획화가 규정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은 생산수단의 생산 및 류통 계획의 수립이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에 선행되고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이 계획적생산과 계획적공급을 원만히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이 계획적절차에 의하여 규제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계획적생산 및 계획적공급에서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경제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먼저 생산수단생산분야에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여 엄격한 계산제도와 원료, 자재, 로력의 리용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생산수단생산분야에서의 가치형태의 리용,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의 내용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생산에 대한 각종 지출을 가치형태를 리용하여 계산하며 지출과 수입의 대비적계산도 가치형태의 도움밑에 진행한다. 이러한 계산제도를 강화하는것은 기업소일군들로 하여금 타산을 바로하게 하며 기업소의 경영활동정형을 정확히 분석하게 함으로써 생산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나아갈수 있게 한다.

원료, 자재, 로력 등 생산자원의 리용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는 기업소활동을 특징짓는 중요한 화폐지표인 원가, 수익성을 통하여 원료, 자재, 로력의 합리적리용결과를 따지며 기업소에 대한 자금공급이 생산자원의 합리적리용에 의하여 보장되는 생산계획수행정도에 의존되게 하며 원료, 자재를 받으면 제때에 대금결제를 진행하게 하는것이다. 원에 의한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생산자원의 리용정형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자극을 주며 생산수단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며 물자공급계약에 따라 생산수단들을 정확히 주고받으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현물지표와 함께 가치지표를 리용하여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제정하는것은

값눅은 대용자재를 리용하며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도록 자극함으로써 생산수단의 절약적리용을 촉진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수단의 류통분야에서 상업적형태의 리용,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재, 원료의 공급계획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것은 계획에서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것은 필요없는것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가서 걸려야 하겠습니까? 상사에 가서 걸려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상사를 거쳐 자재, 원료를 팔고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충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자재, 원료의 공급에서 상사들의 역할을 높이고 상품류통의 형태를 충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재를 너무 많이 사오면 다른 자재를 사들수 없고 또 자재를 랑비하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상업적형태의 리용은 국영기업소들사이에 진행되는 생산수단의 거래에서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팔고사는 형식을 리용함으로써 기자재공급계획의 부족점들을 보충하는것이며 생산수단의 절약적리용을 촉진하는것이다.

상사를 통하여 원료, 자재를 팔고사게 하는것은 우에서 아래에 내려다수는 계획적공급과 상품류통의 형식을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소의 자재, 원료 형편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해당 기업소에 절실하고 필요한것을 팔아줄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 기업소는 기자재공급계획에 아무리 예견한것이라 하더라도 사고파는 형식을 취하는것만큼 필요없는 자재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지 않게 된다.

상업적형태를 통하여 공급되는 원료, 자재에 대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것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류동자금기준액범위내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를 알맞춤하게 받기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팔고사는 형식을 리용하여 원료, 자재의 값을 기업소가 자체의 수입으로 치르게 하는것은 기업소일군들로 하여금 자재의 값을 정확히 따지게 하며 수송비를 정확히 계산하게 함으로써 자재, 원료를 절약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이 생산수단의 생산 및 그 류통분야에서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생산과 그 류통령역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상품가격을 옳게 정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제정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것이다.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법칙으로서 상품의 가격이 사회적가치에 의하여 규정될것을 요구한다.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자면 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상품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제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문제이다. 이 문제는 생산발전과 인민생활향상,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 등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격제정에서 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과학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가격제정에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타산하는것은 가치법칙이 기

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된다는데 근거하고있는 동시에 가격설정이 그 경제적내용에 있어서 기본경제법칙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는 사정과 관련되고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은 높은 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킴으로써 부단히 장성하는 전체사회의 수요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킬것을 요구한다.

가격제정은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미친다. 가격의 옳은 제정은 생산과 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생산물에 대한 사회적수요의 충족, 인민생활의 향상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가격을 정하는데서는 가치법칙의 요구 하나만을 타산할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가격제정에서 가치법칙의 요구를 타산하는것은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이라는 객관적기준에 기초하여 정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들어있는 사회적필요로동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가격호상간의 균형을 유지할수 없고 사회주의적분배를 옳게 할수 없으며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1폐지)

상품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정하는것은 가격호상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가격을 정하는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들에 대하여서는 각이한 사회적필요로동에 의하여 가격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각이한 종류의 제품들의 가격균형을 보장할수 있게 하며 같은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사회적필요로동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게 함으로써 가격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분배를 옳게 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적분배를 옳게 진행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이 로동에 따라 받은 동일한 액수의 화폐수입으로는 어디에서나 같은 량의 소비품을 살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이것은 동일한 소비품에 대하여서는 전국가적으로 가격의 유일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으로 되는 가격의 유일성은 개별적로동을 체현하고있는 개별적가치가 아니라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을 반영하는 사회적가치에 기초하여 가격을 정함으로써만 보장될수 있다.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가격을 정하는것은 이와 함께 사회의 생산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개별적가치가 아니라 사회적가치에 기초하여 가격을 제정하게 되면 사회적인 평균가치이상으로 생산물을 내는 기업소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며 사회적인 가치이하로 생산물을 내는 기업소는 생산비를 더 낮추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생산비를 끊임없이 낮추기 위한 투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조직을 개선하여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보다 적은 생산비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게 한다. 결국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가격을 잘 정하는것은 생산자원의 절약적리용을 자극하고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의 가격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대중소비품에 대하여서는 그 값을 눅게 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격을 정할 때 대중소비품의 값을 눅게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상품의 가격은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배리시킬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면서 대중소비품의 값을 낮추 정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2폐지)

《그러나 반대로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아직 그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물건들은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대중소비품보다 값을 높이 정하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23~24폐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소비

품에 대한 가격제정에서의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이 원칙은 소비품의 생산과 류통에서 가치법칙을 가장 옳게 리용할데 대한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고루게 먹이고 입히며 다같이 잘 살게 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에 완전히 맞는것이다. 대중소비품의 값은 눅게,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그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상품의 값을 대중소비품보다 높게 정하는것은 가치법칙을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서 계획적으로 리용하게 하며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원만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대중소비품의 값을 눅게 설정하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기가 번 화폐소득으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비품을 구입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서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소비품공급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객관적요구와 사회주의분배관계의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아직 그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값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수요를 조절함으로써 소비품의 공급사업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생산과 그 류통령역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기 위한 원칙적방도의 하나로서 가격을 일원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리론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의 가격을 옳게 정하기 위하여서는 가격을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지구계획위원회를 내오고 계획화사업을 일원화한것처럼 지구가격위원회를 내오고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격제정을 일원화하며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가격제정위원회와 같은 경제기관들이 가격제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4페지)

가격제정의 일원화는 계획을 일원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사상이 가격제정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된것으로서 가치법칙을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정확히 리용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가격의 일원화는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에 엄격히 기초하여 제정하게 함으로써 가격의 균형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가격제정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가격의 유일성을 보장함으로써 가격제정에서 주관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며 국민소득의 분배와 재분배를 정확히 진행하여 사회적재생산과정을 순조로이 진행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리용문제에 대하여 완벽하게 해명하심으로써 상품화폐관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완성하시였다.

상품화폐관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명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그 창조성과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과대평가하여가지고 경제를 자본주의적으로 관리하거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로부터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없게 하는 좌우경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화폐관계문제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사상과 독창적인 리론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정치경제학연구실

김일성동지의 연설《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근로단체 사업발전에서의 강령적지침

손 사 근

우리 당과 국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지도하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인민정권을 창건하시고 지도하심과 함께 근로단체들을 몸소 조직하시고 혁명의 매 단계마다 근로단체들의 성격과 임무, 활동 방향과 방도 등을 천재적으로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당의 외곽단체이며 인전대들인 근로단체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승리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었으며 커다란 승리와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1964년 6월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9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는 근로단체건설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또다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들은 변천된 새로운 조건에 맞게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근로단체들의 활동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 실천적 무기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모든 로작들과 함께 이 강령적교시들을 계속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며 거기에 담겨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적요구들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있어서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농업근로자동맹조직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농업근로자동맹이 수행해야 할 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이 선진적인 로동계급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직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농민들을 다 일정한 조직에 들게 하고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기술문화교양사업을 강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내세운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의 조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농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26~12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농민들을 다 일정한 조직에 망라하고 그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기술문화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농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근로자들은 혁명적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해야만 자기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고 혁명화과정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더잘 복무할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을 이루며 로동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들을 혁명적조직에 망라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이후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혁명적조직을 내오는것은 현실발전의 필수적요구로, 혁명과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모든 농민들이 이미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사회주의근로자로 전변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농민들은 빈농이 중심이 되여 지주, 부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직이였던 농민동맹과 같은 조직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아직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로동계급의 조직인 직업동맹에서 함께 생활할수도 없었다.

새로운 현실은 당과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들을 련결하는 새로운 인전대의 조직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천재적으로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농업근로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제때에 조직하여주심으로써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한 농업근로자동맹의 조직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며 로동계급과 함께 모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모든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배려의 뚜렷한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인전대문제를 정확히 해결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철석같이 꾸리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부단히 개선완성하여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근로단체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풍부화하고 발전시키는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농업근로자동맹이 수행해야 할 과업과 그 구체적방도들을 명백히 가르쳐주심으로써 농업근로자동맹으로 하여금 조직된 첫날부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신심에 넘쳐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업근로자동맹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이 진척되여가는데 따라 점차 로동자화하여가는 사회주의적농촌근로자들의 조직으로서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적농촌건설강령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과 방도를 명시하고있다.

농업근로자동맹앞에는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과 같이 앞으로도 농민들속에서 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이미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농업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하루속히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게 하며 우리의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이 빛나게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교시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서와 동맹조직의 건설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인 가르치심은 농업근로자동맹의 조직과 활동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모든 성과의 결정적담보이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수령께서 주신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동맹조직을 더잘 꾸리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자기앞에 부과된 임무를 더잘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똑똑히 밝히시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상응하게 직업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입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을 묶어세운 근로단체이며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입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동맹조직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2～133페지)

직업동맹은 로동계급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의 혁명위업실천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당의 강력한 인전대이며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우리의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고 당의 혁명위업실천에 적극 조직동원시키려면 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높은 계급의식과 공산주의사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직업동맹이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 됨이 없이는 당의 인전대이며 방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한때 일부 일군들이 직업동맹조직들의 임무와 역할을 똑똑히 깨닫지 못한 결과 직맹사업에서는 부분적인 결함들이 남아있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밝혀준 김일성동지

의 이 교시는 직업동맹사업에 내재한 이러한 결함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직업동맹단체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차지한 자기의 위치에 부합되게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동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혁명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었다.

직업동맹단체들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교양의 학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임으로써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생산을 보장하는것이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로동보호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직맹조직들은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로동자들이 생산투쟁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34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은 나라의 주인이며 공장의 주인이다. 따라서 로동자들의 본신임무는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물질적부를 더많이 생산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공장주를 반대하며 생산을 태공하는 투쟁에로 로동자들을 조직동원하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직맹과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은 국가가 내세운 생산과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직업동맹조직들은 로동자들속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모든 로동자들이 높은 창의창발성과 자각적열성을 내여 증산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함으로써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해야 할것이다.

직맹조직들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보호사업도 자신의 본신사업으로 인정하고 정확히 조직진행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직맹조직들앞에 제기된 과업에 대하여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며 문화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37페지)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문화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선결조건이며 중요한 담보로 된다. 특히 로동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는 전사회의 혁명화과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더욱 높여 그를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만 전사회에 대한 그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할수 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자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해야 한다.

직맹조직들은 이와 함께 로동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가도록 해야 할것이다.

직업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나라 직맹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직맹조직들이 언제나 튼튼히 의거해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과학적해명은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시킴으로써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그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창조적사상의 구현이다.

직맹조직들은 수령의 강령적교시를 더잘 관철함으로써 당과 로동계급을 련결하는 인전대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주신 강령적교시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이며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인민대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복숭아가 잘 크고 맛있게 익어야 안에 있는 씨가 잘 보호되고 실속있게 여무는것처럼 근로단체들이 일을 잘하여야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당을 힘있는 당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당의 외곽단체인 근로단체들의 역할은 이처럼 큰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로동계급의 당과 그 인전대들의 호상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풍부화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근로단체들에 대한 그이의 두터운 신임과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만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광범한 근로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근로단체들의 기본사명이다. 근로단체들이 자기의 이 력사적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이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활동하며 당에서 새 로선을 내놓으면 제때에 접수하여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모든 맹원들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당의 로선과 방침에 따라 자립적활동을 강화하는것은 근로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일차적인 과업이다.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 사업은 높은 창조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근로단체들의 자립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일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선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해답들이 주어져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일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방침과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단체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근로단체들의 자립성을 일층 높여 그의 사명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가일층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현시기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함께 세계혁명을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특히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하루도 미룰수 없는 우리 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이러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보다 튼튼히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을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과 교시들에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수령의 교시들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여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의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정력적으로 조직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열렬한 혁명가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려면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전면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란 곧 사상교양을 하는 과정이며 사상투쟁을 하는 과정이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혁명화할수도 없으며 혁명을 계속하여 나갈수도 없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사회를 혁명화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있어서 근본문제로 된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밑에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며 수령을 튼튼히 보위하고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자본주의사상, 봉건적유교사상 등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모든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집단과 로동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등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가적기풍을 배양하는 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근로단체들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구체적실천과 결부시켜 짜고들어 진행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근로단체들앞에 나서는 과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를 실천하기 위한 형식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혁명사상을 넣어주기 위하여서는 책을 읽게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을 가지는 방법,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으며 강연회, 학습회, 담화를 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이러한 교양방법은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교양방법이며 대중교양의 혁명적내용에 상응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능동적인 교양방법이다. 이러한 교양방법은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되였다.

모든 근로단체일군들이 이러한 전통적교양방법의 본질과 그 위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훌륭히 구현하여나갈 때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는 보다 큰 성과들이 이룩될것이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이러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리고 그가 대상하는 군중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해야 한다.

모든 근로단체들은 자기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야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더욱더 앙양시켜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은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핵심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근로단체대오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들의 부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근로단체건설과 그 활동으로부터 개별적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시적인 당적지도를 줌으로써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이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해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근로단체들의 전진도상에는 오직 찬란한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모든 근로단체들이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명백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확신성있게 나아가며 활동의 전과정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근로단체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용감히 투쟁하여나감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전력공업발전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키자

한 국 승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심장으로 받든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영웅적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이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계속 견지하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전력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며 그것을 극력 절약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력공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력공업을 반드시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전기를 쓰지 않는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철도 전기로 생산하며 특히 화학공장 같은것은 거의 대부분 전기로 움직이고있습니다. 평화시기나 전시나를 막론하고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전력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소들을 더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전력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으로서 공업과 농업,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속도를 끊임없이 높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우리의 농촌을 살기좋은 문화농촌으로 꾸리며 더 많은 생산수단과 소비품을 생산하는 등 기술발전과 생산장성의 모든 문제가 전력공업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문제도 역시 전력공업의 발전에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기술문화혁명수행에서 전력공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전력공업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세우시고 경제발전의 매 단계에서 동력기지건설에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의 축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공고한 동력기지를 꾸리시기 위하여 이미 있는 발전소들을 새 기술로 개건확장하며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옳게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과 전력공업발전의 특성, 인민경제발전의 장래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에 의거하여 발전능력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며 수력에만 치우쳐있는 전력공업의 일면성을 없애고 동력기지를 질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한다. 또한 대규모발전소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중소규모발전소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건설하는것은 국가자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짧은 시일에 도처에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고 모든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전력공업의 발전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나라의 전기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나라의 도처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기술간부들이 자라났으며 전력설비생산기지도 꾸려지고 전력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동지의 예견성있는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현대적인 대규모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전력생산에서 계절성을 극복하고 급속히 증대되는 전력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전력공업은 식민지적편파성을 완전히 가시고 수력과 화력을 겸비하였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됨으로써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수행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지난 기간 전력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인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력공업발전을 위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은 전력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이 촉진되고 인민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하여 경제규모가 방대하여졌으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공업부문들이 더욱 늘어난 사정과 관련된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가 창설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더욱 장비되고 기계화, 전기화, 자동화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또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금속 및 화학 공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생산부문들이 새로 건설되고 광산들과 탄광들이 도처에 개발되였으며 철도전기화도 많이 진행되였다.

이처럼 극히 짧은 기간에 방대한 규모로 커지고 현대적기계기술로 장비된 우리 나라 경제는 그에 상응하게 전력공업의 보다 빠른 발전을 요구하고있다.

전력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만 우리가 이미 건설하여놓은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으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질수 있다.

전력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 있어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경제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이러한 과업의 성과적수행은 인민경제발전의 선결조건의 하나인 전력공업의 발전에 크게 달려있다.

전력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장성

하는 인민경제에 대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만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시킬수 있으며 문화혁명도 더 빨리 실현할수 있다.

그리하여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는것이며, 우리는 또한 공업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새로운 야금기지,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와 세멘트공업기지들을 창설해야 하며 철도전기화도 더 빨리 촉진해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이 모든 당면한 과업들은 전력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그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서는 방대한 과업도 또한 전력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야만 우리는 농촌에서 기술문화혁명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의 공업화를 적극 실현할수 있으며 농업생산력을 공업의 수준에로 빨리 끌어올릴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전기화를 1～2년안에 끝낼데 대한 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매해 수많이 건설되는 주택들에 전력을 넉넉히 공급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해서도 전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건설에서뿐만아니라 국방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되고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력공업을 발전시켜야만 평화시기나 전시나를 막론하고 나라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실로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이 촉진되고 인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전력 증산과 절약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문제해결을 위한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　　　*

오늘 우리앞에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력공업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전력증산과 절약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현존 발전소와 송전망들을 더욱 완비하며 언제를 보충하며 물의 리용률을 더욱 높임으로써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며 전력의 손실을 없애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61페지)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이미 있는 발전소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는 기존발전소들이 새로운 기술로 개건확장되고 수많은 수력발전소들이 도처에 건설되였으며, 화력발전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이미 마련된 발전능력을 최대한 리용하며 특히 전력생산에서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화력발전소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규모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최대한으로 생산해야 한다. 그러자면 보수력량을 강화하고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하여 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잘하며 그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함으로써 한건의 사고도 내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발전능력을 완전히 리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자재를 우

선적으로 보장해주며 석탄을 집중적으로 수송보장하여 충분한 석탄예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화력발전설비를 가지고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리용률을 높여 전력을 최대한으로 내는것은 긴장된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하여도 몇개 도에서 쓰는 전력에 해당하는 량을 능히 얻을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있는 화력발전설비들을 빨리 보수정비하며 이미 보수정비된 설비들은 그 능력을 완전히 리용하여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화력발전설비에 대한 기술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표준조작법을 지켜 사고를 철저히 근절하며 또한 이 부문을 지도하는 일군들은 공장화력발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석탄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며 모자라는 전력만을 국가에서 받아쓰는 엄격한 제도를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화력발전소와 함께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량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수로와 언제를 비롯한 수력구조물들을 제때에 보수하여 한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할것이며 물원천이 있는 모든 곳에 도중취수구를 설치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할것이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수력구조물관리사업을 개선하며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한 투쟁은 곧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이다. 과학적인 측정수단들을 갖추어 언제의 부식상태와 물이 새는 상태를 세밀히 검토한데 기초하여 수로와 언제에 대한 보강사업을 제때에 하며 현존 도중취수구들을 정비하고 가능한 모든 곳에 새로운 도중취수구와 물주머니를 만드는 등 저수지에 물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또한 현존수력발전소들에서 수차효률을 높이는것은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모든 수력발전소들에서는 내마모용착법을 비롯한 새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현존수차를 질적으로 보수할것이며 수차생산에서 기술신비주의를 마스고 최단기간내에 효률이 높은 현대적인 수차를 많이 생산하여 효률이 낮은 낡은 수차들을 제때에 바꿈으로써 같은 량의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얻어내야 한다.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에 있어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옳게 배합하여 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게 화력발전소들에서는 발전설비들을 잘 보수정비하여 가물철에 사고없이 계속 돌리며 수력발전소들에서는 발전설비들을 가물철에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장마철에 그 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며 당의 고수위, 고효률 운영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잘 배합하여 돌리는것은 전력생산에서 계절적제약성을 극복하고 갈수기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전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전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중소형발전소들을 다 돌려 전력의 지방적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이다.

중소형발전소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나라의 도처에는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설치되였으며 거대한 발전능력이 조성되였다. 그러므로 그 설비상태를 개선하며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리용률을 높인다면 농촌의 전기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지방의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나라의 긴장된 전력사정을 훨씬 덜어줄수 있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갈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에 의거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과 대규모화력발전소건설을 촉진시키며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들과 공장화력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5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우리 나라 전력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언제나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이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발전소건설을 더욱 다그쳐 그 조업을 앞당기는것은 7개년계획의 전력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며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전력건설부문일군들은 진행중에 있는 대규모화력발전소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로력, 설비, 기자재들을 제때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며 전군중적인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조업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야 한다. 또한 미리부터 발전소의 운영준비를 칠저히 갖추어 생산에 지장이 없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건설중에 있는 공장화력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 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특히 완공단계에 있는 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조업을 빨리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전력생산에서 신비주의를 깨뜨리고 온갖 동력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중소규모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농촌에서의 발전소건설을 저수지, 관개하천 제방공사와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저수지의 물이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논발을 적시게 하며 한방울의 물도 효과있게 써야 한다.

이리하여 나라의 동력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연조건으로 인한 전력생산의 계절적파동성을 완전히 없애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산할뿐만아니라 절약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전력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우리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자면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며 랑비를 극력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함에 있어서 전력랑비를 없애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력공업부문일군들은 먼저 설비용량이 작아서 전력손실을 많이 내고있는 송전선들과 변전소들의 능력을 높이며 전압단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전력계통을 튼튼히 꾸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곳에 전력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들과 전압조정장치들을 설치하여 원활한 전압조정체계를 세움으로써 전력계통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할것이다.

전력을 절약하는데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금속, 화학 공업을 비롯한 전력을 많이 쓰는 부문에서 제품의 단위당 전력소비량을 낮추는것이다. 암모니아, 가성소다, 카바이드, 전기아연, 전기로강, 주강품등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원료의 기술조건을 개선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며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단위당 전력소비량을 결정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제품들의 전력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그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전력을 많이 쓰는 생산공정을 검토하여 전력을 적게 쓰거나 안쓰는 새로운 공정으로 바꾸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전면적기술혁명이 실현됨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동력용 전력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게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쓸수 있도록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는 현존동력설비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검토하고 알맞는 전동기와 변압기들을 설치하도록 하며 모든 기대설비들에 자동개페기를 받아들여 공운전을 없애는 등 전력절약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올해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저수지들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대규모의 양수기들이 새로 수많이 설치되였으며 분수식관수체계가 널리 도입되여 동력용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므로 전기동력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없애고 뜨락또르와 발동기를 쓸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을 써서 얻은 물, 압축공기, 가스 등을 극력 아껴쓰며 모든 가정과 사무실들에서 조명용전기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해당 부문들에서의 전력절약을 위한 동원적과제를 옳게 정하고 그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도하며 국가감독기관들에서는 전력소비에 대한 검열통제적기능을 일층 높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전력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며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켜 아래일군들을 적극 도와주고 걸린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전력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불길을 더욱 높여 전력 증산과 절약을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한키로와트시의 전력이라도 더 증산하고 아껴쓰기 위한 힘찬 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할것이다.

전력공업부문앞에 나선 이 모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이 부문의 지휘성원들이 현시기 전력공업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당의 의도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똑똑히 알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달라붙으며 군중의 앞장에 서서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고 지휘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전력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전력공업부문에 주신 그이의 강령적교시들을 철저히 연구체득하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것을 깊이있게 해설침투시킴으로써 모두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뼈와 살이 되게 하며 전력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당의 요구와 그 실천방도를 명확히 알고 당정책관철에 혁명적으로 달라붙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력공업발전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시켜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투쟁과업

주 문 엽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 보고와 공화국정부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투쟁과업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남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롭고 너그러운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게 될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8～38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우리 나라 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남조선혁명은 조선혁명의 완수를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우와 같은 책, 229페지)

조선혁명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위대한 혁명이다.

오늘 남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전조선혁명의 뗄수 없는 한 부분을 이루고있다.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며 조선혁명도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혁명문제가 따로 제기되는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정세와 조선혁명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현실적으로 남북으로 분렬되여있으며 조선혁명은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반부에서 혁명발전단계가 서로 다르며 각이한 혁명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북반부와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남조선사회자체내의 고유한 모순으로부터 출발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제기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을 수행하여야만 남북조선혁명력량이 단합하여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달성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의 사회경제 제 관계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조아 및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이다.**》(우와 같은 책, 233페지)

남조선사회는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예속밑에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셔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미제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으며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적지배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물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지배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본질상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괴뢰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보다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신식민주의적으로 통치하고있는것이다.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그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는 위장물이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미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며 놈들의 전쟁정책을 위하여 남조선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내맡기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은 《헌법》, 《법률》을 꾸며내고 《예산》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고 괴뢰기구내의 졸개 한놈을 옮겨놓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상전의 《동의》와 《승인》이 없이는 어느하나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완전한 허수아비이다. 미제는 이러한 괴뢰정권을 통하여 그리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주재 《미대사관》을 통하여 괴뢰정권을 조종하고있으며 《주한미국제개발처》를 통하여 남조선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으며 《공동방위》라는 명목하에 남조선에 근 6만의 침략군을 직접 투입하고있을뿐만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의 명의로 남조선괴뢰군을 통솔하고있다.

간악하고 교활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후 저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에 더욱 유리한 지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사회경제적관계를 일부 재편성하였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을 침략함에 있어서 제놈들의 잉여상품처리의 중매자, 자본침투의 인내자, 자원략탈과 일부 군수품의 현지조달자의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매판자본가육성에 일차적 의의를 부여하였다. 놈들은 《귀속자산불하》, 《원조》물자의 구입과 판매에서의 독점권부여, 각종 재정금융적《특혜조

치》 등의 방법으로 매판자본의 토대를 닦아주었다. 그 결과 일제통치시기에 남조선매판자본의 비중은 남조선중요산업의 구성에서 겨우 6%를 차지하였던것이 오늘은 500명안팎의 매판자본가들이 남조선 제조공업의 약 40%, 채취공업의 약 80%, 대외무역의 5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에 유리하게 남조선농촌의 봉건적 제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였다. 남조선농촌에서는 지주적토지소유에 기초한 봉건적인 제 관계가 의연히 지배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경리는 과거보다 더욱 더 령세화되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10만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40%를 차지하고 140만호의 농가를 착취하고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파쑈분자들과 친미친일주구들로 반동관료집단을 꾸려놓고 야수와 같은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다.

남조선에 수립된 이와 같은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정치경제체계는 남조선경제의 발전과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억제하는 질곡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의 충실한 주구들인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함으로써만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과 제국주의 및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이다. 또한 민족자본가들도 반제반봉건투쟁에 참가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은 그 어떤 민족부르조아지들이나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되는 혁명인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성격을 띠는 혁명이지만 그것은 로동계급의 종국적해방을 위한 사회주의혁명과 련결되고있다.

남조선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요구는 우선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을 제외하고는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등장할수 있는 그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

조선에서 얼마되지 않던 토착자본가들은 그의 대부분이 이미 일제통치시기에 일본제국주의앞에 투항하고 그와 야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로동계급은 자본가계급이 일제에 투항하고 야합하는 시기에도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웠으며 조선혁명에서 령도적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앞에 투항하고 그와 야합한 자본가계급이 혁명을 령도할수 없으며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영용하게 싸운 로동계급만이, 오늘도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우리 인민의 선두에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로동계급만이 조선혁명을 령도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는 남조선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할수 없고 인민대중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기초한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길은 열리게 된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쫓겨가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취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구축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는것은 남조선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침략군을 남

조선에서 몰아내고 모든 식민지통치기구들을 분쇄하여야 하며 미제와 괴뢰도당간에 체결된 모든 예속적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특권을 박탈하여야 하며 미제의 침략정책과 식민지통치의 도구인 남조선괴뢰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는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봉건적토지관계를 청산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적토지개혁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래독점자본과 매판자본가 및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있는 중요산업을 몰수하여 전인민적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적 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을 실시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민적 교육 및 보건 제도를 수립하는 등 민주주의적사회문화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파쑈적군사제도를 철폐하고 미제의 고용군대이며 반혁명적무장력인 괴뢰군을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전환시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은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이며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고 남북반부혁명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이 통일되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기반우에서 발전하게 될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민족의 일대 번영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천명하시면서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외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투쟁과업은 남조선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현정세하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침략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만드는것을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기본으로 삼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60여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을 유지하고있으며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군사적목적에 복종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군사적잠재력을 저들의 전쟁정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선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괴뢰군을 웰남침략전쟁에 직접 써먹고있으며 남조선을 가장 중요한 대포밥공급지로 리용하고있다.

최근년간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는 미제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병력을 증강하면서 남조선에 여러가지 신형무기와 작전물자들을 계속 끌

어들이고있으며 군사비행장, 항만, 전략도로 등 군사시설을 확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침략자들은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지난 4월 10일까지의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우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항의한것만 하여도 무려 2,180여건에 달한다.

호전광 닉슨이 미제의 두목으로 등장한 이후 조선에서 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더욱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단적인 실례로서 지난 3월에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위협》하기 위한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본토로부터 수많은 침략군부대들과 군수물자들을 남조선에 《공수》하는 《포커스 레티너》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대규모적인 침략적군사연습소동을 벌리였다.

지어 지난 4월에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침입사건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사죄문에 수표한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현대적대형간첩비행기를 공화국령공 깊이 침입시켜 적대적정탐행위를 감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날로 격화되는 미제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달하고있으며 더우기 일제의 재침략책동과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적불안은 날로 증대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88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혈육을 미제의 대포밥으로 빼앗기고있으며 지어 남부월남에까지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고있다. 로동자들은 군수산업과 군사시설들에서 고된 로동과 가혹한 착취를 강요당하고있다. 농민들은 수십만정보의 농토를 군용지로 빼앗기고 수백만석의 군량미를 수탈당하고있다. 청년학생들은 학원에서 쫓겨나 강제징집당하고있다.

그러므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지체할수 없는 사활적요구이며 긴절한 과업이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에 칠저히 복무하고있으며 그것은 력사에 류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을뿐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이 파쑈화정책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 실현에서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적요소를 제거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그 예봉이 인민들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있다. 이를 위하여 놈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비롯한 각종 파쑈적악법을 만들어내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지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도살장으로 만들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횡포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적술책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반공》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다.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쟁소동이 벌어지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

침이 허용되고있으며 남부웰남파병이 감행되고있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의 지하활동과 유격활동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북조선의 침입》으로 묘사하고있으며 남조선의 현위기의 원인이 그 무슨《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있는듯이 허위날조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고 꾀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무권리와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을뿐만아니라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혁명적인 당과 군중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은 물론 진보적인 사상과 애국적인 모든 활동이 금지당하고있으며 아무런 죄도 없는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학살당하고있다. 최근에만도 원쑤들은 통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임자도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을 날조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천인공노할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지어는 생존의 권리와 생활개선을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요구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인민대중의 지향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떠한 야수적탄압으로써도 결코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혁명투지를 꺾을수 없으며 그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파탄시켜야만 오늘의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혁명투쟁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미제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당면투쟁과업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군에의 강제징집과 토지와 물자, 시설의 군사적경발, 군수생산과 군사수송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미제침략군에 대한 일체 협력을 거부하고 남조선을 침략적 군사동맹에 끌어들이려는 미제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웰남파병을 반대하며 그곳에 이미 끌려간 남조선괴뢰군의 즉시 송환을 요구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군사파쑈독재를 전복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며 체포구금된 모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앞에 제시하신 당면한 투쟁과업은 남조선의 현정세하에서 반혁명공세를 꺾어버리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혁명력량의 장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함으로써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정세를 성숙시키고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기며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의 해결을 보장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하루속히 자기의 투쟁대렬을 확대강화하고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 투쟁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적 폭압을 저지파탄시키고 현박정희군사파쑈정권을 뒤집어엎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전개하고있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

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기의 결정적투쟁에 의하여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민정권을 쟁취하여야만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 그이의 현명하신 령도밑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투쟁과업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그들을 거세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온갖 기만책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라침판으로 삼아 혁명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면서 반미구국투쟁을 심화발전시켜 나아가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군인, 청년학생, 언론인, 교육자, 그리고 량심있는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자들의 억압과 착취,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반대하는 항의, 롱성, 파업, 시위로부터 적극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고있다.

이 모든 투쟁은 오늘 미제와 그 주구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놈들을 일대 혼란속에 몰아넣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여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야 말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줄기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근로자 제6호 (루계 32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6월 5일 발 행 • 1969년 6월 10일
ㄱ—93196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양 근로자사 1969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호 (329)

차 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승리의 담보이며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라는것을 처음으로 밝히시였다.

이것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이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는 원칙적문제에 가장 옳은 해명을 준것으로서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성과 국제주의는 밀접히 결합되여있으며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나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문제에서 언제나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5페지)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두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은것도, 우리 당이 오늘처럼 국제적으로 높은 권위와 위신을 가지게 된것도 모두 김일성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천명하신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관한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한것과 밀접히 관련되여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현단계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고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많은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앙양되는 혁명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1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은 모든 정책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규정하며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을 말한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또 거기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기본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은 자기 활동에서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3페지)

공산주의운동은 민족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다. 혁명은 그 나라의 내부적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일어나며 혁명의 승리는 그 나라의 계급적력량관계에 의존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주인인 그 나라의

당과 인민이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노력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운동은 국제적공통성을 띠는 동시에 나라마다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 매개 나라의 지리적환경과 력사적조건이 서로 다르고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수행방도를 옳게 규정하고 과학적인 령도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당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독자적인 신념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혁명의 주인인 그 나라 당을 대신하여 혁명정세의 발전에 알맞게 써먹을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여줄수는 없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도 매개 당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의의를 가진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조건, 각이한 발전수준에서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이상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방도를 취하는것은 날카롭고도 심중한 문제로 제기된다. 만일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지 않을 때에는 남만 쳐다보고 좌왕우왕하게 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망쳐버릴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오직 자주성을 견지할 때에만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는것을 증시하였다.

자주성을 견지하는 당은 내외원쑤들의 파괴책동이 혹심하게 감행되는 환경에서도 동요없이 맑스-레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고있다. 반대로 자주성을 잃게 되면 남의 풍에 놀면서 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해독적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에 가장 충실한것으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매개 나라의 혁명운동을 떠나서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운동이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여 세계혁명의 대조류를 이루고 있다.

매개 나라의 로동계급과 당의 민족적과업과 국제적의무는 불가분적으로 통일되여있다. 로동계급과 그 전위부대가 자기의 민족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것은 곧 자기에게 맡겨진 국제주의적분공을 옳게 수행하는것으로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운동전반을 승리에로 나아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자주성이 세계혁명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것이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실제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것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하는것이 곧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것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국제제국주의세력에 타격을 가하고 세계사회주의체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직접 기여하기때문이며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지원을 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매개 당이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며 그에 기초하여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것을 요구한다.

자주성이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지 못하고 자기의 민족적임무를 옳게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국제주의에 대하여 말한다 하여도 무의미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것도 아니며 그 누구

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것도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국제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을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1페지)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예속을 없애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초보적임무로 여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신념을 저버리고 남을 추종할수 없으며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 할수 없다.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곧 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것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모범을 창조하여 세계혁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모범은 세계인민들속에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지향을 강화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실천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의 모범을 창조할수 있다.

만약 자주성을 잃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발양시키지 못한다면 세계인민들속에 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견인력을 높일수 없게 될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기본으로 되는것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다.

자주성은 공산주의자들의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표현하는것만큼 그자체가 좌우경기회주의와 부르죠아사상 등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배격한다. 오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그 어떤 기회주의사상독소나 병균에도 침습당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여 강한 원칙적투쟁을 전개할수 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길을 따라 확고하게 전진할수 있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에서 이룩되는 고귀한 경험과 성과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고 풍부화되는것만큼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공헌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다음으로 자주성은 형제당, 형제나라들간의 단결과 협조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46페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이 서로 단결하는것은 누가 요구하여 하는것이 아니며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잘하기 위한것이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능으로부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자각적으로 하는것이다. 자각적이 아닌 단결은 공고한것이 못되며 혁명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간의 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의 원칙에 립각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는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수 없다. 남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여 가지고서는 결코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자주성을 잃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한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며 따라서 국제혁명력량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것이다.

오직 모든 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는것만이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단결을 강화하는 길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형제당, 형제나라들간의 관계에서 있을수 있는 온갖 편향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공고한 국제주의적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자주성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높은 국제주의적련대감과 의무감으로부터 나온것이며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국제주의와 자주성을 인위적으로 대치시키면서 국제주의를 구실로 자주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국제주의 자체를 거부하는것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자주적인 당과 나라들 사이의 국제주의이며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도대체 국제주의가 성립될수 없다.

한편 독자성의 간판밑에 민족리기주의를 첫자리에 놓고 국제혁명의 공동리익을 무시하며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칙과 계급적립장에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자주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만일 그 누가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배반하고 민족리기주의로 나간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4~65페지)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주의자이며 따라서 고립주의나 민족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전세계의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단결과 협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이것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하나의 혁명전선에서 싸우며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근본적리익을 표현하고있으며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국제적인것이다. 로동계급은 세계적범위에서 힘을 결속하고 서로 지지하여야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철쇄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위대한 힘은 장기간에 걸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증되였다.

국제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이래 언제나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국제주의기치밑에 단합된 힘으로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왔다.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은 국제자본의 세력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지켜왔고 빛내여온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로부터 절대로 물러설수 없으며 그 고상한 리념을 더럽힐수 없다.

만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로부터 물러선다면 세계혁명과 세계인민들 앞에서 지닌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자기 나라의 혁명을 잘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자기 나라 인민들앞에서 지닌 책임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은 내부적모순의 발전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지만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모순과의 련관속에서 진행되며 혁명의 승리는 그 나라의 계급적력량관계에 의존하는것이지만 동시에 국제적범위에서의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에도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제국주의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협을 면할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주성의 간판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계급적형제들사이의 공동행동과 공동투쟁을 거부한다면 자기 나라 혁명을 발전시킬수 없고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주의를 부인하는것은 곧 혁명적립장을 포기하는것을 의미하며 국제주의를 떠나서는 자주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는데서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당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임무가 부과되여있다.

사회주의나라의 인민들은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인민으로서 응당 세계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원칙적립장에서 출발하여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하며 반제혁명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에게 최대한의 물질적 및 정신적 지원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경제관계에서도 어디까지나 계급적립장과 세계혁명의 근본적리익을 위한 견지에 튼튼히 서야 하며 결코 협애한 리기적목적에 매여달릴수 없다.

세계혁명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면서 계급적형제들과의 련대성을 약화시키거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지 않는것은 모두 부르죠아민족주의의 표현이며 맑스-레닌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것이다. 혁명의 리익을 제1생명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라면 어떤 구실밑에서도 국제주의를 떠나서 민족리기주의를 추구할수 없다.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밀접히 결합시키며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민족리기주의와 종파주의 등 온갖 반맑스-레닌주의적사상조류들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은 국제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2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수행되여온 40여년에 걸친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매개 나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혁명의 진행정은 내외원쑤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의 행정이였으며 동시에 사대주의, 대국주의,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종파주의 등 일체의 반혁명적조류들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하는 투쟁행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관하게 자주성을 견지하고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곧 국제주의에 가장 충실한것이라고 가르치시였으며 이 원칙에서 투쟁하도록 우리 당을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국제주의적의무라고 인정하고 그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6페지)

자주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날카롭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게 되고 그이께서 천명하신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혁명은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에 기초하시여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체확립을 제1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 누구도 조선혁명을 대신하여줄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자주적이며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고 15성상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여 일제를 멸망시키고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다.

해방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모든 로선들도 그이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적혁명로선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 자주로선에 따라 로동계급의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하고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만들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또한 우리는 자주로선에 따라 모든것이 파괴되고 모든것이 부족하던 전후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불과 4~5년이란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올렸다.

사실 락후한 식민지상태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조건에서 어떻게 새 사회를 건설하고 어떻게 전반적조선혁명을 이끌고나갈것인가 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문제였다.

해방직후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의 운명이 마치 큰 나라들에 의하여 해결될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남만 쳐다보는 형편에 있었다.

전후에도 우리 나라의 실정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은 대국주의자들과 이들을 추종한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은 우리 당이 내세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선과 방침들에 대하여 《남이 해본 일이 없는것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선혁명이 요구하고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되는것이라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작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제기하고 집행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울수록 자주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주적으로 자기의 정책을 규정하고 그 수행에로 근면하고 재능있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풍부한 국내부원을 동원하였기때문에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535페지)

참으로 우리 당이 로선상 그 어떠한 좌우경적편향도 범하지 않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자주성을 견지하여 조선혁명을 잘한것은 곧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기여를 한것으로 되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에게 맡겨진 국제주의적의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한것으로 된다.

우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주성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동방에서 제국주의전선의 한고리를 끊어놓고 우리 나라를 위력한 사회주의동방초소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세계사회주의체계의 **확대강**

화에 직접적인 기여로 되는 동시에 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고 그의 전반적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2차대전후 아세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제의 날강도적야망은 먼저 조선에서 저지파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은 미제국주의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의미하는것이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89페지)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미제와 능히 싸워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이 도처에서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칠벽같은 자위태세를 마련하고 자주적립장에서 반제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극동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고있으며 그리하여 우리 혁명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을뿐만아니라 세계혁명의 리익과 평화의 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우리 당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통하여 세계혁명운동발전에 기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나라 인민의 로동과 국내부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3페지)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를 발전시키고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었다.

우리 당은 자주로선을 관철하여 어제날 세기적으로 뒤떨어진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확고한 정치적자주성과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 철벽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킴으로써 제국주의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독립과 진보의 길에 들어선 수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어떻게 자주적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갈것인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다음으로 우리 당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독자적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있다.

우리 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일관하게 계급적련대성의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은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여도 그것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내부의 문제이며 따라서 어디까지나 계급적형제들의 단결의 념원에서 출발하여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우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할것을 주장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독자적이고 원칙적인 립장이야말로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도이다.

우리 당이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국제혁명운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를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것이며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창조적경험들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

힘을 풍부히 한것이다.

우리 당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그 누구에게도 맹종맹동하지 않았기때문에 현대수정주의의 바람이 불어오건, 좌경기회주의의 바람이 불어오건 끄떡없이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끝까지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왔다.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시대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전진하는 길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혁명과 건설을 높은 단계에로 계속 성과있게 전진시키도록 보장하시였을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고전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인 당 및 국가적 지도를 개선완성하며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지도관리하는 문제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었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공산주의에로의 이행방도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면적해답을 주었다.

제국주의와 대치한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원칙적방도를 명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방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에 관한 리론과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 등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새로운 로선과 방침, 탁월한 혁명리론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게 비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천재적으로 밝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중요한 리론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미제에게 투쟁의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과 혁명을 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원칙들은 모두 반제혁명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촉진하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이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성의 원칙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대한 생활력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국제주의에 충실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적혁명의 길을 개척하는 선봉대가 되여 국제혁명위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민주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앞에 모범을 보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

우리 당은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하는 동시에 국제주의적단결과 협조를 무한히 귀중히 여기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형제당, 형제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신 첫시기에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투쟁하도록 하시면서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자들과는 물론 광범한 반제력량과 단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시고 이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국제적으로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전개하는데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후에도 일관하게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인정하고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미제국주의를 고립시키며 그 침략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억센 투쟁을 벌려왔다.

지난 시기 대국주의자들이 참기 어려운 내정간섭을 가해왔을 때에도 우리 당은 오직 세계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면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던것이다.

우리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긴장된 투쟁을 진행하는 조건에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고있다. 싸우는 인민들에게 주는 우리의 지원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진정으로 도우려는 국제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하고있다.

우리 당은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북반부혁명력량과 남조선혁명력량을 더욱더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고있으며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계속 강화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더 많은 벗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고 서로 지원하면서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3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현정세는 자주성을 더욱 확고히 견지하며 이에 기초하여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전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이다.

오늘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인민들은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제국주의는 날로 더욱 패배하고있으며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계속 장성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일정한 곡절이 없을수는 없으나 전반적정세는 의연히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력량에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8페지)

정세가 혁명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회복하고 전반적세계혁명을 힘있게 촉진하는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자주성을 확

고히 견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하는데 달려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정확한 령도를 보장하여야 앙양되는 대중운동을 능숙하게 반전시켜나아갈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적립장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적극 전개하며 이에 기초하여 서로 협조하고 단결을 강화한다면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이 실현될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될것이다.

물론 형제당과 형제나라들 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견상이는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활동하는 력사적 및 지리적 조건과 민족적임무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발생할수도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상이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을 반영하는것도 아니며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리해관계를 반영하는것도 아닙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1페지)

우리 당은 의견상이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형제당, 형제국가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거나 적대시하여서는 결코 안되며 자주성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키는 기초우에서 관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동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할 계급적전우들인 형제당, 형제국가들이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면 능히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고 진정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호상 지지하고 협조하며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첫째가는 의무로 된다.

오늘 자주성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며 진실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기회주의적립장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주성을 극력 반대하며 좌우 두 극단에서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자주성을 짓밟기 위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쓰고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책동도 자주성의 원칙이 더욱더 승리하는것을 가로막을수는 없으며 도도히 흐르는 혁명의 대조류앞에서 기회주의조류는 결국 밀려나고야말것이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원적이며 동지적인 국제주의적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혁명대오가 하나의 보조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혁명의 대조류가 홍수처럼 밀려들고있는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 시대적요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의 멸망을 추진시키며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중대한 임무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게 부과되여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견결히 고수할것이며 우리 나라 혁명을 완수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사회주의하에서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기본담보

리 근 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혁명적경제건설로선인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론증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음에 있어서뿐아니라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8폐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 민족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고전적정식화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힌 천재적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민족문제, 이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민족들간의 불평등을 없애는 문제라는 사상을 제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계급적차이와 함께 민족적불평등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마자 인차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닙니다.》(우와 같은 책, 538~539폐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면 부르죠아민족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민족으로 전화한다.

사회주의민족들은 정치적으로 다 같이 자주적이고 평등하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민족들,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서도 주로 경제문화적발전이 균등하지 못한데로부터 오는 민족들간의 불평등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것은 자본주의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다. 자본주의시대는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이 지배하는 시대이며 극소수의 민족에 의하여 대다수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이 억제되고 민족적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이다.

민족들간의 정치적 지배와 예속은 계급적착취와 함께 사회주의혁명에 의하여 청산된다. 그러나 그들사이의 불평

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당장에 청산할수는 없는것이다.

이러한 불평등 즉 민족들간의 선진과 락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는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은 결국 계급도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사회, 민족적계선도 국경도 없는 공산주의세계를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길에 들어선 인민들은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공고히 하는 기초우에서 반드시 경제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불평등을 청산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에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정치적해방과 민족적독립을 달성하는것이 민족문제해결에서 중심적문제였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의 민족문제해결에서 중심적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족들간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들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도 남아있는 이와 같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원칙적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민족으로 만들어야 할뿐아니라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민족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39페지)

이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민족적불평등을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를 밝힌것이다.

민족의 경제적락후성은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따라서 물질문화생활에서의 락후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실제적으로 온갖 민족적불평등이 남아있게 하는 근본원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도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락후할 때에는 다른 민족들과의 사이에 의존관계와 사대주의가 생길수 있고 이것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협조를 이룩하는데 저애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민족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져있으면 제국주의자들의 예속화정책과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없고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할수 없다. 경제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민족들과 앞선 민족들사이에는 실제적인 평등이 있을수 없다.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은 여러가지 요인들의 작용으로 하여 장구한 세월에 걸쳐 력사적으로 형성된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뒤떨어진 민족들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통해서만 없앨수 있다.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민족들이 자체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하려면 우선 주체를 확립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민족들은 확고한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고 튼튼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마련하며 자체의 공고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여야 민족적번영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할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은 매개 민족이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 때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야 하며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즉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음으로써만 경제적락후성을 빨리 청산하고 민족들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모든 민족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될 때 민족들은 모든면에 걸쳐 실재적인 평등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우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물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민족들간의 실재적인 평등을 이룩하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537페지)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고수하는것은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하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바와 같이 앞으로 제국주의가 완전히 끼꾸러지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승리하여 민족들의 계선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다르지마는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살아나가고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대주의, 대국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어떤 민족을 물론하고 완전한 정치적자주성을 고수함이 없이는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없고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매개 민족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자기의 고유한 력사적전통과 특성, 그리고 민족적감정과 리해관계를 옳게 살리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수 있으며 자립적민족경제도 성과적으로 건설하여나갈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공고한 경제적자립성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 정치는 결국 경제의 집중적표현이며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민족들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될 때라야만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실재적인 평등을 달성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또한 튼튼한 자위적인 국방을 위한 물질적기초를 마련한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단결과 호상협조는 민족과 혁명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압박과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적독립과 자주, 평등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 자위적인 군사력은 오직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가 건설되여있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마련될수 있다.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튼튼한 자립적 중공업기지가 있어야 자체의 군수공업을 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어떤 긴장속에서도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인격에 쳐부실수 있는 공고한 자위력을 마련할수 있다.

또한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이 자체의 공고한 방위력을 축성할 때 사회주의진영전체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물질생활령역에서 민족들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들간의 불평등

을 없애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조성한다. 생산력과 과학기술의 고도의 발전, 모든 근로자들의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함이 없이는 민족적번영과 실재적인 평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매개 민족국가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이고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게 될 때라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장성의 가장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을 가장 빨리, 계통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또한 교육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할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적 번영과 평등을 이룩하게 한다. 민족들간의 완전한 평등과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의 정신문화생활과 민족문화의 발전에서도 고도의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 때 민족문화와 근로자들의 정신문화생활에서도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이 매개 나라에서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도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는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자립적인 하나의 단위로서 서로 긴밀한 련계와 협조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체계는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하여질 때 그 전반적위력도 강대해집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3~64폐지)

매개 민족은 자체의 위력한 경제토대가 있어야만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킬수 있고 경제적협조를 강화할수 있으며 형제나라들의 경제적락후성을 퇴치하는데 실재적인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지원을 주고 민족들의 번영과 평등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고 그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인 동시에 민족의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들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합법칙적인 길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족들의 불평등의 실재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은 오직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해명된 창조적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이것은 선행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에 의하여 해명되지 못했던 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천재적으로 해결한것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는 문제가 전면에 나섰던 세계혁명발전의 지난 시기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제기될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부르죠아민족이 사회주의민족으로 되였으며 지난날 식민지예속에 얽매여있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되여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하에서도 남아있는 민족적불평등의 실재적기초를 밝히며 그것을 없애는 정확한 길을 밝히는것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력사적임무로 나서게 되였다.

사회주의하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

설함으로써 민족들간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성과적인 발전의 길을 밝힌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요구에 명확한 해답을 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앨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대한 또하나의 고귀한 기여로 되며 전세계에서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를 없앨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은 현실에 의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그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가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며 민족적불평등을 청산하는 문제를 승리적으로 해결하여왔다.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의 노예의 처지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자주적이고 평등하며 강력하고도 존엄있는 사회주의민족으로서 세계무대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이 력사적전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고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이며 특히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이룩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기적으로 락후한 경제를 넘겨받은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을 민족과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세기하시고 이를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것을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과 민족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고수하고있으며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일대 민족적번영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남반부형제들을 구원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할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놓았으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리익과 민족적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에게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재생의 기쁨을 안겨주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민족을 발전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민족으로, 사회주의진영의 강력한 일원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족문제해결의 모범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력사적경험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자체의 튼튼한 방위력을 마련할수 있으며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사상은 모든 민족들이 주체성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면서 민족문제도 해결할수 있게 하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고있다.

민족문제해결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실천적모범은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예속국가 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이 민족적번영과 륭성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생독립국가들은 오직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 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완전한 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소탕하며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나 비록 독립을 달성하였다 하지마는 그들이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자본주의체계에 머물러있는 한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예속관계를 완전히 청산할수 없으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수도 민족적불평등을 청산할수도 없는것이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경제적락후성이 더욱 심화되는 길이다.

민족들이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는 민족적불평등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대로 사회주의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그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청산할수 있다.

오늘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오늘 남조선경제는 미제의 침략적인 식민지예속화정책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탄되고 인민들은 도탄에 빠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할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보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의 리익, 진정한 민족적리익을 위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생산수단이 지주, 자본가의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그들의 리윤추구에 있는 자본주의제도의 본성과는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야 한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 건설된 반석같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조국이 통일된후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한후 나라의 부원과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전조선에서 우리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개화를 이룩하기 위한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나아갈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와 함께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더욱 촉진할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가적기풍

최 원 근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 이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에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원칙성, 그리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구현되여있다.

이 빛나는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는것은 혁명가적기풍의 전통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에 걸쳐 항상 항일유격대내에서 혁명가적기풍을 수립하는 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혁명가적기풍의 빛나는 전통을 확고히 세우시였다.

혁명가적기풍은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오직 혁명을 위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이악하게 달라붙어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이다. 이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귀한 일본새이다.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혁명운동자체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혁명은 백주에 탄탄한 대로를 따라 가듯이 쉽하게 될수 없으며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 전진하는것도 아니다. 혁명도상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희생도 있을수 있다.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서 혁명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8~9페지)

혁명투쟁은 원래 간고하고 복잡하다.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이는 난관을 물리치고 장애를 헤치나아가는 완강한 혁명가적기풍이 없이는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수 없다.

간고성과 장기성에서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보기 드문 준엄한 혁명투쟁이였던 항일무장투쟁은 전체 항일유격대원들이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였다. 가장 횡포하고 포악한 일제침략군을 반대한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은 실로 난관과 시련으로 가득찬 간고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함으로써만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가렬한 전투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혁명의 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맑스-레닌주의당창건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반일통일전선운동을 급속히 확대발전시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차게 추진시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절실한 요구에 기초하시여 전체 유격대원

들이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품성과 기질을 가지며 언제 어디서나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가적기풍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가적기풍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그이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사업기풍에서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가는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적기풍의 첫째가는 특징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의 명령지시는 전체 조선인민의 절실한 념원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사업과 생활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종파주의, 대국배타주의 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대내에서 나타난 사소한 편향성에 대하여서도 제때에 강한 타격을 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관철에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능력을 앞세워 생각한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또 수행할수 있다는 태도와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운 임무도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내기에 머리를 썼으며 그것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장을 냈다.

여느때라면 달포나 걸려야 할 폭탄 100개를 단 사흘동안에 만들어낸 병기창동무들의 투쟁에서는 조건이나 자재가 문제로 되지 않았다. 소리를 내여 적들에게 발견될것을 우려하여 가마우에 단벌 솜저고리를 덮어놓고 메질하는 고결한 마음, 열병에 걸리였으나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망치를 놓지 않은 완강한 혁명적의지,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먹는것도 자는것도 잊고 일손을 다그치는 불같은 혁명정신이 상상하기 어려운 힘을 낳게 하고 임무를 완수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라면 그것이 어떤 어려운것이라 하여도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들어 뼈가 가루되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끝장을 내며 바로 거기에서 혁명가로서의 더 없는 긍지와 영예를 느끼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김일성동지의 명령지시관철에서 재정된 시일을 어기여 전투행동이나 전반적인 부대행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명령지시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바치는 경우에도 결코 그것으로 혁명가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높은 자각성으로 살며 싸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사업기풍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실로 고결한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가적사업기풍은 또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에서도 높이 발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들의 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있소. 하루속히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시킬 숭고한 혁명임무가 우리들에게 맡겨져있는것이요. 이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앉을 권리가 없는것이요. 난관을 뚫고 나갈 때만이 승리가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오.…》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이는 난관과 시련 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몰랐으며 그를 결정적으로 물리치면서 혁명가답게 살며 싸워나아갔다. 그들은 전우들이 희생되였을 때에는 슬픔을 금치 못하였으나 난관앞에서 눈물을 흘린 일은 단한번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수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비발치는 탄우도, 박달나무가 얼어터지는 강추위와 참기어려운 굶주림도, 잔인하고 야수적인 고문도, 칠창도, 교수대도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이겨내면서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1938년 겨울~1939년 봄, 남패자에서 북대정자에 이르는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은 오직 혁명을 위하여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의 생동한 모범이였다.

《…용진용진 나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이 혁명가요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수령의 부름따라 앞으로 진격하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노래하고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부닥치는 모든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아갈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은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체의 힘을 믿고 최대의 열성과 지혜를 다하여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진취성과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함이 없이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적과 싸워야 하였던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대원들에게 남의 힘을 믿고 조선혁명을 하겠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의 힘으로 해야 하며 조국과 인민, 혁명이 요구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줄 아는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장투쟁의 첫날부터 있는것은 아껴쓰며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그들은 적수공권으로 투쟁의 길에 나서서 적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였으며 야장간에서 쓰던 풀무와 집게로 무기를 수리하고 만들어냈으며 식량과 피복도 자체로 해결하였다.

《혁명의 요구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를 비롯한 여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집체적지혜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력적인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실로 15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한걸음한걸음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지닌 혁명가들만이 걸을수 있는 승리의 로정이였다.

항일유격대내에서는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원쑤를 물리치는 혁명가적기풍도 높이 발양되였다.

혁명적전개력은 승리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쉬임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사업기풍이다. 침체와 답보, 안일과 해이, 소극성과 보수성은 혁명적전개력과는 인연이 없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하는 천재적인 군사전략전술을 높이 받들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기동적으로 원쑤를 치며 하나의 승리에 자만함이 없이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투쟁을 찾아 계속 전진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또한 지휘관들이 투쟁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특히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이신작칙하였다. 지휘관들이 보여준 실천적모범은 대원들을 깊이 감동시키고 그것을 따라배우려는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켰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군중속에 들어가 현실에 침투함으로써 혁명위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의 전통도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늘 군중속에 들어가며 현실에 침투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군중을 떠나고 현실과 떨어져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어가지고는 군중의 힘을 알수 없고 현실에서 무엇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알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3~26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사업기풍의 중요한 측면이다. 혁명은 몇몇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써는 결코 승리할수 없다. 군중의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동원으로써만 원쑤를 무찌르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십만의 일제《토벌대》놈들과 경찰, 만정놈들이 욱실거리는 가운데서 투쟁하였다. 그들은 군중에 의거함으로써만 적을 보다 성과적으로 처부시고 혁명임무를 완수할수 있었다. 군중을 떠나서는 하나의 전투도, 하나의 정치공작도 제대로 해나갈수 없었다. 군중을 옳게 발동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그이의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움으로써 군중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요구를 듣고 해결해주며 그들과 의논하여 정확한 투쟁대책을 세우고 해결방도를 찾아내며 그들을 깨우쳐 투쟁에로 이끌어주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일관하게 견지하였다. 혁명적군중관점에 확고히 선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혁명적사업작풍은 간악한 원쑤—일제놈들을 처부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투쟁에서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혁명적생활기풍은 혁명투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 특히 우리 유격대에게 있어서 질서와 규률은 생명이요, 규률이 있고 절도있는 생활에서만 대오의 전투력이 강해질수 있소.

원쑤들이 우리 부대의 불피운 자리만 보고서도 추격을 그만두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소. 하루밤을 묵어가도 깨끗이 하고 지내는 부대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라는것을 적들도 알기때문이요.》

엄격한 질서와 규률은 혁명대오의 생명이며 전투력강화의 기본담보이다. 전투적이고 빈틈없이 째인 엄격한 질서와 규률이 지배하는 부대는 그 어떤 대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으로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혁명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그들은 부대생활준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항상 질서정연하고 규률있게 생활함으로써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그들은 또한 엄격한 질서와 규률속에서 락천적으로 생활하는 기풍을 세웠다. 항일유격대의

숙영지마다를 흥겹게 한 노래와 춤—유격대원들은 바로 그속에서 혁명가의 하루를 총화하고 래일의 투쟁결의를 다지였다. 그들이 부르는 투쟁의 노래, 혁명가요는 전투와 행군 과정에서도 힘차게 울려퍼졌으며 그것은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고무하는 위력한 무기로, 적들을 와해시키고 공포에 떨게 하는 폭탄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일상생활은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언제나 혁명적랑만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생활기풍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긴장된 전투준비태세를 견지하였다. 숙영지에 이르면 사령부의 위치를 안전한 곳에 정하고 경계근무를 빈틈없이 조직한 후에 휴식하고 학습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또한 그처럼 간고한 환경에서도 개체의 몸가짐으로부터 부대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항상 알뜰히 하는것을 습성화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학습에서도 혁명가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것없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세계관을 소유하며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어렵고 복잡한 시련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견지할수 있으며 진실로 혁명에 충직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제기되였다. 그들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투원일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그들은 또한 앞날의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귀중한 혁명적골간들이였다. 때문에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당면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앞으로 해방될 조국땅우에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학습을 조직해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을 따라 배움으로써 학습에 대한 옳은 태도와 립장을 견지하고 혁명적학습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기에 힘썼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학습은 그 방법에서도 전투적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편안히 서재에 앉아서 학습한것이 아니였다. 가렬한 전투후의 토막시간, 행군중의 짤막한 휴식시간,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그들은 혁명적으로 학습하였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짬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는 등 각양한 방법으로 늘 학습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동강, 마당거우, 백석탄을 비롯한 밀영들에서 친히 마련하여주신 여러차례의 집중적인 동기군정학습은 그야말로 전투적이였다.

백석탄밀영에서의 군정학습은 적들의 발악이 혹심했던 조건에서 학습기간을 두기로 나누고 1기에는 필요한 모든 과목을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2기에는 그것을 더욱 심화하는 방향에서 조직되였다. 그리고 중대들사이, 매 대원들 사이에 학습경쟁을 하면서 전투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당시 정치교양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더욱 명백히 인식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군사훈련에서는 유격전술과 함께 현대전에 필요한 군사리론을 깊이 학습하였다.

군정학습이 조직적으로, 전투적으로 진행된 결과에 구대원뿐만아니라 많은 신입대원들도 가장 짧은 시일내에 능히 적을 타승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김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로 자라났다.

간고한 환경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투적으로 학습을 계속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이악하게 달라붙어 학습하고 거기에서 투쟁방도를 찾아내여 실천활동에 구현하는것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학습기풍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이러한 학습기풍은 그들이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혁명의 량식으로 삼고 그것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마는 무궁무진한 힘을 길러내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상 조직생활에 충실하며 자신의 생활과 전투임무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총화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조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 우리는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일상적으로 수양하며 단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사소한 결함성도 제때에 알아내여 고칠수 있을뿐만아니라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가적기풍의 중요한 표현은 지도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늘 검토하고 제때에 총화하는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총화짓는 일군이라야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으로 될수 있으며 늘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74페지)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우는 학교이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이룩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혁명가는 조직생활을 통하여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적품성과 기질을 키운다. 누구든지 혁명적수양의 용광로인 조직생활에 충실치 않고서는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따라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낼수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생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으로 모든 유격대원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당원은 당조직생활에, 공청원은 공청조직생활에 충실하였다.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긴 유격대원들은 조직을 사랑하며 크고 작은 모든 문제해결에서 언제나 조직에 튼튼히 의거하였다. 그들은 조직의 결정지시와 조직의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실천하였으며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또한 그들은 조직생활에서 두가지 규률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누구를 막론하고 조직의 엄격한 규률과 혁명적질서에 복종하며 대중의 통제속에서 생활하는것을 혁명가의 고귀한 품성의 하나로 여기였다. 그리고 매일 세수하여 얼굴의 때를 씻듯이 자신의 생활을 총화하였으며 전투총화, 행군총화, 학습총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사소한 편향이라도 제때에 비판하고 극복해나갔다. 그들은 자신의 결함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 숨김없이 내놓고 비판하였으며 동지들의 비판을 허심히 받아들여 결함을 대담하게 고치였다. 이것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 및 행동상통일을 공고히 하였으며 그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렇듯 조직생활에 충실함으로써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고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로 살며 싸울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높이 발양된 혁명가적기풍의 전통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체적인 가르치심과 그이께서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이 있음으로 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땅우에 암운이 드리우고 우리 인민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헤매고있을 때 가장 현명한 조선혁명의 로선을 내놓으시고 친히 항일무장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항일유격대원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원쑤를 무한히 증오하고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다운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혁명적으로 살며 싸울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조선혁명의 성격과 당면한 혁명과업 및 그 수행방도들을 정

확히 인식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높은 혁명적자부심과 긍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견결히 투쟁하였다. 그들은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는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혁명적책임감을 깊이 간직하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싸울 고결한 희생정신과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견결하고 완강한 투쟁정신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자각성과 의식성을 더욱 높이고 공고화한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이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관철하시는 투쟁에서, 일상생활에서, 학습에서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께서만이 보여주실수 있는 혁명가적기풍의 가장 고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혁명가적기풍의 모범은 항일유격대원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 그들을 영웅적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유격대원들은 그이의 모범을 따라 배우며 사업과 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가적기풍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혁명위업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아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만도 사소한 안일성도, 해이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로서 항상 혁명적기풍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사업기풍과 혁명적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하게 함으로써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그 빛나는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여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기간에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자만도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 정책을 어김없이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히 뚫고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의 누거리공산주의자로 될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가적기풍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내놓으신 강령적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할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

한 익 수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눕히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열여섯해가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더욱더 무모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리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오늘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으로 무장하는것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6페지)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제2차세계대전후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최초의 전쟁이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의 세계적체계로의 형성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력량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대전후 급속히 장성하는 혁명력량앞에 당황망조한 미제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며 저들의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추구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러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하는데서 조선의 《유리》한 군사전략상 위치를 탐내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고 전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아세아에서 앙양되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사회주의국가들을 반대하는 새 전쟁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없애버리려고 날뛰였다.

놈들은 조선전선에 최신기술로 장비한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하여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을 동원하였으며 일찌기 어느 전쟁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놈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도시와 마을을 무차별폭격하였으며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남녀로소할것없이 닥치는대로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우리 인민이 진행한 전쟁은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반제국주의적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말그대로 우리 조국의 독립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미제침략자들의 치욕스러운 식민지노예로 되느냐,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수호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그러나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정의의 항전에 한사람같이 일떠서 싸움으로써 이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민주기지로 꾸릴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나가며 북조선에 튼튼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야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있었던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책원지, 강력한 민주기지로 꾸릴데 대한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은 우리 당의 철저한 반제사상의 구현이며 우리의 혁명을 어데까지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이 관철됨으로써 력사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정치적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급속히 강화되였다.

공화국북반부를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꾸리는데서 인민무력의 창건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미쳐날뛰는 조건에서 혁명의 군대를 창건하고 자위적인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 인민무력을 제때에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이어받은 혁명군대로, 그 어떤 제국주의군대도 타승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육성하시였다.

이리하여 해방후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는 미제의 불의의 침공을 제때에 분쇄하고 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은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강대한 적을 반대하는 힘겨운 전쟁에서 조국의 운명을 두어깨에 걸머지고 인민들을 원수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조

직동원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부름에 따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우와 같은 책, 28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시고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항전에로 힘있게 궐기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준엄한 시련에 대처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전체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으며 평화산업을 군수산업으로 전환시키시고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투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간부들과 당원들을 군대에 파견하시였으며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항상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조국해방전쟁에서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과 위훈을 떨치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복잡하게 조성되는 정황을 예견성있게 통찰하시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작전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비행기사냥군조운동, 습격조와 저격수 활동, 영구축성물을 배합한 야전진지에 의탁한 전투, 전략적후퇴시기에 있어서 적의 주력을 견제하는 한편 대부대적후투쟁의 조직,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등 새롭고 독창적인 전투형식과 전법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아군이 항상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게 하시였으며 마침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또한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피로 쟁취한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하여 일떠선 전체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여주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준 우리 당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목숨을 헤아리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6~17페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받으며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을 꺼꾸러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새 사회제도하에서 살게 되였으며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새생활창조의 길에서 보람찬 삶을 체험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여주었으며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준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인민주권과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위하여, 다시는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조국의 운명을 결단하는 판가리싸움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의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술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원쑤격멸의 성전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조국의 하나하나의 고지, 한치의 땅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전쟁승리를 위한 영웅적투쟁은 전선에서뿐만아니라 후방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후방의

전체 인민들은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 전시생산을 보장하였고 전선을 힘있게 원호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정의의 구국항전에 일떠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진영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수억만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실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온 땅이 불바다로 변하고 강물이 끓어번지는 전화속에서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새 사회, 새 제도를 위하여, 혁명위업을 고수하기 위하여 불사조와 같이 싸웠으며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주고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저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했을뿐아니라 정치도덕적으로도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년동안의 조선전쟁기간에 제2차세계대전시기 4년동안의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이르는 막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의 손실을 보고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군사전략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의 뚜렷한 시위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적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어떤 무기나 기술적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된 혁명적인민의 힘에 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이 진리를 명백히 확증하였다. 최신기술로 장비된 미제국주의침략군대는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앞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은 력사적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심대한 패배를 주고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은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를 산산이 부셔버리고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온 천하에 발가놓았으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에게 미제는 결코 무적이 아니며 놈들과 싸워 능히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진영을 위협하던 미제의 침략기도를 꺾어버리고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굳건히 보위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습니다.》(우와 같은 책, 19~20페지)

우리 당은 전쟁을 통하여 그 어떤 풍파도 시련도 뚫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고나갈수 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다. 인민군대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세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특히 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혁명적골간이 새로 자라났으며 우리 혁명대오는 비상히 확대강화되였다.

* *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에서 군사, 정치, 도덕적으로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였으나 아직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으며 침략적야욕을 버리지 않고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해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에서 찾으려고 발악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 미쳐날뛰는것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처지가 더욱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주며 죽어가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놈들의 침략기도를 의연히 버리지 않고있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지난 16년간 미제는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려왔으며 특히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침입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침입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새 전쟁 도발소동을 미친듯이 벌림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첨예화시켰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미제에 의하여 새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상시적으로 떠돌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이며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져야 하며 원쑤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56~357페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적력량이다.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자기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있지 않고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원쑤를 타승할수 없다. 오직 확고한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있어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짐으로써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놈들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61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전쟁에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무장한 인민대중이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적과 맞서싸우는 대중의 정신상태와 정치적각오정도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과 혁명군대의 튼튼한 정치사상적무장,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할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에만 언제 어데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끝까지 관철할수 있으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될수 있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증오하며 특히 우리와 한하늘을 같이 이고살수 없는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을 극도로 증오하며 놈들과 끝까지 싸워 백년 피맺힌 원쑤를 갚고야 말 높은 계급적 각오와 혁명적결의로 충만되여있어야 한다.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오늘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들에 의하여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반부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미제의 예속과 억압에서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남반부인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떨쳐나설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며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항상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죠아평화주의적표현이며 수정주의적사상조류이다. 우리는 미제와 맞서 한번 전쟁을 해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튼튼히 다져야 하며 전쟁에 대한 온갖 그릇된 태도를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강도 일제를 물리친 유격전과 미제를 타승한 현대전쟁의 경험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무기에 정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63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혁명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무적의 혁명군대로 되게 할수 있으며 적들이 우리 나라의

그 어느곳으로 침입하여도 놈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릴수 있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는 우리의 혁명무력을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는 기본방침이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체 군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일당백의 무적의 군대로 계속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하나의 난공불락의 군사요새로 전변시키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일당백으로 무장한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이 요새화된 공고한 진지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침략자들을 일격에 소탕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65페지) 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에 날뛰고있는 오늘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후방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후방을 공고히 하며 군사전략상 중요지대를 잘 꾸리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충분히 갖추며 어떠한 정세하에서도 모든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시생산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여있을 때에만 원쑤들은 감히 덤벼들지 못할것이며 설사 적들이 분별없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어 침략자들을 족칠수 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날강도 미제와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불타고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리고 백년 피맺힌 원쑤를 갚고야 말 혁명적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나라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의 그 어떤 도발도 단호히 물리칠 자위적방위력을 가지고있으며 그 어떤 장기전에도 대처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인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남반부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은 현실발전의 필수적요구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사상혁명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당이 학습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그리하여 모두가 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매우 긴장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에 긴절한 혁명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는 복잡한 조건에서도 일군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조선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더잘 키워주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각방의 따뜻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며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면서 일군들속에서의 사상정치교양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으며 몸소 학풍수립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의 그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도 유격대원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력사적인 마당거우, 백석탄 밀영에서의 동기군정학습을 비롯하여 면밀한 준비밑에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군정학습을 줄기차게 조직지도하시였으며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내외원쑤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모든 분야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정치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구체적인 교양과 지도, 그리고 그이의 고귀한 실천적 모범이 있었음으로 하여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열렬한 혁명가로,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될수 있었으며 해방후 짧은 력사적기간내에 우리 지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이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일당백의 혁명전사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도수준을 더욱 높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칠석같이 묶어세우고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혁명로선과 혁명과업들을 보다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기들을 오늘과 같은 어엿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신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

*　　*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사업이란 곧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회를 개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려면 먼저 간부들자신부터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여야 하며 사회의 발전법칙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서는, 다시말하여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을 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담당자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강한 혁명적의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처싸우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가져야 하며 혁명의 강유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인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과학적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은 또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서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광범한 대중이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일군들이 대중을 이에 옳게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느가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가 좌우된다. 혁명과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불러일으키자면 간부들이 사상정치적으로 준비되고 기술실무에 정통하여야 하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해야 한다.

여기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인다는것은 그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다같이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확고한 사상정치적준비, 이것은 모든 지도일군들에 대한 첫째가는 당적요구이며 높은 실무능력도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질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의 속도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준비되고 전개력있는 지휘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에서 약한 고리는 간부들의 지도수준이 당의 옳은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일떠선 대중의 혁명적기세와 빨리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간부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6~167페지)

사회주의혁명이 이미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력사적전진이 이룩되었으며 날을 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더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을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천리마의 속도로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규모는 비할바없이 커졌고 그 전진속도는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우리는 혁명을 더욱더 심화발전시키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과 확고한 담보를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인민대중의 드높은 혁명적기세가 있으며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튼튼한 정치적 및 경제적 밑천이 있다.

우리가 혁명의 승리를 더욱더 앞당기는가, 앞당기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이 조성된 환경과 성숙된 요구에 맞게 지도수준을 급속히 높이는가 높이지 못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다른편으

로는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선결문제로 나선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의 지도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계급투쟁도, 경제건설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는 투쟁이나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은 지도일군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사상정치적준비에 기초해서만, 그리고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동원자적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특히 사상의식령역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인 사상혁명, 근로자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는 간부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선행시켜야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또한 간부들의 지도수준을 급속히 높여야 비할바없이 규모가 커졌고 기술장비가 강화되였으며 부문간의 련계와 부문내부의 기술공정이 매우 복잡하게 된 오늘의 사회주의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하고 더욱더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부단한 장성속도를 계속 견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간부대렬이 부단히 새 일군들로 보충되는 사실은 또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급속히 높일데 대한 요구를 더욱더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간부대렬이 새 일군들로 끊임없이 보충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합법칙적현상이다. 따라서 새로 보충되는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급속히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민감하게 수응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 모든 단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각급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 건설을 빛나게 수행함에 있어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급속히 높이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로 되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높은 당적책임성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가장 근본적이며 제일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정책에는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사상사업을 하는 방법, 군중과의 사업방법, 반혁명과의 투쟁방법도 있으며 공산주의교양에 대한 문제, 공업정책, 농업정책, 문예정책, 교육정책, 대외정책 등 없는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해명되여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까지 다 밝혀져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가일층 발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 지도리론이며 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완벽한 과학적해답이 명시되여있을뿐만아니라 미래를 예견하고 닥쳐올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혁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도가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념원이 구현되여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조직적의사가 집대성되여있다.

그러므로 지도일군들이 조선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혁명적 립장과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며 어떠한 관문도 열어제끼고 대중

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한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우리는 날카로운 계급적안목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 문제를 객관적으로, 전면적으로 볼수 있으며 옳고 그른것을 정확히 식별할수 있다. 이렇게 되여야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으며 매사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처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우리 당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모든 지도일군들이 사상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조선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기 위한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요구로 된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원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간부들은 응당 항일빨찌산들의 고상한 품성과 혁명적사업방법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처럼 행동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77페지)

혁명전통을 연구체득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빛나는 업적,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확고부동한 유일사상체계, 혁명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불멸의 투쟁업적과 풍부하고 귀중한 투쟁경험,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 등 실로 넓고도 깊은 내용을 포괄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연구체득하는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높은 사상정치적준비를 갖추게 하는것과 함께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믿음직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지도능력을 가질수 있게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넓고 깊게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래야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신속정확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경제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구체적이며 과단성있는 정확한 지도를 보장할수 있다.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경제사업도, 정치사업도 잘해나갈수 없다.

각급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 그리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넓고깊은 경제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오늘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그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당적임무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여주시기 위하여 각급 양성기관들에서 수많은 당 및 국가 간부들을 양성하도록 하여주시는 한편, 각종 강습과 방식상학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모든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하는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주신 이 모든 조치들은 일군들의 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지도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강화함에 있어서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들은 신로 우리 당을 조식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혁명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방침들이다.

모든 일군들은 수령께서 취하여주신 혁명적방침들의 본질과 의의를 똑똑히 파악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기의 사상정치수준을 당적요구의 높이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여기에서 각급 양성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양성기관들은 교원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강의를 질적으로 보장하며 수강자들이 강의내용을 철저히 파악할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수강자들로 하여금 자체학습을 강화하고 집체토론을 활발히 전개하도록 조직지도함으로써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급속히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또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학습을 생활화하고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것이 혁명투쟁의 정신적량식을 얻는 결정적수단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간부들은 집단내에서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는 제도를 엄격히 세우고 자신이 이에서 솔선 수범이 되여야 하며 학습회, 강연회, 토론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한 내용을 현실과 결부시켜 심화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도일군들이 수령의 저재적로작들과 교시들,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고 그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국가경제관리지식과 기술실무에 정통하고 배운것을 실천에 써먹을줄 알게 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실지사업에 구현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illegible]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령도의 탁월한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일군들을 교양육성하는데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들이 견지하여야 하며 모든 간부들이 따라배워야 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의 전형을 제시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은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구체적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대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키며 상하합심하여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찾음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만아니라 아래사람들을 참을성있게 교양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도록 함으로써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하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찾을줄 아는 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며 벅찬 현실속에서 더욱더 혁명화될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이렇듯 모든 지도일군들의 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관철하여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아래에 대한 집중지도사업을 잘 조직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방도로 된다.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집중지도는 아래일군들에게 당정책과 당사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한편,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에 내재하는 우결점들을 종합적으로 료해한 기초우에서 사업을 개선하고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뿐만아니라 아래일군들의 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과 국가경제기관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에 맞게 아래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집중지도를 계획적으로 준비있게 조직진행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더욱 추진시키는 동시에 전반적일군들의 지도수준을 하루빨리 당적요구의 높이에로 끌어올려야 할것이다.

개별적일군들에 대한 각급 당조직들의 구체적인 산지도와 당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기관들과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간부들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고착시키며 모든 간부들이 자기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11～312페지)

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도와주는것은 간부사업의 중요한 일환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이 사업을 중요한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힘을 넣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정형을 체계적으로 료해하고 그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지도수준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실속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이 당조직생활을 잘하도록 지도방조하며 그들에 대한 방식상학과 강습도 조직진행하고 그들을 강연에도 출연하게 하고 글도 쓰게 하는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지도하고 교양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당조직들의 일상적인 지도통제와 실속있는 도움에 의하여 급속히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또한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도일군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그들이 놀아야 할 역할은 참으로 크고도 무겁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여 자기앞에 부과된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감당해나가는 조선혁명의 유능한 지휘관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수령께 끝없는 충성을 다해야 할것이다.

농민혁명화와 집단주의교양

주 학 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과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들에서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집단주의교양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력히 전개한 결과 그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으며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일층 추진되였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업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그들속에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농민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을 길러줄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 ⁂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은 그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화란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도록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성적으로 하고 자기 집 살림살이는 물론, 설비, 자재를 비롯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의 이 교시는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집단주의교양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조직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의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생활원칙이며 혁명적기풍이다.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만 농민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혁명화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견결히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로 되게 할수 있다.

오래동안 소농경리와 련결되여있던 과거 농민들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그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에 부농경리가 발전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농장원들의 구성을 보면 본래의 고농은 적고 대부분 과거의 빈농과 중농으로 구성되여있다. 빈농은 절반로동계급이며 절반소자산계급이다. 그들은 한편으로 품팔이도 하였지만 소나 농기구도 가지고있었고 얼마간의 자기 땅뙈기도 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 빈농은 말 그대로 절반로동계급 즉 반프로레타리아트이다. 중농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벌써 완전한 소자산계급 다시말하여 소부르죠아지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부분 농민들이 과거에 얼마 안되는 땅뙈기와 소농기구를 가진 소소유자로서 오래동안 소상품적개인농경리

를 운영해왔다. 소상품적개인농경리는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낳으며 부르죠아사상을 배양한다. 농민들이 바로 이러한 소농경리에 얽매여 살아왔기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소유자적근성, 개인리기주의사상이 뿌리깊이 남아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농민들은 과거에 집단적인 로동속에서 단련될수 없었으며 더우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대규모적인 혁명투쟁을 통하여 세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으로 하여 농민들속에서 소소유자적근성,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필연적요구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농촌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되여 토지나 다른 생산수단이 다 공동소유로 되였으며 모든 농민들이 공동경리에서 집단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제도는 멀리 앞서나가고있지만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은 아직도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의 머리에는 리기주의와 소부르죠아 사상, 집단주의에 어긋나는 낡은 사상이 뿌리깊이 남아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4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는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 농촌경리제도는 철저히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다.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에 기초하고있다. 여기에서는 개인의 리익과 집단의 리익이 일치하며 농장원들의 단결과 협조가 농업생산력발전의 강력한 요인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는 농민들로 하여금 개인리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긴밀히 협조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협동경리제도는 농민들로 하여금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오늘 농민들의 머리속에는 개인리기주의사상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농업생산력발전을 저애하고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협동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백방으로 발양시키는데서 중심적인 과업으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소유인 집단적소유를 튼튼히 하여야 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집단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개인리기주의를 없애지 않고는 이 모든 발전과정을 촉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2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한다.

협동적소유는 물론 사회주의적소유이기는 하지만 전인민적소유는 아니다.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로 만들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없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 위한 력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들을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할 필요성은 또한 농촌경리부분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관련하여 더욱 절박

할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제시하신 매 정보마다 500키로그람 더 증수하는 전투적과업을 우리는 반드시 실행하고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고 물을 최대한 절약하며 흙갈이를 비롯한 토지개량사업,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 유리하게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 사방야계공사, 하천정리 등 실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농민들이 고도의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고 힘을 합쳐 협동농장을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튼튼히 꾸릴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집단주의의 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투쟁대상은 착취계급이 남겨놓은 개인주의, 리기주의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속에서 집단주의사상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15페지)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집단주의와 량립할수 없으며 이것은 농촌에서 사상혁명의 중요한 투쟁대상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온 뿌리깊은 사상이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착취사회에 고유한것으로서 그것은 사회의 물질적조건이 변하여도 인차 없어지지 않고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사람에게로 전파되면서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온갖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사상을 조장시키며 그것이 확대되면 지방주의 혹은 기관본위주의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개인리기주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크게 저애한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들의 사상적락후성을 극복할수 없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넘기는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 **집단주의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데 기초를 두고있습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사상교양을 강화하자면 우선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혁명동지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어야 한다.

혁명동지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할줄 알아야 자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할수 있다. 동지들과 함께 어울리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랭정하며 행복과 기쁨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대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조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없으며 자신을 혁명가로 끊임없이 수양할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예로부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전통적미풍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미풍은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하에서 집단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과정에 활짝 꽃피고있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발현되는 공산주의적미풍을 계속 발양시키고 혁명동지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며 혁명동지를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혁명정신으로 농민들을 교양하여야만 집단의 단결과 화목을 강화할수 있으며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그들을 집단주의의

사상으로 무장시키자면 집단과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협동조합원들을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존중히 하고 개인의 리익을 그에 복종시키며 집단속에서 동지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공동재산과 공동경리는 조합발전의 토대이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높이는 원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22~32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들은 어느 개인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집단의 전체 성원들을 잘 살게 하는 귀중한 밑천이다.

농민들이 기본생산수단인 땅을 비롯하여 농기구와 부림소 특히 나라와 인민의 소유인 자동차와 뜨락또르, 문화시설들과 관개시설들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정성껏 다루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협동농장과 국가의 소유인 공동재산을 정성껏 다루고 알뜰히 거두는것은 집단과 사회, 나라와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며 그것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만 협동경리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공산주의에로 빨리 나갈수 있으며 농민들의 로동계급화과정을 보다 촉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농기구를 비롯한 공동재산을 되는대로 거두어 녹쓸고 못쓰게 만들거나 귀중한 땅과 비료들이 물에 씻겨내려가는것을 보고도 가슴아파하지 않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릇된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집단주의교양에서 농민들을 집단과 사회의 공동재산을 사랑할뿐아니라 집단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줄 알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모든 농민들이 집단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돌보며 언제나 집단의 전반적인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한가지 일을 해도 실속있게 해놓는 태도와 습성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장이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것은 결코 로력과 · 자금이 많이 드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농민들의 사상관점과 생활습성에 달려있으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에 달려있다. 농장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기 일처럼 돌보지 않으며 농장의 전반적사업이 잘되고 못되는데 대해서 관심을 돌리지 않는것은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과 관습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속에서 이러한 낡은 사상과 관습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모든 농민들을 사회주의농촌경리를 훌륭히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는 착실한 살림군으로 키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농민들로 하여금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며 그것을 착취계급의 사상으로서 미워하고 배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농민들이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공동로동에 더욱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은 인간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는 로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는것이다. 특히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사회와 자기자신을 위한 로동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일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들의 로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서 선차적으로 요구되는 쌀과 고기, 남새와 기름, 알을 생산하는 영예로운 일이며 과거 오막살이에서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 농민들이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문화농촌에서 자신의 끝없는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그들이 하는 로동이 이와 같이 집단과 자신을 위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하며 항상 공동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공산주의적품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집단주의교양에서 농민들을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농업로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로동은 공업로동에 비하여 아직 기계화수준이 낮고 적지않은 경우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일하게 되며, 생물체를 다루는 조건에서 로동의 결과가 즉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뿐만아니라 봄씨붙임,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등 시기성을 많이 요하는 농사일을 제철에 옳게 처리하지 않으면 돌이킬수 없는 큰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농민들로 하여금 항상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주인답게 일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과정을 통하여 농민들의 머리속에 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낡은 부르죠아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두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보람찬 일에 참가하고있다는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우리 당의 붉은 농업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 ⁂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에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차게 벌려 농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확고한 사상의지의 통일이 없는 분조는 참다운 혁명적집단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분조는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조들에서는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분조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페지)

우리 농민들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된것은 바로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였기때문이다.

농촌의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은 농민들속에 수령의 교시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꾸준히 해석침투시켜 그것을 농민들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집단주의의 생동한 모범으로 농민들을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협동농장원들속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

된 한일유격대원들의 집단주의의 산모범을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모든 일군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교양사업을 강하게 전개하여야 하며 모두다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사람들을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당생활과 사회단체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정치생활을 잘하며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입니다.》

집단생활, 정치적조직생활은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 학교이며 당생활을 비롯한 사회정치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농민들을 혁명화하는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농민들은 조직에서 주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우게 된다. 또한 농민들은 집단의 통제와 호상비판을 통하여 개인주의, 리기주의, 로동을 싫어하는 건달습성, 공동재산을 되는대로 거두는 주인답지 못한 낡은 사상잔재들을 극복할수 있으며 집단이 달라붙어 뒤떨어진 사람을 교양개조함으로써 모든 농민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투사로 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은 전체 농민들을 조직생활에 잘 참가시키며 특히 농민들이 국가법령과 농장의 기준규약들,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며 집단생활에서 나타나는 락후한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의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분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조관리제의 중요한 우월성은 그것이 농장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키우는 훌륭한 형태라는데 있습니다.》**(《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4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분조는 훌륭한 생산조직형태일뿐아니라 공산주의사상을 키우는 가장 합리적인 집단생활의 세포이다. 농민들의 일상생활은 분조를 통해서 조직진행된다. 분조생활과정에 농장원들은 서로 성격도 더 잘 알게 되고 리해가 깊어지게 되며 잘못을 서로 깨우쳐주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분조의 역할을 높이고 분조생활을 실속있게 조직하는것은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작업반은 한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며 모든 사람은 한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집단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 40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지혜와 집체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킬뿐아니라 집단이 달라붙어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훌륭한 공산주의투사로 육성하고있다. 그러므로 농근맹단체들에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만 집단의 화목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고 모든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개인리기주의와 온갖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추진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며 불후의 과학적로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해결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리론문제들인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의 다른 원칙적문제들과 함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전기간에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바르게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 인민소비품의 공급사업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해결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관한 문제를 밝힌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발전력사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전면적으로 해명된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문제는 이때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명되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절박한 해결을 기다리던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불후의 로작에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혁명실천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의 성격과 역할, 그것을 리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거기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 그리고 농민시장이 없어지는 시기와 조건 및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 등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이와 함께 상품류통일반이 없어지는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였으며 사회주의상업으로부터 공급제에로의 이행의 합법칙적로정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히시였다.

농민시장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사상은 현실이 그 해결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준 탁월한 경제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 불후의 공헌으로 되며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로작에서 우선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시장에 대한 립장과 태도를 옳바르게 규정할수 있는 지침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

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입니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잔재가 많습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24~25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민시장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인 해명을 준 고전적명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명제에는 농민시장의 본질적특징들이 전면적으로 정식화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시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업협동경리제도와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원천은 협동농장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일부이다.

협동농장의 공동경리는 사회주의적소유의 한 형태인 협동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이며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는 협동농장공동경리의 발전수준과 관련하여 남아있게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농민시장은 농업협동경리와 그와 밀접히 련결된 개인부업생산에 그 경제적기초를 둔 상품교환의 령역이다.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교환이 바로 여기에 그 경제적기초를 두고있다는 사정은 농민시장이 자본주의시장과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측면이다.

농민시장에서는 또한 사회주의근로자들인 협동농민들과 개별적주민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직접 맺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간착취란 있을수 없으며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도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부 일군들은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당장 자본주의를 되살아나게 하는것처럼 겁나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27페지)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착취와 피착취 관계를 낳는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기초가 없다. 농민시장의 경제적기초의 하나로 되는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도 협동적소유와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공동경리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농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제한되여있다. 그리고 농민시장은 사회주의국가의 통제와 사회주의적국영상업의 적극적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여유생산물의 일부를 농민시장에서 좀 비싸게 판다해도 그것은 착취관계로 될수 없으며 그들이 자본가로 되는것도 아니다. 따라서 농민시장을 통하여 맺어지는 상품교환관계는 사회주의적근로자들간의 상품교환관계로 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인 농민시장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시장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농민시장의 자본주의적잔재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입니다. 국가는 농민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계획화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25페지)

농민시장에서는 개별적 협동농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며 국가는 농민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계획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 물론 농민시장의 이러한 자연발생성은 국영상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작용이 강화되는데 따라 일정한 정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가격이 수요

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농민시장에서는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지 않을수 없다. 수요와 공급과 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계획화되지 않으며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은 농민시장이 가지고있는 자본주의적잔재이며 선진적인 사회주의적국영상업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다.

농민시장의 뒤떨어진 측면은 교환관계의 발전수준에서도 표현된다.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교환관계는 전문적상업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발전된 형태의 상품류통에서와는 달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개별적주민들사이에 직접적으로 맺어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원래 장이란 말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것도 아니며 봉건사회때부터 내려온 술어이다.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장이란것이 생겼으며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상인을 장사군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장은 봉건사회에서 생겨난 뒤떨어진 상업형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민시장에 대한 피상적이며 일면적인 견해를 철저히 배격하시고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립장에서 농민시장의 본질적특징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민시장의 성격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시장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의 역할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시장을 리용하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리용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아직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특히 비자루나 바가지와 같은 소소한 일용품들과 고기와 닭알 그리고 참깨, 들깨 같은 부식물들을 다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경리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 방법이 뒤떨어진것이기는 하지만 선진적방법으로 다 할수 없을 때에는 뒤떨어진 방법도 리용하여야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6~27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을 리용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민들의 물질적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리용해야 할 절실한 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며 그것은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데 복무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공업화와 기술혁명이 완수되지 못한 과도기에는 도달된 생산력발전수준으로 하여 계획적인 대규모생산, 선진적방법만으로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다양한 모든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수 없으며 특히 인민들에게 소소한 일용품과 부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품을 다 원만히 공급할수 없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선진적인 방법과 함께 뒤떨어진 방법도 옳게 동원리용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다 잘 보장하여주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뒤떨어진 방법이라 하여 당장 없앨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점차 선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민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을 리용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노는 일정한 긍정적역할과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것은 나쁠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

은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6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은 뒤떨어진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선진적인 방법을 보충하게 한다.

농민시장은 아직 국가의 손이 덜 미치는 분야에서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한다. 농민시장은 부식물을 비롯한 소소한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충적으로 해결해주며 농민들의 여유농산물을 실현할데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농민시장은 또한 국영상업을 보충하여 상품공급통로를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련계를 원활히 하는데서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농민시장이 이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정한 긍정적작용을 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반드시 그것을 의식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을 리용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가르쳐주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넉넉히 생산공급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조급하게 농민시장을 없애려는 좌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7~28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은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 생산에 그 경제적기초를 두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객관적인 필연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조급하게 없애려 한다면 오히려 암거래를 조장시키고 인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시장이 가지고있는 뒤떨어진 측면, 자본주의적잔재만을 인위적으로 과장하는데서 나오는 좌경적편향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좌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고 농민들이 여유농산물을 마음대로 실현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면서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정확히 리용하여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 농민시장을 리용한다는것은 결코 농민시장에서의 자연발생성과 자본주의적요소의 장성을 방임해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시장을 리용하는데서 좌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는 동시에 우경적편향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령 협동농장원들에게 개인터밭을 너무 많이 준다면 그들이 공동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개인경리에 매달리게 되며 자본주의적요소를 조장시킬수도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교시는 개인터밭의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할 때는 농민들속에서 자본주의적요소를 조장시키게 된다는것을 밝히고있으며 따라서 농민시장에서의 자본주의적요소의 장성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사회주의건설에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개인터밭의 크기를 제한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농민들의 머리속에 아직도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않게 남아있는 조건에서 개인터밭의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한다면 협동경리제도의 공고발전을 저애하게 되며 농민시장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함으로써 그의 자연발생성을 강화하고 경제생활과 농민들의 사상의식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것은 가치법칙의 맹목적작용을 위한 길을 넓혀주며 경제생활에서 자연발생성과 자본주의적요소의 장성을 조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우경적편향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시종일관 협동농장원들의 개인터밭과 기타 부업생산의 규모를 적절히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과 자본주의적요소

의 장성을 제한하면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의식적으로 리용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였다.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작용을 강화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국가의 조절적작용은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으나 그것을 일정한 정도로 제한한다.

사회주의국가는 법적통제와 함께 사회주의적국영상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매사업을 더잘 조직하며 농민시장가격에 대한 국정가격의 영향력을 높이는 등 주로 경제적대책들에 의한 조절적작용을 강화해나감으로써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더욱더 제한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가 농민시장에 대한 조절적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제한하면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시장을 법적조치로써 없애려 하거나 지나친 행정적통제를 강화하는 좌경적편향과 농민시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절적대책도 취하지 않고 자연발생성에 방임해두는 우경적편향을 모두 배격하고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근본조건을 점차 성숙시키면서 국가의 조절적작용을 강화하여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을 한걸음한걸음 없애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의식적으로 리용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다음으로 농민시장이 없어지게 되는 조건과 시기,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방도 나아가서는 농민시장과 함께 상품류통일반이 없어진 다음 상업이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가는 합법칙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어느때에 가서야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이 없어지겠습니까?

첫째로,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높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이 넉넉하여질 때에만 그것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둘째로,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은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야만 없어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8~29페지)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이 넉넉하여지며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간다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이 남아있게 되는 근본원인들이 없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는한 농민시장은 단순한 행정실무적인 조치나 주관적인 욕망만으로써는 없앨수 없는것이다.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발전하여 모든 소비품이 넉넉해지리만큼 생산력이 발전하며 단일한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게 되는 시기는 곧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농촌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시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는 시기이다.

농민시장은 결국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과도기과업을 완수할 때에 비로소 완전히 없어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시장이 없어지게 되는 조건과 시기를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물건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간다면 마지막에는 농민시장이 필요없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9페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 국가가 모든 소비품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것

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를 없애는것으로서 농민시장과 그에 따르는 자본주의적잔재를 없애기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농민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은 아직 국가적으로 충분히 생산공급하지 못하는 소소한 소비품들이다. 국가가 이러한 모든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간에 차이가 있게 되며 암거래, 되거리 현상도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발전하여 국영상업이 소소한 소비품까지다 유일적인 값으로 충분히 공급하게 되면 농민시장에서의 상품교환의 경제적필연성이 없어지며 암거래, 되거리 현상의 경제적조건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가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 것은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시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또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두개의 소유가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로 될 때에는 생산력이 발전하여 개인부업경리가 없어지고 따라서 농민시장이 없어질것이며 상품류통일반이 필요없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국영경리와 함께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있는데 있다.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농민시장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는만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농민시장을 완전히 없애는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천재적으로 천명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간의 유기적인 련계를 실현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접근하여감에 따라 생산력이 발전하고 농업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며 개인부업경리는 점차 그 의의를 잃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협동농장의 공동경리도, 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도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농민시장도 종국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명확한 방도를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농민시장이 없어질 때에는 상품류통일반이 없어지며 그때에 가면 상업이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간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에 가서 생산물은 공급제에 의하여 분배될것입니다. …우리가 생산력이 매우 발전하고 두 소유형태가 단일한 전민소유로 될 때 실시하려는 생산물에 대한 공급제는 오늘 우리가 통제하기 위하여 하는 공급제와는 달리 많이 생산된 소비품을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공급제를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농민시장과 상품류통일반이 없어진 다음에 소비품분배의 기본형태로 되는 공급제에 대한 사상을 제기하시고 그 특징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공급제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비품의 분배가 자유로운 매매, 상업을 거치지 않으며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더욱 원만히 충족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모든 소비품이 풍족하지 못하며 단일한 전인민적소유제가 확립되기전에도 일부 생활필수품에 대한 공급제를 실시한다. 이것은 일부 기본적인 소비품이 상대적으로 부족되게 생

산되는 생산력발전수준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사회주의국가가 근로자들의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보다 고르게 충족시키도록 통제하기 위한것이며 이 시기는 상업이 소비품분배의 기본형태를 이룬다.

물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상업의 기본기능은 인민의 복리증진, 인민에 대한 상품의 계획적공급에 있으며 사회주의상업은 본질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다. 그러나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상품생산과 상품류통이 남아있는만큼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은 자유로운 매매의 낡은 형식을 리용하지 않을수 없다.

생산력이 매우 발전하고 단일한 전민소유제가 지배하게 되는 시기에 실시되는 공급제는 상업과 구별될뿐만아니라 과도기에 통제하기 위하여 하는 공급제와도 완전히 다르다.

단일한 전인민적소유의 조건에서 하는 공급제는 모든 소비품이 넉넉히 생산된 조건에서 그것을 근로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더 잘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급제의 실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비품분배와 인민생활향상에서 하나의 력사적전환으로 된다. 공급제가 실시되면 소비품공급분야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과 수요공급관계의 영향이 완전히 제거될것이며 소비품이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모자라는것과 같은 현상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모든 주민들의 수요가 보다 완전히 보다 계획적인 절차로 충족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더욱더 고르게 높아지고 과도기기간에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각이한 계층사이의 생활수준상차이가 결정적으로 줄어들것이다. 공급제의 실시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게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급제의 본질적특징들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신데 기초하시여 상업으로부터 완전히 공급제에로 넘어가는 기본조건들과 그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고전적명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인민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킬데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도록 곧바른 길로 이끄는 지도적지침이다.

공급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행정에서 해당한 물질적 및 사회적 조건이 조성될 때 소비품분배의 유일한 형태로 된다.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들을 국가적으로 넉넉히 공급할수 있도록 생산력이 발전하는것은 앞날의 공급제의 물질적전제로 된다. 생산력의 높은 발전과 함께 단일한 전민소유제의 확립은 농민시장을 포함한 상품류통일반의 의의를 없앰으로써 상업을 거치지 않는 계획적인 공급이 모든 소비품에 대하여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생산력이 매우 발전하고 단일한 전민소유제가 확립될 때, 다시말하여 과도기가 끝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 때에 공급제는 완전히 실현될것이며 주민들의 수요는 공급제에 의하여 더욱 원만히, 보다 고르게 충족되게 될것이다.

상업으로부터 공급제에로의 이행과정은 사회주의상업에서 그 본질적내용이며 기본기능인 주민들에 대한 공급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이며 낡은 매매의 형식이 부단히 떨어져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상업의 기본기능인 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동시에 완전히 공급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근본조건들을 점차 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게 되면 상업을 완전히 공급제로 넘겨야 한다.

농민시장이 없어지고 상업이 공급제로 넘어가는 합법칙적로정을 밝혀준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주민들에 대한 소비품의 공급과 상업문제를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혁명적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이다.

* *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은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발전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에서 거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농민시장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회주의국가가 낡은 경제범주인 상품화폐관계를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의 한 고리를 이루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을 옳바르게 구현해나가는데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농민시장에 대한 체계정연한 리론을 창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이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분쇄하고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공급제에로의 이행에 관한 천재적인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상업리론을 완성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풀고넘어가야 할 소비품분배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방도를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그이의 모든 창조적사상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가일층 풍부화시킨 귀중한 재부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사상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 정확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담보로 된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농업경제연구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떠한 파쑈 폭압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을수 없다

정 만 철

오늘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극도의 빈궁과 무권리를 강요하고있으며 민족적존엄을 여지없이 짓밟고 남조선전역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들고있다.

놈들은 최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수행에 동원하며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일체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매일과 같이 파쑈폭압소동을 벌리면서 무엇보다도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탄압학살하는데 폭압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놈들은 급격히 장성하는 혁명력량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폭압기구와 폭압력량을 대대적으로 늘구는 한편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여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함부로 검거투옥하고 살인 《재판》을 련일 벌리는 극악한 만행을 감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전례없이 로골화되는 파쑈폭압책동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며 극악무도한 파쑈교형리들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야수적인 식민지파쑈통치를 분쇄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우고있는 군사파쑈독재의 반동적본질과 그 특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로골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습니다.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에 철저히 복무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86～387페지)

파쑈독재는 제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저들의 지배체계를 유지하며 침략전쟁을 감행하기 위한 가장 횡포한 폭력적통치수단이다.

미제는 멸망하여가는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으며고 발악하면서 자국내에서는 물론 특히 제놈들의 식민지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장 야수적인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현대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의 산물로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화정책과 전쟁정책에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기지화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모험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가장 로골적이며 횡포한 파쑈화정책에 매달리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전역을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에 근 6만명의 미제

침략군과 60여만의 방대한 괴뢰군을 유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각종 현대적살인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각종 군사시설을 신설 확장하는 등 남조선전역에 걸쳐 《림전태세》를 완비하기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는 새 전쟁 도발책동의 일환으로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각종 군사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리면서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미제의 충실한 주구이며 철저한 매국노인 박정희괴뢰도당은 상전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괴뢰군을 남부윁남의 전쟁터에 밀어넣어 개죽음을 당하게 하고있다. 놈들은 이른바 《현대화》라는 미명밑에 남조선경제를 완전히 《전시체제》로 개편함으로써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침략전쟁수행에 동원하고있다.

남조선의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하고있는 악랄한 전쟁정책의 필연적산물인 동시에 놈들의 전쟁정책실현에 남조선의 모든것을 더욱 철저히 복종시키며 전쟁정책수행에서 장애로 되는 일체 사회정치적요소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놈들은 바로 이러한 반동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탄압을 위한 파쑈적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있으며 괴뢰군은 물론 괴뢰경찰, 첩보, 특무 등 폭압력량을 대량증강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탄압하는데 내몰고있다.

미제와 박정희파쑈악당은 각종 파쑈폭압기구와 파쑈력량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각종 악법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여 남조선땅을 살기어린 폭압망으로 뒤덮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은 말그대로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화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악당놈들은 저들의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면서 야만적인 폭압의 예봉을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혁명활동을 탄압하는데 돌리고있다.

파쑈적폭압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임자도혁명조직《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등 터무니없는 각종 《사건》들을 꾸며내여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온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걸어 부당하게 체포투옥하고 매일과 같이 살인《재판》놀음을 벌리고있으며 그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열렬한 애국자이며 불굴의 혁명투사인 남조선통일혁명당 전라남도위원장 최영도동지를 옥중에서 잔악하게 학살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한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은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열렬한 혁명가 김종태를 비롯한 그 전우들을 또다시 집단적으로 학살하려는 책동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인 불굴의 혁명투사 김종태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투사들을 가두어놓고 비인간적인 악형을 가하여오던 끝에 최근에는 김종태에게서 《항소권》마저 빼앗고 사형을 《확정》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으며 임자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혁명가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운데 뒤이어 또 서울과 부산, 보성 등 남조선의 광범한 지역에서 활동한 애국적인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살인재판에 넘기는 범죄적책동을 벌리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적만행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을 포함한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되는 범죄적인 파쑈적만행은 미제와 박정희괴

괴도당이야말로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며 가장 저주로운 파쑈교형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미제와 박정희악당의 파쑈적만행은 놈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며 위기에 처한 식민지통치를 수습하고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 날뛰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한것이 결코 그 어떤 《죄》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늘의 남조선현실은 바로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며 진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반미구국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것은 응당 높은 찬양을 받아야 할 애국적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을 휘두르면서 제놈들의 극악무도한 파쑈테로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7페지)

오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을 저들의 파쑈화정책과 전쟁정책을 《합리화》하는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민주주의운동과 혁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놈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에 장애로 되는 사소한 정치적요소를 탄압하는데서도 언제나 《반공》을 그 방패로 삼고있다.

놈들은 《반공》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준비를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혁명력량에 대한 반동적공세를 강화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소한 언행도 여지없이 탄압하고있다.

놈들은 《군사정변》직후부터 《중립화통일론》을 포함한 모든 평화통일론까지 《용공》으로 몰아 그 주장자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고 지어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투쟁까지도 《반공》에 걸어 수많은 사람들을 중형에 처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소동이 놈들의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모험적인 전쟁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단말마적인 발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악당은 어떠한 파쑈폭압소동이나 《반공》소동으로써도 제놈들의 위기를 수습할수 없으며 반미구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지를 꺾을수 없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취약성의 발현으로서 그것은 붕괴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정책과 파쑈적폭압을 강화할수록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더 큰 불만과 반항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88페지)

파쑈독재는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는데 질겁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이 인민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가장 반동적인 폭압수단이며 동시에 그것은 놈들이 의거하는 마지막 통치수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식민지통치의 위

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야수적인 군사파쑈독재에 매달리고있다는 그자체가 벌써 놈들이 총검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할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한때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던 군국주의 일본과 나치스 독일, 파쑈 이딸리아가 무모한 침략전쟁의 길로 나가면서 극악한 파쑈독재에 매달리였으나 마침내 멸망하고야 말았던것이다.

오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도 력사의 전철을 밟으면서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에 매달리고있으나 놈들은 결코 그것으로써 멸망의 운명을 수습할수 없으며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날로 강화되는 놈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이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되게 하며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대중적으로 일떠서게 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82페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무모한 전쟁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야수적인 파쑈폭압정책에 의거하면 할수록 남조선인민대중의 불만과 항거는 더욱더 커지게 되며 원쑤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 인민들은 더욱 적극히 일떠서게 된다. 이것은 미제의 처지를 극도로 악화시키며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여기에 바로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의 근본적취약성의 하나가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쑈폭압밑에서 온갖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받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다. 그들은 원쑤들이 강요하는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빈궁과 기아에 시달리고있으며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농촌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형언하기 어려운 처참한 기아지대로 되고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더 많은 전쟁준비자금과 군량미를 긁어내기 위하여 절량상태에 있는 농민들을 마구 수탈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농촌에는 무서운 기근이 휩쓸고있으며 수십만의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나 도시로 류랑걸식하고있다.

남조선사회의 파국적사태,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그냥 유지되는 한 결코 가셔질수 없으며 도리여 그것은 더욱더 가중하여질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오늘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뿌리빼고 참다운 삶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더욱더 똑똑히 깨닫고있다. 날로 각성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을 털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길에 힘차게 나서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어떤 총칼의 힘으로써도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파쑈폭압정책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놈들의 지반은 더욱더 뒤흔들리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며 반면에 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은 높아지고 혁명투쟁은 더욱더 앙양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뒤집어엎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오

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과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려는 혁명적결의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가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장성시키며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된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남조선인민들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다함없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을 따라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 특히 남조선혁명에 관한 그이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혁명투쟁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이와 같이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치고 그이의 불패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있게 전진할 때 극복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또한 있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이 더욱 높아가고 그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더 튼튼히 무장함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더욱 줄기차게 발전하고있으며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민혁명당《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정심회사건》, 《독서회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경북대학교의대사건》, 통일혁명당《사건》 등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투쟁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굳세게 꾸리며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광범한 대중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여 혁명투쟁에로 일떠세우고있다.

남조선의 대학교수들과 언론계인사들, 군인들, 공무원 등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이 망라된 통일혁명당 성원들은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수령의 로작들을 깊이 연구하여 우선 자신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기관지 《청맥》을 통하여, 또는 대중속에 들어가 광범한 인민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각계각층 인민들을 합법적인 대중조직들에 묶어세워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용감히 전개하였다.

또한 청년학생들이 중심이 되여 조직된 《독서회》성원들은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선서문》을 작성하여 《조선로동당수령 김일성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조선로동당력사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연구하면서 견결히 투쟁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조직이 탄로되여 부득이 적들에게 체포된 경우에 있어서도 혁명적지조를 지버림이 없이 혁명가적임무를 다하기 위해 억세게 싸웠다.

지난해 6월 경상북도 《대구교도소》내 수명의 혁명가들의 완강한 옥중투쟁,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과 관련한 제5회공판에서 《조선로동당과 김일성동지를 위해 충성을 다할것을 선서》한 이것이 왜 《간첩죄》로 된단말인가고 들이댐으로써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법정》투쟁과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의 결심공판을 규탄하여 《이 재판도 언젠가는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라고 단호히 경고한 애국자들의 완강한 《법정》투쟁들은 그의 명백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서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타승할수 없는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급속히 자라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준다.

정치사상적각성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시고 진정한 주권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8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투쟁하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류례없는 악독한 파쑈폭압하에서도 도시와 마을, 지하와 산중에서 지어는 감옥과 살인 《법정》에서까지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가며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원쑤들의 발악적폭압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조직을 보위하며 인민대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정의의 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용감히 전개하고있다.

무장유격대원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고있을뿐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용감히 싸우는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애국적활동은 광범한 남조선인민대중들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보다 대중적으로 혁명투쟁에 일떠서게 하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며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곳곳에서 시위, 파업, 태업 등의 투쟁으로 원쑤들과 맞서 완강히 싸우고있으며 농민들은 토지략탈을 반대하여 련좌시위를 벌리는것과 같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미반《정부》투쟁에로 발전하고있으며 특히 투쟁의 창끝은 더욱더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려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그 붕괴를 급속히 촉진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기에 날뛰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준엄히 폭로규탄하고있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가장 야수적인 파쑈폭압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장성하고있으며 저주로운 군사파쑈독재의 붕괴과정은 더욱더 촉진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는 그자체의 극복할수 없는 취약성으로 하여 그리고 남조선인민들의 장엄한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분쇄되고야 말것이며 남조선혁명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시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단합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게 될 그날은 더욱더 다가오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인민들은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며 통일된 조국에서 수령의 따뜻한 품에 안겨 보람찬 생활을 누릴 그날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반미투쟁은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고 영 일

현시기 세계반제력량과 국제혁명운동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는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광범히 벌리는것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반제투쟁과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것을 현시기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 규정하시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세계 모든 인민들이 미제를 반대하는데 투쟁의 창끝을 돌릴데 대한 교시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은 현시기 반제투쟁과 국제혁명운동이 제기하고있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답으로 되며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김에 있어서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모든 인민들이 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미투쟁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회피할수 없는 공동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교시는 세계 모든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세계 모든 인민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미제가 세계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로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인민들이 벌리고있는 그 어떤 혁명투쟁도, 그 어떤 진보적운동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기때문이다. 오직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력사적지위와 국제무대에서 미제가 벌리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반미투쟁이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되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주시였다.

반미투쟁이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되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미제가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라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받고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6~6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이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되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되는 필연성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세상에 나타난 첫날부터 세계인민의 흉악한 원쑤로 등장한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세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세계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벌림으로써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로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조선에서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벌리였고 그에 뒤이어 웰남과 꾸바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 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반대하는 무력간섭을 빈번히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실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제가 일으킨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로부터의 출로를 국제긴장상태의 격화와 군비경쟁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침략전쟁에서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현시기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문화적침략으로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킴으로써 세계침략을 위한 저들의 흉악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면전쟁과 핵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부단히 벌리고있으며 웰남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서 《국부전쟁》과 《특수전쟁》을 모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100여년전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여왔으며 해방후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감행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남조선에 계속 둥지를 틀고앉아 새 전쟁 준비에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과 괴뢰군 병력을 더욱 증강하고 도처에 군사시설들을 확장하고있으며 전술적핵무기와 유도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남조선전역에 걸쳐 《전시태세》를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1월에 있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사건과 금년 4월에 있은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의 우리 나라 령공침범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또다시 새 전쟁이 터질 위험성이 조성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한 우리 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혈안이 되여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군과 괴뢰군 및 추종국가 고용병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남부웰남에서 야수적인 살륙전쟁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강도적침략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꾸바의 령토 관따나모를 강점하고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부단히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이와 같은 무력침략과 함께 로동운동의 대렬안에서 혁명을 두려워하는 비겁분자들을 매수하여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랭전에 매달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침략을 위한 흉악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긴장상태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자주권이 엄중히 짓밟히고있을뿐만아니라 적지않은 나라들은 사실상 미제의 완전한 예속하에 들어가고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침략과 전쟁이 없어질수 없으며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다.

따라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평화의 파괴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놈들의 흉악한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릴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

그러므로 반미투쟁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나라들뿐만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고있는 모든 나라들의 공동의 의무이며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된다.

반미투쟁이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되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미제가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으로서 민족해방투쟁과 민족적독립을 가로막는 주되는 원쑤이라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민족적독립의 흉악한 교살자로 등장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다시금 예속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략행위와 파괴활동을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이 지역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었을뿐만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총칼로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미제의 군사파쑈독재정책은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세계 모든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해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콩고(킨)와 도미니카에서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무력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고 남부웰남에서 야만적인 식민지전쟁을 계속하고있으며 라오스인민의 민족적독립을 무력으로 교살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민족해방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함께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 대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더욱 로골적으로 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 침투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반동들을 매수하고 긁어모아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반동적인 군사정변들을 더욱 빈번히 조작하고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며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여내려고 피하고있다.

최근년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빈번히 일어난 군사정변과 그리고 미제의 《원조》정책의 올가미에 걸려든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날로 파탄되고 정치적자주성마저 유린당하고있는것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과 파괴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인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피압박인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며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고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족해방투쟁과 민족적독립의 흉악한 교살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인민들이 반미투쟁을 더욱 견결히 벌려 놈들을 이 지역에서 쓸어버림으로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건설할수 있다. 따라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이 지역 인민들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고 공동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과업으로 된다.

반미투쟁이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되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

으로 되는것은 또한 미제가 현대제국주의의 괴수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4페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현대제국주의체계에서 미제의 지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미제는 내리막길에 들어선 현대제국주의의 괴수이며 세계반동의 중심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강화되고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진영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려는 반동적목적으로부터 련합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진영의 우두머리로, 국제반동의 두목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의 괴수이며 국제반동의 두목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가 꺼꾸러질 때 세계제국주의의 진지는 더욱더 약화될것이며 제국주의진영의 전면적붕괴과정은 급속히 촉진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반미투쟁은 반제투쟁의 기본이며 세계 모든 인민들의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미투쟁이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로,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된다는 교시는 세계인민들에게 명백한 투쟁방향을 밝혀줌으로써 그들을 반미투쟁에 더욱 광범히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모든 인민들이 미제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반미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립장과 전략전술적방침들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반미투쟁의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제기되고있는 근본문제들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답으로 되며 그것은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반미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이 진실로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됩니다. 미제에 대한 태도는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582페지)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미제에 대하여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취함으로써만 반미투쟁에서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세울수 있으며 미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만약 미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타협하는 길로 나간다면 반미투쟁에서 혁명적립장을 견지할수 없고 결국 투항주의에 빠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는것이다.

세계 모든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날카롭게 폭로하며 미제에 대하여 더욱더 랭랭하고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 반미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과 철저한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심으로써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

끌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의 반제력량은 가장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이루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그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으로 미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수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국제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82∼58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현시기 미제의 세계전략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반미투쟁대오내에 조성되고있는 구체적실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반미투쟁의 근본적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반제력량의 단합된 힘을 무엇보다 무서워하면서 세계반제력량을 분렬하여 각개격파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 발생한 의견상이를 리용하여 국제혁명력량의 전투적단결을 파괴하려고 꾀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미제의 악랄한 각개격파전략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로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반제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는 절박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세계 모든 반제력량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는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하는데 결코 장애로 될수 없다.

미제를 반대하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당파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력량이 광범한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를 철저히 고립시키며 공동으로 타격을 가한다면 놈들의 힘은 더욱더 분산약화될것이며 결국 녹아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적인 반미공동투쟁을 이룩하는데서 사회주의진영의 통일단결이 노는 역할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진영은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세력에 대치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통일된 강력한 사회주의진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며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여준다.

국제로동계급의 불패의 혁명기지이며 전세계 피압박인민들과 모든 진보적인 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인 사회주의진영이 통일되여있어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으며 국제적인 반미공동투쟁도 더욱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진영을 옹호하고 그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의 신성한 의무로 되며 반제반미투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세계반제력량의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국제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를 주동적으로 때려눕힐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위대한 전략적방침은 세계

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현시기 반미투쟁의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여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국놈들의 팔다리도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나라 인민들이 사면에서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그들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1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 그리고 웰남과 꾸바를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전략적방침이다.

특히 이 전략적방침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를 버리고 반미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큰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가지고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혁명을 대신하여 해줄수는 없다.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능히 미제를 타승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은 작은 나라들도 미제를 타승할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줌으로써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그들을 반미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해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다른 제국주의동맹자들간의 반동적결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미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는것을 가르쳐주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9폐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데 모든 반동세력들을 끌어들이는것은 미제의 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수행하는데서 여러 나라의 반동세력들에 의거하고있으며 이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독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현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반미투쟁의 모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가장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으로서 세계반제반미투쟁과 국제혁명위업에 리론실천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우러러 받들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자기들의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　　　　*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인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우와 같은 책, 7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해방투쟁도상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장애들이 가로놓여있고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수 있지만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세계 모든 인민들은 도처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확대강화하며 미제의 각을 떠냄으로써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위업을 가일층 앞당길수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 동시에 세계 모든 인민들의 반미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세계반제혁명위업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써도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며 제국주의 특히 미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며 망하여가는 시대인 현시대의 추세를 가로막을수 없다.

세계 모든 인민들은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모든 곳에서 계속 호된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킬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것이며 반제반미투쟁에 일떠선 세계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로자 제 7 호 (329)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6월 27일　　발행 • 1969년 7월 1일

ㄱ—93236　　값 50전

117

Gunaja (workers)